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베이커 주지사 '이번 겨울 준비 완료'

작년 보다 더 많은 제설기 준비 레드라인 더 이상 문제 없을 것, 그러나 아직 노후한 그린라인에 대한 대책 없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찰리 베이커 메사추세츠 주지사가 지난 21일 월요일 매사추세츠 주 청사에서 열린 소수민족 언론 기자회견에서 “이번 겨울을 대비해 더욱더 철저한 준비를 갖겠다” 고 전했다.

베이커 주지사 취임 후 세 번째로 개최된 이날 소수민족 언론 기자회견은 지난 겨울 눈 사태를 대비해 올 겨울 ‘어떠한 방법으로 준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됐다. 베이커 주지사는 “작년보다 많은 제설기들이 준비되어 있어 더 빠른시간 안에 눈이 치워질 것이다” 라고 전했다.

베이커 주지사는 “작년에도 철저한 준비가 되어있었지만 폭설이 지나치게 심했다” 며 “이번 겨울에는 더욱더 철저한 준비를 갖추었기에 반복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고 밝혔다. 이어 베이커 주지사의 “작년 폭설에 우리 모두가 상처를 입었다” 는 발언에 참석자들은 쓰러린 웃음을 자아냈다.

브라질 라디오 호스트의 “작년 폭설로 인해 MBTA 레드라인과 그린라인이 운행중단되었는데 이번 겨울에는 중단 없이 운행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에 베이커 주지사는 “레

드라인은 지난 겨울에 비해 더 향상되어 자신감이 있다” 고 밝혔지만 그린라인에 대한 답변은 밝히지 않았다. 그린라인에 대한 답변이 나오지 않자 다시 한 번 던져진 질문에 베이커 주지사는 “그린라인은 레드라인에 비해 좀 더 오래된 전철이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눈

이 오는 것에 따라 조치할 것이다” 고 밝혔다. 이날 베이커 주지사는 지난 15일 매사추세츠주 5개 도시의 프리스쿨 교육 확장(Pre-Kindergarten Expansion)으로 1500 만 달러의 보조금(Grant) 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했다. 보스톤을 포함해 스프링 필드, 홀리 요크, 로렌스, 로웰에 지원된 자금은 하루에 8~10시간 858명의 어린이들(5세 미만)

이 오는 것에 따라 조치할 것이다” 고 밝혔다

▶▶2면으로 계속



찰리 베이커 메사추세츠 주지사가 지난 21일 월요일 매사추세츠 주 청사에서 열린 소수민족 언론 기자회견회를 가졌다



병원 및 의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병원은 있지만 가지 못한다. 보스톤의 언어와 문화에 처음인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일이다. 더구나 가끔씩 접하는 막대한 병원비 공포가 발걸음을 잡는다. 우선 말이라도 통하는 한인 병원부터 찾게 되는데 이곳에는 한인 병원이 없다. 그 다음부터 막막해질 수도 있다. 보스톤코리아닷컴의 미국생활 Q&A 게시판에도 한인 병원 또는 의사를 찾는 문의가 심심치 않게 오르곤 한다.

최근 게시판에 올라온 한 유학생의 사연이 눈길을 끌었다. 이 학생은 갑자기 쓰러져 앰블런스 이용해 병원에 실려갔고 치료받았다. 당시 병원비 \$200은 한국 유학보험으로 처리가 됐다. 그러나 추후 집으로 응급차 비용이 날라왔다. 1500불 기본 비용에 마일리지 비용 40불까지. 한국 유학보험은 응급실 비용을 커버하지 않는다고 딱 잘라 말했다.

한국에서는 병원비라고 하면 한 병원에서 모두 일 ▶▶6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부동산 매매·부동산법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할인항공권 전문
IACE TRAVEL

From **\$978**
ONLY 1 STOP (뉴욕 경유)

보스톤-인천 왕복항공권

본 금액은 세금과 유류할증료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위의 \$978은 아시아나항공(국내선:유나이티드항공)요금입니다.
2015년 11월 30일까지, 2016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출발하는 항공권에 한해 적용되는 요금입니다.
또한 발권일은 9월 30일까지이며, 예약상황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866-619-4223 (Toll Free) / 617-424-8956

•영업시간 : 평일 / 오전 11시부터 저녁 9시까지
•문의전화 : 866-619-4223(Toll Free) / 617-424-8956
•웹사이트 : www.iace-korea.com •카카오톡 : 아이디 IACEKOREA
•24시간 예약센터 : 1-877-489-4223 (영어, 일본어 상담 only)

NEWSTAR Realty of Boston
NEWSTAR BOSTON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Licensed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jung@newstarrealty.com

오누리 변호사
June N. Oh, Esq.
부동산 전문 변호사

The Law Offices of Sonja B. Selami
Tel: 508.424.0600
Dir: 508.665.1544
Fax: 508.665.1537
june@selamilaw.com
7 Muzzey St. Lexington, MA 02421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힐리 매사추세츠 법무장관 "불체자 노동착취 엄단"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 법무장관이 지난 23 수요일 보스톤 법무부 장관 사무실에서 개최된 소수민족 언론 기자회견에서 불체자 노동 착취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힐리 법무장관은 "불체자 노동자들은 신분을 떠나 보험, 각종 혜택, 급여 등이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착취를 당하는 불체자의 경우 법무부에 도움을 요청하면 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불체자 착취에 대해 소수민족 케냐 신문사 기자 해리슨 메이 나(Harrison Maina)는 "불법 체류자 노동자들의 경우 월급을 받지 못하거나 최저 임금 이하로 페이가 지불이 되어 억울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들은 고용주로부터 밀고협박을 받고 있어 갈등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힐리 법무장관은 "이민자들은 법무부에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고 덧붙이며 노동자에 대한 권리 (Rights as a Domestic Worker)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힐리 법무장관은 "고용주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동법에 대해

불체자도 신분 상관없이 정당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수 받을 수 있어 뉴욕주, 커네티컷주와는 달리 매사추세츠주 네일가게 단속 계획은 없어

교육받고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한 이해를 해야한다"고 전했다.

노동자들과 고용주들이 알아두어야 할 기초적인 권리를 알아보자.

노동자들은 원하는 시간에 자신의 고용주의 급여 기록을 조사할 권리가 있다. 현재 2015년 매사추세츠주 최저임금은 9달러이기에 9달러이하로 페이가 지급되는 것은 불법이다. 매사추세츠주 최저임금은 2016년 10달러로 증가되며 2017년에는 11달러로 증가된다.

노동자들은 일을 하는 모든 작업 시간에 대해 어느 위치, 무엇을 하던 고용주에 페이 지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노동자들은 하루에 6시간 이상 일을 할 경우 30분의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주당 40시간 이상 일을 할 경우 최소 24시간의 휴식 날이 주어진다.

이어 노동자들은 주 40시간 이상 근무 할 경우 오버타임 페이 지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고용주들은 노동자들에게 페이를 지불해야한다.

노동자들이 고용주의 소재지나 고용주가 지정한 곳에 머무를 경우 고용주는 노동자의 숙박 비용을 제공해야 한다.

노동자들과 고용주의 권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매사추세츠 정부 법원 웹 페이지 (mass.gov/ago/docs/work-place/domestic-workers/dw-notice-of-rights.pdf)에서 찾아볼 수 있다.

힐리 법무장관은 또한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유급 병가법(Earned Sick Time Law)의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새롭게 규정된 법안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무시간 매 30시간 당 1시간씩 병가를 축적할 수 있다. 11명 이상의 노동자를 두고 있는 고용주는 매년 40시간의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하며 노동자가 10명 이하인 경우 40시간의 무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힐리 법무장관은 "국적, 인종, 신분 상관없이 차별, 폭력, 마약, 임금 착취 등으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바로 법무부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지난 2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역 언론사 관계자들과 함께한 힐리 장관(가운데)

이어 보스톤코리아가 "최근 뉴욕 주와 커네티컷 주 네일샵에서 있었던 노동법 위반에 대한 단속이 매사추세츠주에도 시행되느냐"는 질문을 하자 힐리 법무장관은 "현재까지 알려진 소식은 없으나 소식이 알려지는 대로 바로 발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라 힐리 법무장관은 주지사 출마를 위해 법무장관직을 사임한 마사 코클리를 이어 지난 1월 59대 매사추세츠 법무장관으로 임명되었다.

현 직장에서 차별당하고 있거나 노동법이 위반되고 있을시 인터넷 (mass.gov/ago/complaints), 편지 또는 직접 법무 장관 사무실 (1 Ashburton Place Boston MA 02108/617-727-8400)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jham@bostonkorea.com

프리스쿨 교육 확장에 1500만 달러 지원

▶▶1면에 이어서
을 위한 프로그램에 사용된다.

자금이 지원된 5개 도시의 프리스쿨

보스톤 : YMCA of Greater Boston, ABCD Head Start, Nurtury, Wesley Education Center, Ellis Memorial Early Education Center, Boys and Girls Club of Dorchester, Paige Academy, Inc., and Catholic Charities.

스프링 필드 : YMCAs of Greater Springfield, Square One, Holyoke-Chicopee-Springfield Head Start

홀리 요크 : Valley Opportunity Council, Holyoke-Chicopee-Springfield Head Start

로렌스 : Community Day Learning, Greater Lawrence Community Action Council

로웰 : Community Teamwork, Little Sprouts
지원된 프리스쿨에 입학하기 원하면 각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잡은 후 입학이 가능하며 직접 장소로 찾아가 후 시설을 둘러본 후 등록이 가능하다.

이어 베이커 주지사는 "태양열에너지 사용으로 인해 넷 미터링(Net Metering)이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오피오이드(Opioid) 중독자 치료에 대한 정책과 하이드로파워(Hydropower) 제정법, 가정 소득세, 지역 개발 등에 대해 발언했다.

오후 4시 30분부터 약 한 시간에 걸쳐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보스톤코리아를 비롯해 중국, 케냐, 브라질, 아일랜드, 엘살바도르 등의 언론사 관계자 총 20명이 참석했다.

jham@bostonkorea.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신경 치료 *보철 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www.gracesalonsboston.com
영업 시간 월요일~금요일:10시~7시
토요일: 9시~8시
예약을 하시면 기다리시지 않아도 됩니다.

각종 헤어 컷과 펌 그리고 스킨 케어
젊음과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곳!!

매직 스트레이트	Magic Straightening
브라질 케라틴 트리트먼트	Brazilian Keratin Treatment
Threading	Threading
디지털 펌 & 셋팅 펌	Digital Perm & Setting Perm
아이롱 펌	Iron Perm
헤어 칼라링	Coloring (GOLD WELL 사용)
헤어 메니큐어(코팅)	Hair Manicure
메니큐어 & 페디큐어	Manicure & Pedicure
왁싱	Waxing
얼굴 마사지	Facials
웨딩 서비스	Wedding Services

Grace Salon
프리미엄 토탈 헤어 살롱

그레이스 컷팅 클럽

617-623-2430

56 Union Sq. Somerville, MA 02143
한국종합식품 옆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흙을 사랑한 와그너의 여인 김남희

50세 넘어 쏟아낸 열정 고스란히 분청에 담아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다시 태어나면 도자기만 만들 거예요. 난 분청이 너무 좋거든요.”

하버드 한국학 연구소의 창시자 에드워드 와그너 교수의 부인으로 더 잘 알려진 김남희 도예가(92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생기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모습은 마치 한창 꿈에 부풀어 있는 소녀처럼 생명이 느껴졌다.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열정임을 삶의 끝에서 있는 노(老) 도예가에게서 새삼 확인했다.

오는 10월 3일 렉싱턴에 위치한 Lexington Arts & Craft Society에서 개인전을 여는 김남희 선생은 50대에 도예를 시작한 늦깎이 예술가다.

하버드 한국학 연구소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을 당시, MIT와 하버드 도예 스튜디오에서 도예를 배우기 시작했고, “기왕 도자기를 만드는 것, 한국의 분청을 만들어 보자”고 결심했다. 하지만 1970년대 이곳 보스톤에서는 분청을 사사할 스승이 없었다.

“관련된 서적들을 도서관에서 찾아봤지만, 한국 작가가 쓴 책은 전무했다. 일본어로 돼 있는 책은 많았지만 전부 분청의 아름다움을 논한 것이었다

”고 당시를 회상하는 김 선생은 “이에 답답함을 느껴 한국을 오가며 직접 분청 기법을 배워 왔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전통적인 기법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자유로운 세계를 구축해 입체적이고 대담한 작품들을 만들어 냈다. 전통적인 분청이 모란, 연꽃을 무늬로 넣는데 반해 김 선생은 들국화, 민화속 소재들을 분청에 담아내는 자유로움을 접목했다. 문양을 찍는 대신 직접 그리고 그 배경을 파내는 자유로운 기법을 접목했다.

“처음에는 옛 도공들의 소박하고 섬세한, 그러면서도 자연스러운 기법들이 좋아 답습하려 했지.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그들의 소박하고 꾸밈없는 그 시대 생활상이 그대로 투영된 것은 도저히 흉내조차 낼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 김 선생의 말이다.

김 선생은 분청의 재료인 흙 역시 한국의 것이 더 좋았지만 욕심을 낼 수가 없어 이곳의 흙으로 자신만의 독특함을 살려 나갔다.

“정말 좋아서 열렬하게 빠졌다”고 당시를 회상한 김 선생은 “작품을 빚고 있을 때는 ‘무아지경’이다. 새벽 4시까지 하버드 도예 스튜디오에서 작업하고 집에 와 다시 하버드 한국학

연구소로 출근하기도 했을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이번 전시회에는 이처럼 김 선생이 한창 열정을 쏟아 만들어낸 분청 100여 점이 소개된다. 한국의 전통적인 분청 기법에 김 선생 특유의 현대적인 기법이 접목된 작품들이다.

에드워드 와그너 교수와의 만남

김 선생은 일본에서 30년, 한국에서 9년, 그리고 보스톤에서 50여년을 살았다. 그중 한국에서 살았던 세월이 가장 짧고 가장 고단한 여정이었음에도 늘 고국을 가슴에 품고 있다. 신문기자였던 전 남편과 사별 후 어린 자녀와 시부모를 부양하느라 고달픈 삶을 살았지만, 지금껏 그곳에 둔 뿌리를 거두어 들이지 않았다.

1950년대 말, 생계를 책임지며 KBS에서 일본어 통역을 하던 중 한국을 방문한 에드워드 와그너 교수(하버드 한국학자)를 안내하게 됐고, 이후 그의 소개로 보스톤에 건너와 하버드 한국학 연구소에 적을 두게 됐다.

김 선생은 이후 와그너 교수와 재혼, 하버드 한국학 연구소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편, 와그너 교수의 한국 역사, 문화 연구를 돕는 데 많은 역할을 감당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아 결혼을 결심하게 됐다”는 게 김 선생의 말이다.



집 한쪽 리빙룸을 가득 채우고 있는 분청 작품들 사이에 행복한 얼굴로 앉아 있는 김남희 도예가. 92세의 나이에도 운전을 하고 다닌다

와그너 교수를 돕는 일은 늘 많았다. 하지만 퇴근 후에는 분청을 만들어 내는 일에 몰두했고, 그 시간에 평온함과 행복감을 얻었다.

하지만, 고단한 여정을 피해갈 수는 없는 운명이었을까, 와그너 교수가 알츠하이머 병을 앓게 되면서 김 선생은 작업을 놓게 됐다. “무아의 지경에 이를 정도로 집중해야 작품이 나오는데, 옆에 환자를 두고 그게 잘 안 됐다. 그래서 손을 놓게 됐다”는 것이 김 선생의 말이다. 그게 20여년 전. 그리고, 10여년간 남편을 돌봤다.

이제 김 선생은 이번 전시회가 끝나면 남편인 와그너 교수가 생전에 마무리하지 못했던 프로젝트를 대신 마무리하려 한다. 조선왕조 500년을 커버

하는 이 작업은 조선왕조 문과 급제자들의 배경을 혼인관계까지 다 찾아 모은 정보로, 컴퓨터용 한자문자와 로마자, 영문으로 디지털화 시키는 것이다.

“남편이 살아 생전에 완성하지 못한 것을 10년째 두고 있으려니 마음이 편치 않아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김 선생. “이제 남편의 일을 마무리하려면 다른 일은 할 새가 없다”며 못내 아쉬움을 표했다.

행사일정

일시: 2015년 10월 3일 토요일 - 10월 17일 토요일
장소: Lexington Arts & Crafts Society 130 Waltham St, Lexington, MA
문의: (781) 862-9696
bostonkorean@hotmail.com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SAT Plus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SAT Plus Fall Schedu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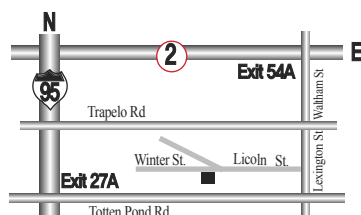
Starting Setember 12, 2015

Class	Time
PSAT / SAT Prep (New)	9:00 AM - 11:00 AM Saturday
SAT Prep (Old)	1:00 PM - 3:00 PM Saturday
PSAT /SAT Prep	3:30 PM - 5:30 PM Saturday

Individual Tutoring	2:00 PM - 10:00 PM Sunday - Thursday
---------------------	--------------------------------------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서부 매사추세츠 지역 순회영사업무 현황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주 보스톤 총영사관(엄성준 총영사) 주관으로 정기 순회영사업무가 지난 18일 금요일 오후 6시 서부 뉴잉글랜드 지역 앰허스트에 위치한 매사추세츠 앰허스트 대학교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뉴맨 센터에서 진행됐다.



주 보스톤 총영사관 주관으로 정기 순회영사업무가 지난 18일 매사추세츠 앰허스트 대학교 뉴맨 센터에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지역의 유학생들과 한인들의 편의를 위해 열린 것으로 이광석 영사와 김원광 씨가 영사업무와 상담을 맡아 이뤄졌다. 이날 순회영사업무로는 민원서류, 비자상담, 병역상담, 매사추세츠주 운전면허, 출생신고, 한

국어 교육 상담 등의 업무가 진행되었 대가 후원을 하였으며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었다. 이번 순회영사는 한미정치력신장원 bostonkorean@hotmail.com

아트위크 보스톤 무료 문화행사 이벤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아트위크 보스톤(Art Week Boston)이 오는 25일 금요일부터 10월 4일 일요일까지 무료로 즐길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한다. 가을을 맞아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음악회, 전시회, 페인팅, 패션, 댄스, 공공미술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이다.

에 건설되었으며 1849년부터 전시관람으로 시작해 현재까지 두 차례에 이어 개조되었다.



특별히, 오는 26일에는 비콘길가에 위치한 보스톤 아테네움 (Boston Athenaeum)의 건축 역사와 건물의 예술을 관람할 수 있다. 보스톤 아테네움은 과거 학자들이 공부해왔던 것들을 보존해온 문예 진흥기관 이다. 1807년

이어 가족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돌 페인팅 (Painting Stone)이 오는 26일 12시부터 6시 콜럼버스 애비뉴에 위치한 버클리 빈타운 (Berklee Beantown)에서 열린다. 넬슨 만델라를 기념해 돌에 페인팅과 함께 생각하는 메시지를 적어 현재 아프리카의 폭력행위를 줄일 수 있는 차원으로 시행되는 행사이다.

있는 이벤트들이 가지각각이다. 아트위크 보스톤의 자세한 일정은 (artweekboston.org/events)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아트위크 보스톤에서는 프루덴셜 야경, 찰스 강 워터페인팅의 참여 할 수

jham@bostonkorea.com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 보스톤 클래식 오케스트라와 베토벤 협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 씨가 오는 27일 일요일 오후 3시 페네일 홀 (Faneuil Hall)에서 보스톤 클래식 오케스트라와 베토벤 협연을 펼치게 된다.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씨가 오는 27일 페네일 홀에서 보스톤 클래식 오케스트라와 베토벤 협연을 펼치게 된다

양 씨는 지난 3월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열린 '제 54회 프레미오 파가니니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에서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인으로 '프레미오 파가니니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에서 1위를 차지한 건 양 씨가 처음이다.

양 씨는 이외에도 2014년 예후디 메뉴인 콩쿠르 (Yehudi Menuhin International Competition for Young Violinists) 2위, 2012년 독일 하노버 요아킴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Joachim International Violin Competition) 4위 등의 화려한 경력을 뽐냈다.

식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무대는 보스톤 클래식 오케스트라의 디렉터 스티븐 립시 (Steven Lipsitt)과 함께 '올 베토벤 (All Beethoven)' 이라는 프로그램으로 2015-2016시즌을 장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씨의 연주는 오는 27일 일요일 오후 3시 페네일 홀 (Faneuil Hall)에서 열린다. 티켓 문의는 보스톤 클래식 오케스트라 웹사이트 (www.boston-classicalorchestra.org) 혹은 전화 (866-811-4111)로 하면 된다. jham@bostonkorea.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617.871.1482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www.yasuboston.com



야수 레스토랑

자녀를 위해 요리하는 엄마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야수는 작은 나물에서부터 요리 하나하나까지 자녀들을 기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만듭니다. 직접 만들어 손맛이 들어있는 야수의 음식 - 맛과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야수를 찾아주세요.

YASU RESTAURANT
Telephone 617.738.2244
1366 Beacon Street, Brookline, MA 02446

단체예약
주문음식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개교 41주년 시작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개학식 성황리에 개최
한가위 관련 행사를 각 과정별로 가질 계획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지난 19일 토요일 뉴튼 소재의 뉴잉글랜드 한국학교(교장 남일)가 개학식을 가지며 새 학기의 출발을 알렸다.
개학식은 지난 14회 KSNE 동요대회 대상 이해린, 최재민, 최재윤 학생의 애국가에 이어 미국국가 선창으로 시작되어 남일 교장의 환영사, 각 과정의 담임 및 교사 소개로 이어졌다.
환영사에 이어 윤경숙 이사장이

“새 학년을 시작하면서 선생님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모두 함께 즐겁고 재미있는 학교 생활을 하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이어 학부모회 이현주 회장은 “매년 2세대의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께 감사 드린다” 며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에 봉사하고 있는 학부모회의 활동을 소개했다.
개학식 마지막 순서로 전교생과 교사들은 황규라 교사의 ‘우리가

지켜야 할 10가지 수칙’ 선창에 맞춘 선서로 2015학년도 가을학기 개학식을 마무리했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의 다음 행사는 오는 26일 고국의 한가위 명절에 따른 관련 행사를 각 과정별로 가질 계획이다. 이어 오는 10월 31일에는 2015학년도 연례 학부모 초청 공개수업 행사(1차)가 개최된다.
입학 및 교사 모집(한글교육 및 문화교육) 문의는 남일 교장(508-523-5389, ksneusa@verizon.net) 혹은 학교 홈페이지(www.koreanschool-ne.org, www.ksn- usa.org)를 통해 연락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지난 19일 뉴잉글랜드 한국학교가 개학식을 가지며 새 학기의 출발을 알렸다

NE 연세대 동문회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연세대학교 동문회(회장 김준구, 경영 86)가 지난 13일 일요일 브루클라인에 위치한 한국식당에서 동문회를 가졌다.

김준구 회장은 “날씨로 인해 예정했던 야외회를 취소하고 실내모임으로 변경을 해서 걱정했지만 예상과 달리 많은 동문들이 참여해줬다” 고 밝혔다.

이번 모임에는 뉴잉글랜드에 거주하는 70년대 학번부터 90년대 학번 외 많은 동문들이 참여했다. 주혜원(의류 99)씨는 “많은 선배들을 만나서 정말 반갑고, 앞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든든하다” 는 소감을 밝혔다. 특히 이번 모임에는 80년대 학번들 중에서도 83학번들이 많이 참여했다. 이에 대해 김진기(전기 72)씨는 “80년대 학번 동문들이 어느 정도 터를 잡어 동문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모양이다” 며 “이번 모임은 말 그대로 83학번의 귀환이라고 부를 만하다” 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앞으로 더 많은 90년대, 2000년대 학번 동문들도 참여하기를 바란다” 고 덧붙였다.

연세대학교 뉴잉글랜드 동문회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연세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 입학/졸업생이면 누구나 일원이 될 수 있다. 동문회 가입에 대한 문의는 이제구 총무(경영 89)에게 (jlee3@stonehill.edu/508-565-1222) 할 수 있다. 연세대 동문회의 다음 모임은 12월 초로 준비 중이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영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세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유다인 Dain Yoo
함요한 John Ham
한태정 Taijung Han

Graphic Designer
정현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현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백린 Rin Paik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괵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오승준 Albert Oh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 TV 사업국
617-955-9459

재류업체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얼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0시~ 밤10시까지 입니다.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보스톤이 처음인 사람들이 알아두면 좋은 6가지

▶▶1면에 이어서

팔 부과한다. 한국식에 익숙한 이 학생이 서비스마다 요금이 따로 부과되는 미국식 의료비용 청구를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은 당연하다. 병원은 의사 진료비, 각종 병원 소속 실험실 등에 대해서는 일괄 청구하지만 응급차 비용, 외부 실험실 비용 등은 독립적으로 청구된다. 병원에 한 번 갔다 오면 3-4곳의 비용이 날라오는 것이 예사다.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사정을 알고 미리 대비하면 병원은 그렇게 먼 곳에 있지 않다

보스톤에는 수많은 세계 정상 의료가관이 즐비하며 실제로 이용 가능하다. 아픈 것이 우선이다. 아프면 병원을 찾고 나머지 일들은 차츰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일단 아픈 경우 응급실을 찾아야 한다. 언어소통이 어려우면 언제든지 통역을 요청하면 된다. 응급실 비용은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비용부담이 되므로 적어도 응급실 정도는 마음 놓고 찾을 수 있는 안전장치는 미리 찾아 두어야 한다. 또한 현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어떤 커버리지가 있는지 응급실, 구급차 비용 등은 커버되는지 미리 살펴두어야 한다.

안전장치를 위해서는 다음의 생소한 보험 용어에 익숙해져야 한다. 알고 나면 앞으로 미국 생활에서 귀가 아프도록 듣게 될 것이다. 이들은 사회 안전망 보험들로 가입해두면 정말 유용하다. 다만 선택적 복지를 표방하고 있는 미국의 특성상 반드시 일정소득 이하여야 한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안전망들은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유학

2015 연방 빈곤선 가이드 라인 (2015 POVERTY GUIDELINES)

FAMILY SIZE	PERCENT OF POVERTY GUIDELINE											
	100%	120%	133%	150%	160%	140%	145%	155%	175%	185%	200%	250%
1	11,770.00	14,124.00	15,654.10	15,559.50	15,473.00	17,266.50	17,555.00	20,597.50	21,774.50	23,540.00	29,425.00	
2	15,930.00	19,116.00	21,186.00	21,531.50	21,503.00	23,566.50	23,866.00	27,877.00	29,271.00	31,460.00	39,826.00	
3	20,090.00	24,108.00	26,719.70	27,121.50	27,129.00	29,130.50	29,135.50	34,197.50	35,199.00	37,199.00	46,229.00	
4	24,250.00	29,100.00	32,252.50	32,737.50	32,900.00	35,162.50	35,162.50	42,437.50	43,437.50	45,437.50	56,025.00	
5	28,410.00	34,092.00	37,785.50	38,353.50	38,574.00	41,194.50	41,194.50	49,616.00	50,616.00	52,616.00	64,205.00	
6	32,570.00	39,094.00	43,318.10	43,989.50	44,269.00	47,228.50	47,228.50	56,997.00	57,997.00	59,997.00	72,825.00	
7	36,730.00	44,076.00	48,891.50	49,635.50	49,972.00	53,256.50	53,256.50	64,277.00	65,277.00	67,277.00	81,825.00	
8	40,890.00	49,068.00	54,243.10	55,059.50	55,454.00	59,260.50	59,260.50	71,667.00	72,667.00	74,667.00	90,225.00	

For family units of more than 8 members, add \$4,100 for each additional member.

생, 직장인, 그리고 한인 자영업자 등을 위한 것이다.

● 응급실 비용 커버하는 보험

1. 매스헬스 리미티드(MassHealth Limited): 매스헬스 리미티드(MassHealth Limited)는 응급실 이용시 적용되는 대표적 보험이다. 일반적으로 합법적인 비자이지만 오바마 케어를 받을 수 없는 비자 소유자들에게 적용된다. 단 가계소득(household income)이 일정선 이하여야 한다. 소득이 없는 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매스헬스 리미티드 적용 대상자다. 아픈 학생들 또는 저소득층 이라면 결코 병원 찾기를 망설이지 말라는 말이다. 또한 매스헬스 리미티드의 보험 적용(Coverage)은 신청서를 제출하기 10일 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아프면 병원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신



청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응급실을 가면 등록(registry)처에서 등록을 하면서 보험 여부 등을 묻는다. 이곳에서 매스헬스 리미티드 신청을 하도록 한다. 주의할 점은 방문 및 관광비자 소유자들의 경우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혜택 대상자들을 세분해보자. ▶임신한 여성과 1세 이하의 유아는 가계소득이 연방 빈곤선 200%이하. ▶1세-18세의 자녀들로 가계 소득이 연방 빈곤선 150%이하일 경우 19-20세의 청소년도 연방빈곤선 150% 이하일 경우. ▶21세 이상의 성인 연방빈곤선 133% 이하일 경우 매스헬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표 참조 2015년 3월 1일 기준 연방 빈곤선).

매스헬스 리미티드는 응급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보험이다.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못한 한인들은 응급 치료 이외의 진료를 받기 원한다면 반드시 프리케어(Freecare, HSN)에도 가입해야 한다.

2.HSN(Health Safety Net) 프리케어 또는 언컴펜세이티드 풀이라고도 불리는 HSN은 소득이 연방빈곤선 400%

이하의 매사추세츠 주 거주 무보험자 또는 보험이있어도 보험 적용이 적게 되는 보험가입자(underinsured)들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선택적 복지를 지향하는 미국에서 소득은 의료복지 수혜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잣대다. HSN도 가계소득이 연방빈곤선 200%이하일 경우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Deductibles)이 없지만 소득이 200-400%인 한인들은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Deductibles)만큼은 본인이 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본인부담금이외의 금액은 HSN에서 부담한다. 일반적으로 HSN이 커버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그 금액의 지불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부담금으로 간주된다. 그렇지만 병원에서 권장한 서비스였다 하더라도 개인 의사, 개인 실험실 또는 엑스레이 요금 등은 본인부담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의료서비스가 본인부담금(deductible)으로 간주되는지 물어야 한다.

HSN은 매스헬스 스탠다드에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와 거의 유사하다. 하지만 일부 제한이 있으므로 반드시 병원에 HSN으로 서비스 비용이 커버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부 서비스의

경우 본인부담금((deductible)과 진료별 본인부담금(copay)을 내야 한다.

HSN으로 커버되지 않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병원이 고용하지 않은 의사 비용 ▶앰블런스 서비스(매스헬스 리미티드가 있는 경우 앰블런스로도 커버된다. 프리케어만 있는 경우에는 앰블런스를 이용하지 않고 응급실로 가야한다) ▶주내병원부속이 아닌 일반 실험실 비용 ▶주내 병원 소속이 아닌 엑스레이 비용 ▶의료장비.

3.CMSP(Children's Medical Security Plan) 19세 이하의 저소득 어린이들을 커버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은 소득이 크기에 상관없이 가입 가능하지만 연방빈곤선 200%이상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Premium)를 납부해야 한다.

대기자 명단 등록- CMSP는 등록제한이 있다. 따라서 일정한도에 다르면 대기자 명단(waiting list)에 오르게 된다. 다르게 말하면 이 경우에는 매스헬스 리미티드를 이용해 응급실을 가는 것 외에 일반적인 예방 진료를 위해 의사 방문이 어렵다는 이야기다. 등록 제한이 풀려야 CMSP 가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자녀 의료보험이 없는 경우 부모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CMSP 가입이다. 유학생 보험이 있더라도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CMSP의 가입을 서두르는 게 좋다.

CMSP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커버한다. ▶일반적 소아과 의사진료 ▶정신과 및 약물 진료 ▶소아탈장 및 귀

▶▶7면으로 계속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sboston.net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보스톤이 처음인 사람들이 알아두면 좋은 6가지

▶▶ 6면에 이어서

수술 및 마취 ▶ 연간 \$200 처방약전 ▶ 시력 및 청력 검사 ▶ 연간 내구성 의료장비 \$200까지, 애스마 당뇨 관련 의료장비는 연간 \$300까지 ▶ 치료와 치료연간 \$750까지

일부 CMSP가 적용되지 않는 진료의 경우 가계소득이 연방 빈곤선 400% 이하 소득 자녀들에게는 HSN(Health Safety Net)이 적용된다. 소득 200-400%사이인 경우 본인부담금(디덕터블)을 내야 할 수도 있다.

이 보험은 등록제한이 있으므로 보험적용이 신청한 날짜가 아닌 매스헬스 측에서 최종 수혜 확정과 더불어 시작된다. 따라서 CMSP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HSN이나 매스헬스 리미티드를 통해 보험을 적용 받아야 한다.

● 리미티드, HSN, CMSP 신청하기

매스헬스 리미티드, HSN, CMSP 이 세가지 보험은 저소득, 오바마케어 수혜 대상이 되지 않는 비자 소유자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 보험이다. 모두 매스헬스 당국이 수혜 자격심사를 담당한다.

가장 빠르고 쉬운 신청방법은 MA-healthconnector.org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시작하기(Start Your Application)를 클릭해서 작성하면 된다. 또는 웹사이트에서 오바마케어는 아직 신청기간이 아니므로 하단부 매스헬스 신청하기를 통해서 신청해야 한다.

다른 한가지 방법은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다. 신청서를 작성한 후 아래의 주소로 우송하거나 팩스한다. 팩스는 반드시 팩스 커버를 사용해 보내야 한다. 팩스 커버에서는 보험 신청 종류에서 첫번째인 보조(Subsidised)를 체크칸에 표시해야 한다.

Health Insurance Processing Center
P.O. Box 4405
Taunton, MA 02780
팩스 857-323-8300

● 매스헬스관련 주요 전화번호

매스헬스 보험과 관련 가장 필요한 것은 부지런함과 인내다. 부지런히 신청서와 관련한 진행상황을 문의해야 빠르고 정확하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한가지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부딪치는 것은 매스헬스 상담요원과 통화의 어려움이다. 늘 전화를 걸어 상담시간 기다리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 상담요원들도 때로는 제대로 일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자주 전화해 점검해야 한다.

매스헬스 등록센터(MassHealth Enrollment Center) 1-888-665-9993
매스헬스 고객서비스센터(MassHealth Customer Service Center) 1-800-841-2900

CMSP(Children's Medical Security Plan) 1-800-909-2677

헬시 스타트(Healthy Start Program) 1-888-488-9161

매스헬스 자격 재심 항소(Board of Hearings) 1-800-655-0338, 617-847-1200, 617-8471204 (fax)

매스헬스 덴탈(MassHealth Dental Customer Service Center) 1-800-207-5019

(TTY: 1-800-466-7566 for people who are deaf, hard of hearing, or speech disabled)

CMSP가족 보조(Family Assistance Unit) 1-888-291-4464

● 임신 출산 관련 보험

매사추세츠 주에서 아이 출산을 계획하고 있다면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 먼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보험의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점검해야 한다. 출산은 크게 산모와 태아를 위한 병원 진

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주정부의 매스헬스에서 제공하는 헬시스타트와 매스헬스 리미티드는 임신 출산관련 보험이다. 이 보험들은 일정소득 이하의 매사추세츠 거주자에게 안정적인 출산 보험을 제공키 위해 만들어졌다. 헬시스타트는 임신 관련한 병원 진료비를 전액 커버한다. 단 가계 소득이 (태아까지 포함) 연방 빈곤선 200%(3인 가족 연 \$40,180)이하여야 한다. 매스헬스 리미티드는 응급실 및 분만, 수술 비용 등을 보장한다. 위에서 밝힌 응급실 보험과 동일하게 신청하며 산모 정보 기입시 임신을 선택하면 헬시 스타트와 매스헬스 리미티드에

인 경우 이 보험을 신청을 권유한다.

● 학생 보험

미국 내 모든 유학생은 의료보험 가입이 의무다. 유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면 자동으로 의료보험 가입이 되고 등록금에 학생 의료보험료(1년에 약 2천불, 가을학기엔 모두 납부)가 포함되어 있다. 학생 의료보험은 일반보험에 비해 저렴하면서도 많은 혜택을 보장한다.

매사추세츠내 학교 대부분에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보험회사는 애트나(Aetna)와 블루크로스 블루 월드(BCBS)다. 이 두 보험사들은 대다수 병원에서 인정하는 보험이며 보험회사 웹사이트(www.aetnastudenthealth.com)에 접속하면 학교별로 보험 적용범위가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다.

학생 의료보험은 질병, 사고, 상해가 모두 해당되며 안과, 치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진료 및 검사, 응급, 수술, 물리치료, 정신과, 임신*출산*피임을 포함한 산부인과까지 해당된다. 항목별로 다르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80%~100% 의료비를 보상한다. 병원 방문시 소액의 진료별 본인부담금(copay)은 발생할 수 있다. 약을 구입해야 할 때는 처방전을 가지고 CVS 혹은 Walgreen을 찾아가면 된다. 보험이 적용돼 약값도 훨씬 저렴해진다.

응급상황을 대비해 보험회사 웹사이트에서 의료보험카드 발급 신청을 해 본인 아이디 카드와 함께 지니는 것을 권장한다.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시

▶▶ 8면으로 계속



료, 출산, 그리고 출산후 산모와 아기 진료 등의 부분으로 나뉜다.

산모의 병원 진료에 있어서 초음파, 혈액검사(최근에는 혈액검사로 태아의 성별 파악이 조기에 가능하다), 의사진료 등에 보험이 모두 적용되는지 미리 알아두면 편리하다. 또한 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비용도 보험이 모두 적용되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만약 현재 보유한 보험이 일부 필수 진료 서비스에 적용이 안되는 경우 다른 방법

동시 가입된다.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가 매스헬스 등록센터에 접수된지 10일 이전부터 보험혜택이 시작된다. 접수된 후 60일 이내에 등록센터는 혜택 가능여부를 통지한다. 이에 따라 임신이 확인된 부부는 서류를 신청한 후 자신이 원하는 병원(모든 병원 이용가능)을 정해 진료를 예약하면 된다.

학생보험으로 임신 출산 보험이 전액 보장되지 않는 경우 또는 무보험자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사고 상해
파산 보호
비즈니스/리스

IRS/DOR/UI
신용카드 채무조정
이민법

전화: (781)712-1706 CHANG & ASSOCIATES, P.C.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행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1,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보스톤이 처음인 사람들이 알아두면 좋은 6 가지

▶▶ 7면에 이어서

, 목격자가 의료보험카드를 보고 보험 회사에 연락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학교내 의료 서비스

거의 모든 학교에 메디컬 혹은 헬스 서비스가 있다. 간단한 초기진료 및 상담은 물론, 피부, 알레르기 등도 검사하고 치료해준다. 전화나 방문,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다. 의료 서비스 비용은 이미 등록금에 포함되어 납부했기 때문에 약값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부과되지 않는다. 간단한 진료가 가능하니 몸에 미비한 이상이 있을 때라도 찾아가면 된다. 의료 서비스 센터에서 해결할 수 없을 경우 증상에 따라 병원으로 안내한다.

2. 학생의료보험 면제 및 유학생 보험

-매년 가을학기 초에 학교보험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의료보험료가 자동으로 포함된 등록금을 먼저 납부하고 면제 승인을 받으면 환불해준다. 본인이 가입된 보험 증빙서류를 제출해 승인이 되면 1년간 유효하다. 한국보험 회사에서 제공하는 유학생 보험이든, 여행자 보험이든 학교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으면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생보험 적용 범위가 넓고 면제 조건이 까다로우승인이 쉽지 않고 설령 면제를 받는다 하더라도 병원 방문시 한국 보험회사와 미국 병원 사이에서 본인이 거쳐야 할 진료 및 납부 절차가 비교적 복잡하다.

보스톤대학교(Boston University)와 보스톤 컬리지(Boston College)의 유학생은 학교 의료보험에 의무적으

Best Hospitals in Boston, Mass.

#1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5Tie Steward St. Elizabeth's Medical Center
#2 Brigham and Women's Hospital	#10Tie Boston Medical Center
#3 Beth Israel Deaconess Medical Center	#10Tie Exeter Hospital
#4 Cape Cod Hospital	#10Tie Lowell General Hospital
#5Tie Beverly Hospital	#10Tie MetroWest Medical Center
#5Tie Lahey Hospital and Medical Center	#10Tie Newton-Wellesley Hospital
#5Tie North Shore Medical Center	#15 Tufts Medical Center
#5Tie South Shore Hospital	

로 가입해야 한다. MIT와 버클리 음대 등은 미국 외 타국의 보험회사 보험은 승인하지 않으며 학교 보험과 비슷한 커버리지를 제공하는 미국내 보험회사에 가입돼 있어야만 학교 보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유매스 보스톤(Umass Boston)과 하버드 대학교는 미국*타국 관계없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면제 조건을 충족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학교 학생의료보험을 면제한다.

3. 어학연수생 의료보험- 어학연수생

은 일반 대학, 대학원, 박사 과정 학생보다 의료보험에 관한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 어학연수 기간 동안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만 있으면 된다. 한국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여행자보험, 유학생 보험도 가능하며 적용범위에 관한 요구조건은 따로 없다. 대신 병원을 찾을 시 소지

한 한국 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비싼 병원비를 부담해야할 수도 있다.

● 오 바 마 케 어 (Affordable Healthcare)

미미국내에서 최초로 전 주민 의료보험이 실시했던 매사추세츠의 무보험율은 3%다. 과거 가장 낮았던 2%에 비해 늘었다. 여전히 일부 한인들에게는 병원이 가깝지 않다는 증거다. 모든 병원은 무보험자를 돕는 부서를 만들어 놓고 있다. 병원 등록시 이를 문의하면 된다. 일레로 매스제너럴(Mass General Hospital)은 무보험자들을 위해 환자재정서비스(Patient Financial Services) 부서를 두고 상담원을 제공한다. 이들 상담원은 매스헬스 리미티드(MassHealth Limited), 프리케어 등 주정부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직장을 통해 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을 제외하고 오바마 케어에 가입한 한인들은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진행되는 등록기간에 다시 보험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MAhealthconnector.org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신청서를 다운 받아 서류로 할 수 있다.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신청시 자신이 직접 1차 진료의(Primary Care Doctor)를 선정하거나 아니면 해당 의료보험사에서 지정하는 1차 진료의를 통해 예방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일단 기존의 1차 진료의가 아닌 새로운 진료의를 선택하려면 그 의사가 현재 신규환자를 접수하는지 알아야 한다. 의사는 얼마든지 해당 병원 웹사이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이왕이면 좋은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서비스를 받을 확률을 높인다. 상단의 표는 유에스 뉴스가 선정한 매사추세츠 주의 최고 병원들이다.

● 병원가기

보험이 없다고 해서 병원가기를 꺼려해서는 안된다. 모든 병원은 무보험자를 돕는 부서를 만들어 놓고 있다. 병원 등록시 이를 문의하면 된다. 일레로 매스제너럴(Mass General Hospital)은 무보험자들을 위해 환자재정서비스(Patient Financial Services) 부서를 두고 상담원을 제공한다. 이들 상담원은 매스헬스 리미티드(MassHealth Limited), 프리케어 등 주정부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도록 도

와준다.

매스헬스 리미티드(MassHealth Limited)는 응급시 무보험환자에게 제공된다. 일정 소득(1인가족, \$32,677, 4인가족 \$67,000)이하여야 이 보험의 제공을 받게 된다. 이 보험의 맹점은 응급상황이 아니더라도 응급실을 찾아야 한다는 것. 따라서 응급실에는 늘 환자자가 복잡하다. 응급실에 가서도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여기서 발생한다.

● 응급실

응급실은 위급할 때 가는 곳이지만 사실상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물론 생명을 다루는 환자들은 기다리지 않지만 아주 위중하지 않는 환자들은 순서를 기다려 치료를 받는다. 병원마다 조금씩 시스템이 다르겠지만 응급실을 찾으면 가장 먼저 접수처에서 기본적인 정보를 이야기한다. 이후 대기실에서 대기한 후 간호사가 기본적인 상황을 체크업한다. 이후 다시 대기실에서 기다리다 응급실에 설치된 병실로 안내된다. 때론 병실이 없어 복도에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병실에 안내 되었다 하더라도 간호사가 와서 기본 신체정보 및 아픈 곳에 대해 물어보고 다시 응급실 담당 의사를 기다려 의사를 만나기까지 상당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응급실 방문을 결심한 경우 적어도 5-6시간의 시간소요는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응급실 상황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hsb@bostonkorea.com

오바스시
광어회
우럭회
TO GO
617 202
3808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온라인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惠民 Park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617-787-0789 www.acupark.com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가을 품은 뉴잉글랜드를 즐길 수 있는 단풍 가이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태정 기자 = 어느새 9월도 중순을 훌쩍 넘어섰다. 여름을 보내기 아쉬운 마음에 가을이 성큼 다가와 있었음을 잠시 잊었던 것 같다. 뉴잉글랜드의 가을은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길고 지루한 겨울을 맞이하기 전, 따스한 햇살을 최대한 즐겨야 하는 시기인 동시에 바로 아름다운 단풍을 볼 수 있는 계절이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도 아름답기로 유명한 뉴잉글랜드의 단풍, 가을이 다가가기 전 서두르자. 일단, 단풍 구경을 가기로 마음 먹었다면, 언제, 어디를 가야 할지를 정해야 한다. 단풍이 절정인 시기가 각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양키 폴리아지(Yankee Foliage) (<http://www.yankee-foliage.com/peak-foliage-forecast-map/>)나 매사추세츠주의 단풍 트래커, 인스타폴리아지(<http://www.massvacation.com/fall/>) 등 언제, 어느 지역의 단풍이 절정인지 예상해 볼 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으니 여행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체크해 두자. 또한 현재의 단풍 상태는 어떤지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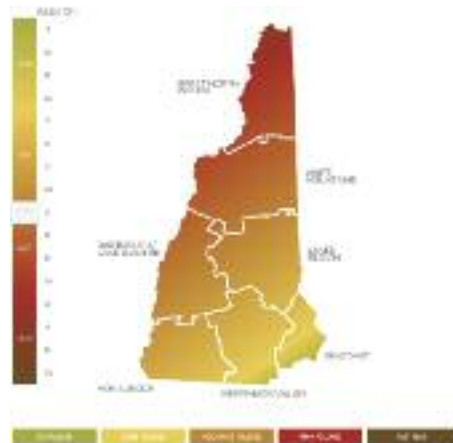
지역별 단풍 가이드

뉴잉글랜드의 여섯 스테이트 중 보스톤이 위치한 매사추세츠를 비롯하여 버몬트, 뉴햄프셔, 코네티컷이 특히 단풍으로 유명하다. 캐나다 국경과 맞닿아 있는 버몬트, 뉴햄프셔 북부가 9월 20일경부터 단풍으로 물들기 시작하면서 10월 중순

경에는 매사추세츠, 코네티컷까지 단풍이 절정에 이른다.

〈버몬트〉

전원적인 풍경이 아름다운 버몬트. 끝없이 이어지는 나즈막한 언덕과 함께 단풍이 어우러져 탄성을 자아낸다. 버몬트의 단풍 코스로 가장 추천하는 곳은 바로 루트100(VT 100). 윌밍턴(Wilmington)에서 시작해 킬링턴 마운틴(Killington Mountain)을 거쳐 스토우(Stowe)에 이르는 고속도로로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로 항상 꼽히는 곳이기도 하다. 버몬트의 유명한 스키장들이 이 고속도로를 따라 위치해 있어 '스키 매니아들의 고속도로' 라고도 불린다.



뉴햄프셔 단풍 표시 지도. New Hampshire foliage로 검색해 찾아볼 수 있다

〈뉴햄프셔〉

화이트 마운틴 일대가 단풍으로 장관을 이루는데, 필수 드라이브 코스로 꼽히는 캔가매거스 하이웨이(Kancamagus Highway)는 뉴잉글랜드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단풍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또한 뉴잉글랜드 최고봉인 해발 6,288 피트의 마운트 워싱턴(Mount Washington) 정상까지 오를 수 있는 기차(www.thecog.com)도 추천한다. 우리에게 몇 년 전 대한항공의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광고에서 한효주가 탔던 기차로도 알려져 있다. 콘웨이 시닉 레일로드(Conway Scenic Railroad) 또한 1920년대의 빈티지한 열차에서 단풍을 구경할 수 있어 인기다. 벨리 열차(Valley Train)로는 11마일로 왕복 55분이 걸리는 콘웨이 열차(Conway Excursion)와 21마일로 1시간 45분이 걸리는 바틀렛 열차(Bartlett Excursion)가 있다. 크로우포드 노치(Crawford Notch) 일대를 가로질러 달리는 노치 열차(Notch Train)를 타면 한 폭의 그림과 같은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일등석 티켓을 구입하면 3코스 식사도 제공된다.

〈매사추세츠〉

모hawk 트레일(Mohawk Trail)이라고도 불리는 노스 아담스(North Adams)의 동쪽 길 루트 2(MA 2)는 코네티컷과 허드슨 계곡 사이를 지나기 위해 오래 전부터 사용돼 왔던 길로 장관을 이

룬다. 또한 Jacob's Ladder Trail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루트20(MA 20) 또한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 중 하나로 웨스트필드(Westfield)에서 러셀(Russell), 헌팅턴(Huntington), 체스터(Chester), 웨스트 벡켓(West Becket), 리(Lee)까지 이어지는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이다.



〈코네티컷〉

다른 주와 비교해 남쪽에 위치해 있어 10월 중순이 지나도 단풍을 즐길 수 있다. 2010년, 버몬트나 뉴햄프셔 타운들을 제치고 양키 매거진(Yankee Magazine)에서 뽑은 뉴잉글랜드 단풍이 아름다운 타운 1위로 선정된 켄트(Kent)가 위치한 리치필드 힐(Litchfield Hills) 지역은 아름다운 풍경뿐만 아니라, 애플 피킹이나 파머스 마켓 등으로도 유명하다.

htj@bostonkorea.com

Grace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은혜한의원에서

회복을 도와드립니다.

- 요통, 어깨 결림 등 각종 통증질환
- 두통, 현훈(어지러움), 메니에르 증후군
- 미로, 귀에, 불면증, 각종 스트레스 장애
- 만성, 알러지성 비염, 축농증
- 소화장애, 변비, 과민성 대장증후군
- 불임, 각종 여성질환, 비뇨기 장애
- 갑상선 증후군 등 인체역학 이상
- 기타 서양의학으로 치료되지 않는 기능성 장애

781.862.1842

www.graceaom.com

442 Ma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01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우리는 봉사한다"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음답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김동원치과

DongWon Kim DMD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GB Family Physical Therapy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매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Educational Consulting Department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Academic Tutoring Department

SAT, SSAT, TOEFL, Writing 전문 학원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Math, Essay Writing, Physics, Chemistry, Biology, History, Spanish, French, Latin, TOEFL, SSAT, ISEE SAT, ACT

\$70-100/hr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집중반	7월6일-8월 20일, 월, 수,	10 AM-1PM	\$1250	실전 테스트 5회
개인 지도	학생이 지정		\$60-\$80 여름 특별가	전 과목

단 주 1회 실전 테스트 일은 10 AM-1:30 PM, 최소 인원 3명

여름 방학 특강 (서울)

개인지도 혹은 4인 이하 소 그룹: 문의 02-579-9731

지도과목: SAT, ACT, AP US History, AP English, SSAT, TOEFL, Reading/Writing

기숙학교 연중 프로그램(안전한 홈스테이, 항공, 교통편 제공)

Program	기 간	그 룹 지 도	개 인 지 도	제공서비스
추수 감사절	11월 중순-말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성탄 휴가	12월 중순-말	SAT, SSAT,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봄방학	3월중 3주간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이 프로그램 들은 2001년 부터 6년 째 제공되고 있는 정평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학부모가 이 기간 중 한국에서 오시는 경우 편안한 장기 투숙 안내 제공.

- 주말 교통편, 홈 스테이, 학업 지도, 봉사 활동 제공 - 학생이 필요한 과목별 개인 지도, 유학생을 위한 집중 영어 쓰기 지도 제공
- 한 학교에서 3명 이상이 같은 프로그램으로 오는 경우 할인 혜택
- SAT는 CR과 Writing점수목표가 650-750사이인 학생을 목표로 함. SSAT는 80-99%를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한 클래스임.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402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대학 주최, 무료로 즐기는 강연 및 콘서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태정 기자 = 최고의 대학에서 주최하는 세미나부터 역사 깊은 콘서트홀에서의 공연까지, 모두 무료로 즐길 수 있다는 점은 배움의 도시 보스톤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혜택이 아닐까 싶다. 가을과 동시에 분주해진 캠퍼스에서 가볼만한 이벤트를 정리해 보았다.

뉴잉글랜드 컨서버토리 (New England Conservatory) 무료 콘서트
보스톤 시내에 위치한 뉴잉글랜드 컨서버토리는 1867년에 설립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독립 음악대학이다. 음악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은 물론 하버드, 팀스 대학과의 5년 연계 공동 학위 등 다양한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학기 시작과 동시에 학생들의 리사이틀을 일반인에게도 무료로 개방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놓치기 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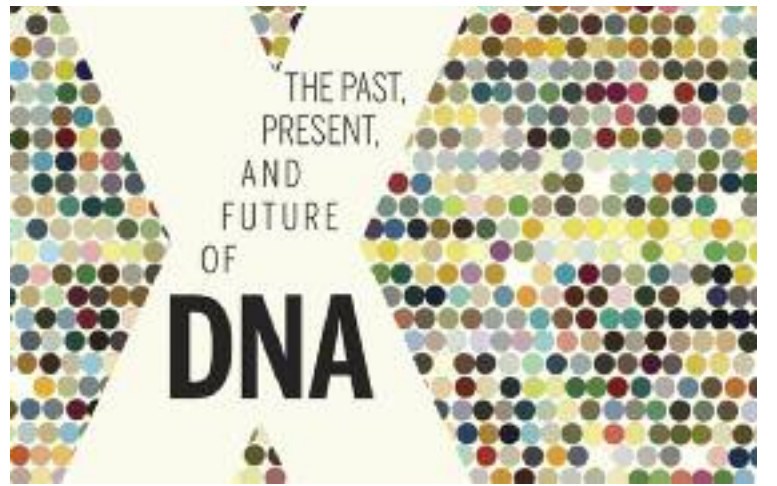
운 무대는 조던 홀(Jordan Hall)에서의 공연들이다. 조던 홀은 뉴잉글랜드 컨서버토리의 메인 콘서트장으로 1994년 학교와 함께 내셔널 히스토리 랜드마크(National Historic Landmark)로 지정되기도 했다. 1903년 처음 문을 연 이래로 매년 수백 회의 공연이 열리고 있는 곳으로 특히 매월 첫 번째 월요일에는 명성 있는 챔버 뮤지션들이 참여하는 무대가 열린다. 다가오는 10월 5일 월요일에는 바하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4번' (Bach: Brandenburg Concerto no 4)을 비롯하여 브람스의 '사랑의 노래, 왈츠' (Brahms: Liebeslieder Waltzes, Op. 52), 그리고 시베리우스의 현악 4중주 '친애하는 음성' (Sibelius: String Quartet 'Voces intimae')이 연주될 예정이다. 공연은 저녁 7시 30분부터 시작이며, 무료

인 관계로 티켓은 필요하지 않다. 단, 지정 좌석제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좌석을 위해서는 조금 서두를 것을 권한다. 입장은 공연 시작 30분 전부터 가능하다. 이 외 다른 공연 일정은 http://necmusic.edu/calendar_event에서 검색해 볼 수 있다. 거의 매일 공연이 있으며 대부분이 무료이므로, 여유가 된다면 올해가 가기 전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에 취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하버드의 무료 강연(Lecture)

하버드 대학에서는 경영학, 사회학, 정치학을 비롯하여 인류학까지 각 분야와 관련한 다양한 강연들을 무료로 일반인들에게도 개방하고 있다. 날짜별 무료 강좌는 <http://news.harvard.edu/gazette/harvard-events/events-calendar/>에서 검색어를 'Open to the public'으로 설정하여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9월 30일에는 가축 보호 단체 샌츠퍼머리 농장(Farm Sanctuary)의 설립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진 바우어(Gene Baur)의 강연회가 하버드 로스쿨 파운드 홀 (pound hall, room 102)에서 낮 12시부터 1시간 동안 열릴 예정이다. 축산업계에서 학대 받는 동물을 위해 개인이 할 수 있



하버드 무료 심포지움 'DNA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포스터

는 일이나 바른 먹거리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듯 하다. 10월 2일 금요일에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DNA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의 심포지움이 열리며 일반인들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단, 미리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세한 일정 확인 및 등록은 <https://www.radcliffe.harvard.edu/event/2015-past-present-future-dna-symposium>에서 가능하다.

또한, 하버드-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 센터 (Harvard-Smithsonian Center for Astrophysics)에서는 6,7,8월을 제외한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천체관측의 밤' 행사를 갖고 일반인들을 위한 무료 천문학 강연을 열고 있다. 천문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쉽게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진행되며, 옥상의

망원경을 통해 직접 관측도 하게 된다. 특히, 이번 주 일요일인 9월 27일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개기 월식 관측 (Total Lunar Eclipse Viewing)이 있을 예정이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2018년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하니, 기회가 되면 아이들과 함께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듯하다. 모든 강연은 캠브리지에 소재한 필립스 오디토리움 (Phillips Auditorium)에서, 관측은 동 건물 옥상에서 이루어지며, 주소는 60 Garden Street, Cambridge이다. 주차장은 행사가 있는 날에 한해 무료로 개방된다. 특히 개기 월식 관측은 날씨에 의해 취소될 수 있으므로 617-495-7461로 미리 연락해 보고 가는 것이 좋다. 좀 더 자세한 정보는 <https://www.cfa.harvard.edu/publicevents>를 참고하자.

htj@bostonkorea.com



뉴잉글랜드 컨서베토 조던 홀의 모습

올해만큼은 당신께만큼은 정관장

오래오래 건강하게!
한가위 대잔치

행사기간: 9월 27일 까지

홍삼에도 격이 있습니다. 가족과 자신을 위해 최선을 드세요.

정관장 홍삼의 엄격한 제품 관리 기준은 의약품 제조도 가능한 수준으로 한국, 일본 GMP 및 HACCP 인증을 획득할 정도로 품질면에서 우수합니다.

추석 6년근 홍삼의 진한 피부과학 동인비

행사기간: 9월 27일 까지

2015년 추석, 소중한 분들께 6년근 홍삼 화장품 동인비로 마음을 전하세요.

동인비 제품 \$60이상 구매시

동인비초 클렌징 폼 무료증정
동인비초 미스트 무료증정

전화주문 서비스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781-238-0303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MBTA 재정 상태 알려진 것보다 심각

MBTA 컨트롤 위원회 첫 정식 보고서 발표

수입은 그대로인데 비용은 계속해서 증가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운영하는 MBTA의 재정 및 관리 상태가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MBTA의 전체적인 관리를 위해 새로 조직된 컨트롤 위원회는 22일 MBTA가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한 공식 보고서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MBTA 컨트롤 위원회의 조셉 에이델로 의장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이 보고서는 MBTA의 암울한 현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그러나 이 보고서를 통해 MBTA가 정상 궤도로 오르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MBTA의 재정 상태가 이미 망가졌다고 말하고 있다. MBTA는 내년에 2억 4천 2백만 달러의 구조적인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5년 동안 적자 규모는 4억 2천 7백만 달러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적자 규모는 주 정부의 추



5년 후에는 MBTA의 적자 규모가 4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이 발표되었다

가지원이 없다는 가정하에 산출된 액수다.

MBTA가 운영하는 대중 교통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와 이에 따른 전체 수입은 지난 2년 동안 늘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운영 비용은 6.5% 증가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올해 회계연도에 예상되는 비용은 20억 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수입은 18억 5천만 달러에 그칠 전망이다.

MBTA의 비용이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종업원의 임금과 의료보험 등의 혜택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컴퓨터레일의 운영 비용과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도 비용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MBTA의 노후한 기반 시설은 지난 겨울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폭설로 인해 많은 열차 운행이 취소되고 승객들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폭설로 인해 열차 운행이 중단되었을 뿐 아니라 이 시기에 MBTA가 소유하고 있는 노후한 많은 장비들이 고장을 일으켰다.

MBTA가 안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찰리 베이커 주지사에 의해 조직된 컨트롤 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컨트롤 위원회는 MBTA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을 오는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jsi@bostonkorea.com



세일즈 택스가 없는 주에서는 사전 예약을 해야만 아이폰 새 모델을 구입할 수 있다

뉴햄프셔, 예약 없이 새 아이폰 못 산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애플의 아이폰 새 모델이 오는 25일 오전 8시부터 판매를 시작한다. 이미 사전 예약을 한 사람이라면 상관없지만, 사전 예약을 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살고 있는 주에 따라 새 아이폰을 구입하지 못할 수도 있다.

애플은 지난 21일 발표한 보도 자료에서 세일즈 택스가 없는 주에서는 사전 예약 없이 매장을 방문한 사람에게 아이폰 새 모델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뉴햄프셔, 델라웨어, 오레곤, 알래스카 주에 거주하는 사람은 사전 예약을 한 경우에만 아이폰 6에스, 혹은 아이폰 6에스 플러스를 구입할 수 있다.

애플은 현재 아이폰 새 모델의 사전 예약을 받지 않고 있으며 판

매가 시작된 후 24시간, 즉 26일 오전 8시까지의 구매 예약을 받지 않을 방침이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아이폰 새 모델이 나올 때마다 이를 구입하기 위해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지만, 뉴햄프셔, 델라웨어, 오레곤, 알래스카에서는 사전 예약을 한 사람만 아이폰 새 모델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애플 매장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미국 외에도 중국, 홍콩, 일본 등의 나라에서 사전 예약 없이 아이폰 새 모델을 구입할 수 없다. 애플은 세일즈 택스가 없는 주에서 새 아이폰을 구입하기 위해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하는 규정을 언제까지 시행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 않았다.

jsi@bostonkorea.com

마리화나 흡연 이유로만 경찰 차량 정지 못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경찰은 마리화나 소지 의심을 이유로 차량을 정지시킬 수 없다고 매사추세츠 대법원이 판결했다.

지난 21일 5대 2로 판결한 대법원은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를 허용한 주민 투표의 중요성을 재확인 했다. 매사

추세츠 주민들은 주민투표를 통해 경찰이 마리화나 단속 보다는 좀더 범죄 단속에 집중할 것을 권장하며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를 합법화 시켰다.

대법원은 차량내 마리화나 소지라는 비행만으로 경찰이 개입하는 것을 유권자들은 결코 원치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수의견을 쓴 마곳 보츠포드 매사추세츠 주 대법관은 "경찰이 운전자가 마리화나를 소지했다는 충분한 정황에 의거해 차량을 멈춘다는 것은 주민투표안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오히려 경찰이 마리화나 합법화 주민투표 이전과 똑 같은 자세로 운전자들을 수사해되

되도록 부추기는 결과를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츠포드 대법관은 경찰이 차량에서 마리화나 냄새를 맡고 정차했다고 보고하는데 마리화나 냄새 한가지로 누군가가 마리화나를 소지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썼다.

로버트 코디와 프랜시스 스피나 대법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다수가 연방 및 주 헌법 그리고 주민투표안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디 대법관은 운전중 마리화나 흡

입이나 운전중 문자 메시지 전송이나 동일 선상에 두고 보아야 하며 경찰에 차를 정차하고 티켓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원에서 문자를 주고 받는 행위는 교통이나 다른 차량에 아무런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운전 중에는 안전에 위협을 가한다. 따라서 이를 법으로 금지한 것이다"라며 코디 대법관은 "운전 중 마리화나를 제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hsb@bostonkorea.com

NEWSTAR Realty of Boston **NEWSTAR BOSTON** **금탑수상** 미주 전체 New Star Realty

Gina Choi
Realtor, MBA
978-866-3248
ginachoi@newstarrealty.com
http://blog.naver.com/newstargina

안녕하세요. New Star Realty의 지니 최입니다.
1997년에 보스턴 지역으로 유학을 와서 학부화 대학원(MBA)을 마치고 다년간 BOSTON과 CAMBRIDGE 지역에서 직장 생활과 각 지역에서의 각종, 안경점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창업중이며 불경기에도 10년 이상의 가족 비즈니스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력의 자리에 집과 사업을 매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xington Office
40 Weltham St., Lexington, MA 02420
Tel: (781) 259-4989

Newton Office
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55
Tel: (617) 869-4989

EXCLUSIVE : ALLSTON

24 Glenville Ave, Allston, MA 02134
For Sale: \$ 420,000 방 4개 화장실 1, 1,330 sqft
Harvard Ave 전철역, 미림, 한마루, 서울 설령탕, 한진택배 걸어서 1-2분 거리
내년 9월까지 학생들이 계약되어 있음.
현재 올스턴 지역의 CONDO 가격이 오르는 추세라 투자 가치가 높음.

EXCLUSIVE : BEDFORD 지역 단독주택



For Sale: \$599,000 3+ Beds, 2 Bath, 2238 sf (Lot size: 1.3 acre)
(3 CEDAR LANE, BEDFORD, MA)
학군 좋은 Bedford 지역 Single House.
넓은 정원, 안쪽에 위치, 조용하고 Private한 곳입니다

가족의 정착, 내집 마련, 투자이민 및 사업매매 978.866.3248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카카오톡 ID: jusrangnim

미국 '무슬림 대통령' 논란... 카슨 '반대' vs 힐러리 '찬성'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카슨은 특히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가치, 원칙과 궤를 같이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 라면서 "무슬림은 미래의 미국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슬람 종교가 미국의 헌법과 부합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이 발언 후 미국 내 이슬람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거센 논란에도 카슨은 같은 날의 회전문지 더 힐(The Hill) 인터뷰에서도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카슨은 "이슬람 율법은 미국의 헌법, 미국의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취임 선서는 코란이 아니라 성경에 대고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유력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21일 트위터에 무슬림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글을 올려 확실한 대립각을 세웠다.

클린턴 전 장관은 "무슬림이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가? 한마디로 말해 '그렇다'. 이제

(논란은 접고) 앞으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트위터에 미국의 어떤 공직이나 공익 재단에 대해서도 그 자격 요건과 관련해 종교 심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헌법 제6조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했다.

민주당 경선 주자인 마틴 오맬리 전 메릴랜드 주지사와 공화당 주자 중 한 명인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 역시 카슨의 발언을 비판했다.

다만, 공화당 선두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는 전날 NBC 방송 인터뷰에서 '무슬림이 대통령이 됐을 경우 이를 지지하거나 편안하게 느낄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은 일정 시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내가 그것을 편안하게 느끼는가. 그것은 지금 당장 답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 이슬람 단체인 미국이슬람관계위원회의 니하드 아와드 사무국장은 성명을 내고 "카슨은 나라를 이끌 자격이 없다"며 카슨의 후보직 사퇴를 공개 촉구했다.

아와드 국장은 "카슨의 발언은 충격적이고 실망스러운 것"이라면서 "국민은 종교나 피부 색깔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을 보고 공직자를 선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카슨은 어떤 공직에도 종교 심사를 자격 조건으로 제시하지 못하도록 한 미국 헌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화당 후보 가운데 유일한 흑인인 카슨이 뉴욕타임스와 CBS방송의 최근 공동 여론조사(9월9~13일·1천261명)에서 23%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1위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27%)를 바짝 추격하는 등 돌풍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이번 논란이 향후 공화당 경선, 더 나아가 전체 대선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주자 벤 카슨

sims@yna.co.kr

힐러리 하락세 바닥 찍었나... 전국조사서 샌더스 압도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이메일 스캔들 등의 여파로 대선 레이스 초반부터 흔들렸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다시 살아나는 조짐이다.

자신을 '신뢰의 위기'에 빠뜨린 개인 이메일 사용 파문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한 데 이어 코미디 프로그램까지 출연해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서는가 하면, 경쟁 후보에게 강한 대립각을 세우는 등 그간의 대세론에 편승한 등둔적 행보를 과감히 탈피하면서다.

미국 CNN 방송과 ORC 인터내셔널이 공동으로 실시해 21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클린턴 전 장관은 민주당 성향 유권자들 사이에서 전국적으로 42%의 지지를 얻어 24%에 그친 경쟁자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을 18% 포인트 앞섰다.

샌더스 의원이 최근 클린턴 전 장관을 무서운 기세로 추격해, 이달 들어 대선 풍향계로 여겨지는 아이오와 주에서 43%대 33%, 뉴햄프셔 주에서 52%대 30%로 각각 앞섰음을 고려하면 클린턴 전 장관이 바닥을 찍고 본격적으로 반등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조사에서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는 조 바이든 부통령은 22%로 샌더스 의원을 바짝 따라 붙었다.

특히 클린턴 전 장관은 바이든 부통령이 출마를 포기할 경우 지지율이 57%로 급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경선 가도에서 이른바 '바이든 변수'가 상당한 파괴력을 가질 것이라는 관측을 낳았다.

CNN은 "바이든에 대한 지지는 대부분 클린턴 지지층에서 나왔다"며 "부통령이 경선 레이스에 없다면 클린턴의 지지율은 15% 포인트 급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조사는 지난 17~19일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392명을 상대로 실시됐다.

의회전문매체인 '더 힐'도 "샌더스가 아이오와와 뉴햄프셔 등 초기 경선지역에서 기반을 다지고 있지만, 최근 여러 건의 전국적 조사에서 클린턴 전 장관이 선두를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언론은 클린턴 전 장관이 지난 8일 이메일 스캔들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힌 것을 계기로 지지율 하락이 사실상 바닥을 찍은 게 아닌가 조심스레 관측했다. 또 클린턴 캠프가 대세론에 올라타 쉽게 가려는 전략을 접고 적극적 선거운동으로 전환한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클린턴 전 장관은 공화당 주자들의 2차 TV 토론이 열린 지난 16일 NBC방송의 '투나잇 쇼'에 출연해 도널드 트럼프로 분장한 코미디언과 농담을 주고받는 과격적 모습을 연출했다.

또 지난 17일에는 한 유세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외국에서 태어난 무슬림"이라는 청중의 발언에 동조해 후폭풍을 맞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 "끔찍하다"며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shin@yna.co.kr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주자 힐러리 클린턴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Newton, Brookline, Boston, Cambridge, Belmont, Lexington, Waltham, Wellesley

보스톤에 처음 오시거나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스톤 일대의 아파트/콘도/주택 매매 렌트를 성심 성의껏 세심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통해 고객들의 희망사항에 맞춰 찾아드립니다.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Coldwell Banker Residential Brokerage

1261 Centre St. Newton, MA 02459
Office: 617.969.2447 Cell: 857.919.3055
Email: SeongAe.Kim@NEMoves.com

최지희 헤어 (Bliss Image)
휴일없는 미용실

당신의 개성과 산뜻함을 찾아 드립니다

월, 화 스페셜: Cut 남\$15/여\$25

- 남녀헤어
- 피부관리
- 네일
- 제모
- 속눈썹 연장
- 바디 마사지
- 영구화장
- 속눈썹 연장 기술 지도

11A Corinth St. Roslindal MA 02131
SHOP: 617.323.0023
CELL: 617.818.5596

Business Hours:
Mon-Sat: 9am - 7pm
Sun: 9am - 6pm
미용사 구함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In Lowell

중중중은 치과
중중중은 치아

WE MAKE SMILE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폭스바겐 전세계 상대 사기극... "독일이 이런 나라였어?"

'메이드 인 저머니'가 구축한 신뢰 한순간의 사기극으로 물거품... "독일 국가 이미지 '도미노' 추락"

(베를린 로이터=뉴스1) 김정한 기자 = 폭스바겐(Volks Wagen)은 독일어로 '국민차'를 뜻한다. 곧 폭스바겐의 명성은 독일의 국가 이미지와 떼려야 뗄 수 없다.

지난 18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폭스바겐이 TDI 디젤 차량에 배출 가스를 조작하는 장치를 달았으며 리콜과 판매 중단을 명령했다. 배출가스의 양을 속인 사기극의 전말이 드러난 것이다.

소비자를 기만한 전대미문의 '사기극'으로 인해 지금까지 쌓아온 폭스바겐의 명성과 브랜드 이미지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많은 독일인들은 이 같은 폭스바겐 사태의 여파가 독일 기업 전체와 더 나아가 '메이드 인 저머니'(Made in Germany)의 '기술'과 '신뢰'에 대한 명성까지 손상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소비자를 기만한 전대미문의 '사기극'으로 인해 지금까지 쌓아온 폭스바겐의 명성과 브랜드 이미지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더 큰 손실은 독일 국가 명성의 실추다. 폭스바겐 사태는 45% 이상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독일 경제에 길고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DIW 경제연구소의 마르셀 프라체 대표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독일의 대성공은 '메이드 인 저머니'가 나타내는 품질에 의존하고 있다"며 "폭스바겐은 완벽, 신용, 신뢰 등 독일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기업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폭스바겐 사태가 독일 경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모른다"면서도 "높은 수출 의존도 때문에 파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의 자동차 산업은 고용시장에

설립됐다.

폭스바겐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에 군용차량을 납품했으며, 전후엔 일명 '딱정벌레'차인 비틀(Beetle)로 독일의 경제 재건에 크게 기여했다.

이제는 폭스바겐뿐 아니라 아우디, 포르쉐, 벤틀리, 람보르기니 등 최고 프리미엄 브랜드를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1위 자동차그룹으로 올라서 있다.

이같은 성공신화와 함께 독일 정치인들은 폭스바겐의 미국과 중국 진출이 독일의 수출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빈번하게 찬사를 쏟아냈다.

하지만 이제 배기가스 조작으로 인해 이 같은 독일 국민들의 자부심은 수치심으로 전락했다.

◇ 추락하는 독일 기업들의 이미지 폭스바겐의 스캔들은 '업무 태만'이 아닌 '고의적인 조작'이라는 점에서 자동차 업체들의 다른 리콜 사태 등과는 차원이 다르다.

독일 기업들의 잇단 추문으로 인해 독일 기업계에서 많은 악습들이 이미 만연해 있는 게 아닌지에 대한 시선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지난해 유럽 최대의 자동차 클럽인 독일운전자클럽(ADAC)은 매년 실시하는 '올해의 자동차' 시상에서 폭스바겐의 골프가 조작을 통해 상을 수여받았음을 발견했다.

ADAC는 결과에 대한 순위는 그대로였고 다만 투표자들 수의 집계에만 총 수치만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독일과 전 세계에선 여전히 이에 대한 분노가 남아 있다.

독일 기업들은 지난 수년간 독일 정부와 유럽연합(EU)을 상대로 청정법안 제정 등에서 업계에 유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독일의 자동차 기업들만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게 아니다.

독일의 대표적인 기술기업인 지멘스는 지난 2008년 미국과 독일에서 11명으로 구성된 고위 감독관과 감시위원들이 불법 관행과 뇌물 제공 등을 막지 못해 13억달러 이상의 벌금을 지불하기도 했다.

acenes@news1.kr



폭스바겐 TDI 디젤 엔진

이보다 앞서 일어난 몇 가지 사건들도 독일의 국가 이미지를 손상시켰다. 여기엔 독일의 최대 은행 도이체방크가 일으킨 리보검리 조작 사건과 금과 은에 대한 가격 조작 사건도 포함된다.

뒤스부르크-에센 대학의 페르디난트 두텐호퍼 교수는 "메이드 인 저머니는 품질과 신뢰 그 자체였다"며 "이제 신뢰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도 이 같은 스캔들을 예상하지 못했으며, 독일 기업들의 이미지에 두고두고 악영향이 될 것"이라며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덧붙였다.

폭스바겐 주가는 지난 이틀 간 약 33% 하락하며 시총 34조원이상을 한순간에 날렸다. 22일 오전 폭스바겐은 스캔들 관련 처리 비용을 위해 3분기에 65억유로(약 8조5676억원)를 충당금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 기만에 따른 벌금과 벌써 줄이는 집단소송 비용을 감안하면 그 액수는 자칫 회사 존립마저 흔들 천문학적 수준이 될 수 있다.

서 약 2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도이체방크에 따르면 지난해 독일의 수출액인 1조1000억유로 중 약 17.9%를 차지했다.

자동차 부문의 수출 성장세도 2009년 이래 줄곧 산업 전체의 평균치를 웃돌고 있다.

지그마르 가브리엘 독일 경제장관은 폭스바겐 사태로 독일 자동차 산업 전반의 명성이 손상될 것을 우려했다.

현재 폭스바겐의 경쟁 업체인 님러와 BMW는 폭스바겐에 대한 비난은 폭스바겐에 한정된 것이라며 거리를 두지만 언제 여파가 미칠지 전전긍긍한다.

◇ 청정 디젤 엔진 치명타... 낮 뜨거운 '독일 공학' 이미지

폭스바겐이 미국 TV 방송에서 최고의 디젤 엔진 차량과 함께 내세우던 "독일 공학의 세상"(Isn't it time for German engineering?)이라는 슬로건도 낮 뜨겁게 됐다.

폭스바겐은 지난 1937년 아돌프 히틀러의 누구나 살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국민차 생산 프로젝트에 힘입어

"기준금리 동결에도 시장금리는 이미 올랐다"

(서울=연합뉴스) 선재규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금리 인상에 틈을 들이고 있지만 시장금리는 이미 올랐다고마켓워치가 22일 보도했다.

마켓워치는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 린치(BOAML) 집계를 인용해 신용도가 CCC 혹은 그 밑인 투기 등급에 해당하는 미국 기업의 평균 채권 수익률이 지난 몇 달 사이 연 10%에서 13%로 뛰었다고 전했다.

최고 등급인 AAA 기업 채권의 평균 수익률도 이 기간에 3.4%에서 4.1%로 상승했다고 BOAML은 덧붙였다.

투기 등급 기업의 채권 수익률은 지난해 초보다는 약 2배 상승했다.

마켓워치는 미국 채권 수익률도 상승 기조라고 밝혔다. '위험에서 해방된 금리'로 표현되기도 하는 10년 만기 미국 채권 수익률이 지난 봄 이후 0.2% 포인트 가량 뛰어 2.2%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또 물가를 반영하는 인플레이션

국채(TIPS) 수익률도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채권 수익률 상승은 그만큼 시세가 주저앉았다는 의미다.

마켓워치는 채권 수익률 상승은 차입 부담 가중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마켓워치는 그간의 금융 완화 기조로 차입이 급증해 미국 기업과 가계의 채무가 지난 6월 말 현재 26조 6천억 달러에 달했다는 연준 집계를 인용했다.

이는 금융 위기 직전인 2007년의 24조 1천억 달러를 초과한 것이다.

그러면서 기업이 이처럼 싸게 차입한 막대한 자금을 투자보다는 자사주 매입에 투입해 주가 상승을 부추겨 왔다고 마켓워치는 지적했다.

마켓워치는 장기 금리가 낮게 유지되는 한 이것이 별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상황이 역전되면 얘기는 달라진다고 경고했다.

마켓워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이제 나타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jksun@yna.co.kr

미국 정치권도 교황에 경의, 보수 일각은 비판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프란치스코 교황이 23일 백악관 방문을 시작으로 워싱턴DC에서의 공식 일정에 나선 가운데 미국 정치권도 일제히 교황에 경의를 표했다.

미국 공화당 대선주자인 켄 파시는 CNN에 기고한 글에서 "나를 포함한 수많은 미국의 가톨릭 신자는 교황의 방문을 매우 기뻐하고 있다"며 교황을 환영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교황이 정치인처럼 나선다고 하지만, 그의 주장은 정치보다 크다"며 "그는 지상에서 가장 큰 기독교인 집단의 정신적 지도자이자 좋은 의지를 가진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준다"고 밝혔다.

애덤 쉬프(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노벨평화상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에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쉬프 의원은 교황이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정신적 측면을 고려하고 도덕적이며 진실하게 행동하도록 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페이스북에 "교황은 지구를 파괴하지 않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사회 경제적 제도를 요구하고 있다"며 교황이 "우리

에게 풀어야 할 과제를 던졌다"고 밝혔다.

샌더스 의원은 전날 오후 늦게 MSNBC에 출연해 교황이 기후변화 문제를 언급한 데 대해 "(기후변화 대응 활동의) 중대한 전환점을 만들도록 도왔다"며 반겼다.

팀 케인(민주·버지니아)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정치 뿐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은 교황께서 분명히 보여주는 것처럼 자신을 지나치게 내세우지 말고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미국 내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교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폴 고사(공화·애리조나) 하원의원은 교황이 기후변화나 분배 문제에 대해 "좌파 정치인처럼 행동한다"며 24일로 예정된 교황의 의회 연설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정치전문 매체들은 일부 보수파의 이런 시각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화당 안에서는 대체로 교황에 대해 대립각 세우기를 꺼리고 있으며, 이는 공화당의 주요 지지층인 기독교도 가운데 가톨릭 신자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smile@yna.co.kr

TASTE OF KOREA

코리아나

KOREANA RESTAURANT

코리아나에서 **블랙앵거스 비프** 를 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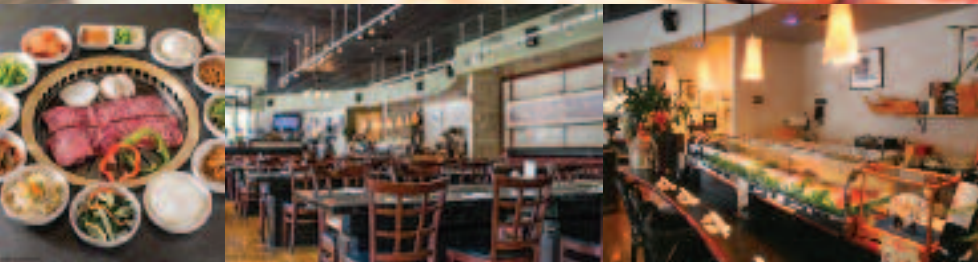
최상의 품질의 바베큐를 제공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BEST OF BOSTON
2006

BEST OF BOSTON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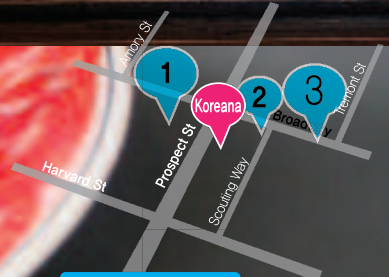
BEST OF BOSTON
2000

최상급 블랙 앵거스 비프를 사용한 코리아나의 바베큐를 맛보세요



617.576.8661
www.koreanaboston.com

영업시간
일요일-목요일(11:30AM~10:30PM)
금요일-토요일(11:30AM~12:00AM)
158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Parking Information

1. 주유소주차, Broadway Gas Station (Mon~Sat: After 6pm), (Sun, Holiday: All Day)
 2. 건물 뒤 주차장, Drive Way(Behind Building) (Lunch: 4 Cars), (Dinner: 2 Cars)
 3. 도로주차, Broadway Play Ground 옆 (2 Hours Free Parking: 8am~6pm), (After 6pm: Free) (Sun: All Day Free)
- *이외에도 Free Parking 가능한 곳이 Restaurant 가까이에 여러곳이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JESSICA BEAUTY

한국 종합 화장품 | 참존 화장품 직영

시선집중 잡티개선, 주름개선, 탄력개선, 미백까지...

“화장품에도 당신의 인격과 품격이 묻어납니다”

나만의 화장품으로, 내 피부는 내가 만든다. 소비자의 선택을 도와주고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상륙 참존 스킨타운샷에서 피부관리 하시는 멤버에게만 사용하는 제품

처진 피부에 희소식

스킨타운 프리미엄 리와이징 크림으로
처진 피부를 개선 (탄력강화.조직이 살아납니다)
잡티 개선 참인셀 비타민C.E크림



617.770.0188
온라인 쇼핑몰 오픈 | 무료배송

JessicaSecret.com

219 Quincy Ave. #31-A, Quincy, MA 02169
金門 Kam Man Food 중국마켓 안에 있습니다

보스톤 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차례 대신 해외로'...추석연휴 인천공항 출국 역대 최다

하루 평균 7만2천명 나가고 6만9천명 들어...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올 추석연휴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로 나가는 여객이 인천공항 개항 이래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24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달 25~29일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객이 70만 3천320명으로 예측됐다. 하루 평균 14만664명꼴이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일평균 12만533명보다 16.7%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다이다.

인천공항 도착 여객은 일평균 6만8천934명, 출발 여객은 7만1천730명으로 모두 역대 최다일 것으로 추정됐다.

추석 연휴 중 가장 붐비는 날은 추석 전날인 26일이다. 14만6천111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오고 나간다.

연휴 기간 여객기 운항은 전년보다 6.2% 늘어난 3천984회로 예상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올해 중동



추석연휴 맞아 해외여행 떠나려는 인파

호흡기증후군으로 인해 잠시 타격을 받았지만 여객수 자체가 지난해에 비해 많이 늘어났다"며 "이런 여객 증가 추세가 추석연휴에도 이어진 셈"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25~29일을 추석연휴 특별운영기간으로 지정하고 특별 근무에 들어가기로 했다.

서울행 심야버스를 하루 4편에서 8편으로 증편하고 심야시간대 공항철도 운행도 하루 6회로 늘릴 예정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체크인 카운터도 조기에 열고, 출국장의 운영

시간도 기존 오전 7시~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30분~오후 11시로 확대한다.

한국공항공사 역시 25~29일 전국 13개 공항에 '특별교통대책반'을 설치·운영한다.

이 기간 임시편 항공기가 158편 늘어나 모두 3천356편이 운항된다.

한국공항공사는 주차장 등 혼잡 예상 지역에 안내요원을 추가로 배치하고 공항 편의시설과 셔틀버스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등 고객서비스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pseudojm@yna.co.kr

'병역법 위반' 골퍼 배상문, 프레지던츠컵 이후 '사법처리'

(대구·경북=뉴스1) 배준수 기자 = 다음달 6~11일 인천 송도에서 개막하는 '2015 프레지던츠컵'에 초청선수로 발탁된 프로골퍼 배상문(29·캘러웨이)이 대회 참가 이후 사법처리될 전망이다.



배상문(29·캘러웨이)

대구 남부경찰서는 대구경북지방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징명수배된 배상문이 국내로 들어와 프레지던츠컵 대회를 마치면 소환,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김관태 남부서 수사과장은 "배상문의 어머니가 '아들이 프레지던츠컵이 끝나는 10월11일 이후 출석해 성실히 조사 받겠다'는 뜻을 전해왔다"면서 "배상문은 입국해서 30일 이내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 되고,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2005년 징병검사에서 2급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은 배상문은 2011년 1월20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병역법 제70조 1항 등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단기 국외여행'을 이

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PGA에서 활동해왔다.

이후 28세까지 국내 학교 재학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받았으며, 지난해 12월3일 영주권 신규 취득을 이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병무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상문이 성균관대 석·박사 통합과정에 등록했고, 2013년 하반기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1년 동안 국내에 133일 이상 머물러 국외거주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병무청의 불허 이유다.

국외여행허가 기간이 지난해 12월31일로 만료된 배상문은 올해 1월31일까지 귀국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병무청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pen2408@news1.kr

Cheap or Quality?

ASC : Boston's #1 ESL School

Fall class starts on September 2nd!



1 ESL or TOEFL 10% Off

Speak to an advisor now!
10% off total tuition for at least 4 months of enrollment.
Limited Offer.
Book by **September 2nd** for this discount.

2 What makes us different? These colleges accept...

The **Level 5** "TOEFL/IELTS Waiver" applies for

Northeastern Univ.	Pre-MBA Program
Cambridge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Lasell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Lesley University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Merrimack College	Undergraduate (lv. 5) Graduate (lv. 6)
Boston Architectural College	

The **Level 4** "TOEFL Waiver" applies for

Benjamin Franklin Institute of Technology
Quincy College
Middlesex Community College

The **Level 6** "TOEFL Waiver" applies for

Southern New Hampshire University



Main: 1106 Commonwealth Ave. Boston, MA 02215 T. (617) 730-3705
Downtown: 65 Harrison Ave. 6th Fl., Boston, MA 02111 T. (617) 338-5288
Website: www.ascenglish.com

H MART

Yes, We are **OPEN 365** days a year!
SALE WEEK SEP. 25TH - OCT. 1ST, 2015
 ONLY FOR **H MART BURLINGTON STORE**

STORE HOURS: SUN-THU 8:00 AM - 9:00 PM | FRI.-SAT. 8:00 AM - 10:00 PM
 All prices are based on availability. Typographical errors may be present in the prices and descriptions.
 수량에 따라 세일이 될지 불확실한 경우가 있습니다. 큰 광고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인쇄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ULL MOON GLOWING SAVINGS

The Full moon is September 27th!

IT'S ASIA'S MOST COVETED FESTIVAL!
 LET'S ENJOY THE BEST TIME OF THE YEAR.
 H마트가 드리는 풍성한 추석 세일전



NEW CROP
 Fuji Apple
 햇 후지 사과
\$1.79
 lb.



5.5 lbs.
PREMIUM FROZEN
 Salted Croaker
\$34.99



양념 소불고기
 Marinated Sliced Beef Rib Eye Bulgogi
\$6.99
 lb.



CHORIPDONG
 Dried Jujube (Date)
 초립동이 잘~말린 대추
\$3.99
 1.1 lbs.



PALDO Rice Punch
 팔도 비락 식혜 박스
 280mL x 12cans/box
\$6.99



33년 전통의 미주 최대 고국선물관
한마름 고국통신판매
 9월 27일 추석 맞이 명품 한우, LA갈비, 굴비, 전복 및 제수용 과일세트 등 전품목 최대 20% 할인!
 전화 주문: 201-229-1111
 인터넷 주문: WWW.HMART.COM

KOREA'S GREATEST GIFT, MADE FRESH IN AMERICA.
 한국인의 자존심, 토바기 김치!
 최고품질의 재료들로 직접 정성을 다해 만들어 더욱 맛있습니다.

TOBAGI

Quick, Healthy, Naturally Delicious.
 So Yummy. So good.

해오름 HAI-OREUM
 건강하고 생생한 해오름 메밀국수와 기본 좋은 한끼!

Golden Kiwi
 골드 키위 박스
FRI./SAT./SUN ONLY
\$19.99
 box

NEW CROP
 Koimo Sweet Potato
 햇코이모 고구마
\$1.49
 lb.

GINGER
 생강
\$1.99
 lb.

SOONYEWON
 Tofu 수녀원 두부
FRI./SAT./SUN ONLY
\$0.99
 All Varieties/14 - 16oz.

BONELESS BEEF
 Rib Eye Steak
 뼈없는 등심 스테이크
\$9.99
 lb.

BONELESS PORK
 Loin for Cutlet
 돈까스용 돼지고기
\$4.99
 lb.

FRESH
 Sliced Pork Single Belly for BBQ
 바베크용 생삼겹살
\$7.99
 lb.

FRESH
 돼지 등갈비
 Pork Baby Back Ribs for BBQ
\$5.99
 lb.

FROZEN
 대구 전갈
 Cod Fillet
FRI./SAT./SUN ONLY
\$5.99
 lb.

FROZEN
 Pollock Fillet
 동태 전갈
FRI./SAT./SUN ONLY
\$1.99
 lb.

FROZEN
 TONGTONGBAY Seafood Mix
 통통배 해물모듬
\$3.99
 1 lb./pkg.

FROZEN
 TONG TONGBAY Beltfish
 통통배 더 맛있는 갈치
\$5.49
 14oz./pkg.

NO.1 SUPER QUALITY MEDIUM GRAIN RICE
 Kyong Gi Rice
 경기미
 15 lbs.
\$9.99

HAIOREUM
 Roasted Seaweed
 Original/Parae
 0.15oz. x 8ea./pkg.
\$2.99

HAIOREUM
 Korean Style Beef BBQ Sauce
 해오름 소불고기/갈비 양념 2.11 lbs.
\$4.99

KODA FARMS
 Mochiko Sweet Rice Flour
 고다 팜 모찌코 찰쌀가루 1 lb.
2\$3
 ea./for

CHORIPDONG
 Salted Croaker
 초립동이 민어굴비 2.51 lbs.
\$8.99

FOODCELL
 Vermicelli
 푸드셀 궁중당면 1.5 lbs.
2\$5
 ea./for

HAITAI
 Honey Tong Tong
 해태 허니통통 2.29oz.
2\$5
 ea./for

POPCORNERS
 Popped Corn Chips
 All Flavors/5oz.
\$0.99

ARIZONA FARM
 Cactus Honey Powder
 아리조나 팜 선인장 꿀가루 1 lb.
2\$5
 ea./for

HELLO HOME
 Egg Pan
 헬로홈 계란말이용 후라이팬 13 x 18cm/ea.
\$4.49

HELLO HOME
 Stainless Steel Steam Pot
 헬로홈 스테인리스 찜솥 24cm/ea.
\$14.99

TIGER
 Electric Grill Pan
 타이거 전기 그릴팬 CPK-D130/ea.
\$109.99

혁신위 최종안 후폭풍 거세

보스톤코리아 인사이트 : 혁신위 활동이 끝났다. 당의 중진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게 골자다. 당연한 수순처럼 당 안팎의 반발이 거세다. 그러나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현재의 반발을 적절하게 수용하며 당을 건사해낼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에 달렸다. 문재인 대표는 승부수를 던져야 할 시점이 됐다. 벌써 문재인과 김무성이 부산의 영도에서 리틀 대선 매치 상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재선임안으로 승부수를 던진 문 대표에게 혁신위는 부산 출마로 진검 승부를 벌일 것을 권했다.

열세지역 출마 문 "심사숙고" 안 "지역민 약속 중요"

주류 전국 총선 누가 지휘하나" 반대 주류 일부 "고민할 지점 있다"찬성 비주류 "문 대표, 당 승리 위해" ... "전직 대표 열세지역 출마 옳지 않아"

(서울=뉴스1) 박태정, 김현, 박웅진 기자 = 23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로부터 내년 총선에 당 열세지역 출마를 요구받은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사뭇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

문 대표는 "누구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 심사숙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반면, 안 전 대표는 "정치인으로 지역주민과의 약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혁신위는 이날 국회에서 이날자로 활동을 마감하는 마무리 기자회견을 통해 문 대표에게 "불출마를 철저히 부산에서 우리당 총선승리의 바람을 일으켜달라"고 부산출마를 촉구했다.

또 안 전 대표를 포함한 전직 대표를 향해 "분열과 좌절을 넘어 통합과 승리를 위해 살신성인을 실천해 달라. 당의 열세지역 출마를 비롯한 당의 전

략적 결정을 따라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심사숙고하겠다. 내년 총선승리를 위해서 우리당 구성원 누구나 희생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우리당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일수록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대표인만큼 더욱더 솔선수범할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부산출마 요구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안 전 대표는 "노원병은 서민과 중산층이 아주 많이 모여사는 곳이고 제가 그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다고 처음 정치를 시작하고 약속을 했다"며 "정치인으로 지역주민과의 약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혁신위에서 여러가지 안이 나왔습니다만 본질적 혁신에 우선은 충실하고 당이 국민신뢰를 얻는게 먼저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주류 "전국 총선 누가 지휘하나" vs 비주류 "승리 위해 무슨 일이라도" 문 대표의 부산지역 출마 요구에 대

해선 비주류에서는 필요성에 동의하는 반면 주류 내부에서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최재성 총무본부장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당 대표 문제를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그럼 전국 총선은 누가 지휘를 하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당에 기여하는 방법이 대표가 그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 건 신중히 판단할 문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경협 의원이 "(열세지역인) 부산 바람을 일으키는 게 좋을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대표가) 한 지역구에 매달려 있는 것보다 전국 선거를 지원하는 게 당 선거에 좋지 않겠냐"고 부정적 의견을 냈다.

김 의원은 전직 대표의 열세지역 출마에 대해선 "열세지역이라고 하는 게 주로 영남 강원 쪽인데 중진들 중에서 그렇게 할 만한 여지가 되면 나가는 게 좋다고 본다"면서도 "만약 그 분이 떠나 (현재의) 지역이 열세지역이 되면 안 되겠다. 전략적 판단이 조금 필요하겠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반해 오영식 최고위원은 "내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좌),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우)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당 대표로서 총선 진두지휘 못지 않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영남, 부산 지역에 앞장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고 수용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반면 비주류 진영을 대변하는 주승용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대표는 승리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다해야 한다"며 혁신위의 부산 출마 요구에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전직 대표의 열세지역 출마에 대해선 "당 대표는 인지도가 더 높

으니깐 그런(열세지역 출마) 것 같은데 중진 의원들이 남의 지역구 실정도 잘 모르면서 무조건 나가는 건 옳지 않다"고 반대했다.

비주류에 속하는 수도권의 한 재선의원 역시 "총선, 대선, 재보선에 책임감을 느끼고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문 대표는 당연히 부산에 출마해야 되고 안되고를 떠나 지지율을 높일 수 있다"고 문 대표의 부산 출마에 찬성했다.

ptj@news1.kr

야, 혁신위 발 '핵폭탄' 후폭풍...파장 어디까지

조국 "용퇴할 분도 있어" 압박...계파수장들 '불편' 비주류 "형평성 어긋난 혁신안"...원심력 부채질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서혜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혁신위원회가 던져놓은 '핵폭탄급' 혁신안의 여진이 계속되며 온종일 별집을 쭈신 듯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혁신위가 제시한 공천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의원들의 저항이 이어지는 가운데, '살신성인'을 요구받은 계파 수장들은 대응을 삼가며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비주류 진영에서는 혁신위가 월권을 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신당론과 맞물려 원심력을 부채질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고개를 들었다.

◇ 혁신위 "용퇴할 분도 있다" 압박...수장들 '심기불편' = 혁신위는 활동 마감 하루 넘긴 이날도 여전히 인적쇄신을 강조하면서 압박을 이어갔다.

우선 문재인 대표를 겨냥해서는 조국 혁신위원 등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지역구인 부산 영도 출마를 공공연하게 거론했다. 전날 부산 출마를

요구한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간 셈이다. 계파 수장들에도 혁신위의 칼끝이 다시 향했다.

조 위원장은 CBS라디오에 나와 "정세균 김한길 전 대표는 지금 지역구도 열세지역 아니냐"는 질문에 "분석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고 했다.

이어 "이 분들(계파 수장들) 중에는 출마해 역할을 하실 분이 계시고, 용퇴를 하실 분도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부산 출마에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보인 데에도 "지역구를 고집하겠다"며 어떻게 막겠냐. 공천관리위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다.

하급심 유죄판결자 공천제한에 반발이 나오는 것에도 "많은 분들이 혼동하고 있다. 공천은 재판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이라며 "하급심 유죄가 대법원에서 파기되더라도, 그를 공천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라고 했다.

수세에 몰린 계파 수장들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YTN라디오에서 "제1야당이 공천권을 검찰에 반납했다"고 비판하면서, 계파수장 열세지역 출마요구에도 "지역구 선택은 본인의 자유"라고 반박했다.

김 전 대표나 정세균 전 대표,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 측은 일절 반응을 삼가며 상황을 주시했다.

◇ 비주류 '부글부글'...원심력 거세질까 = 비주류 진영 역시 혁신안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자칫 계파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날 혁신위로부터 "분열을 조장했다"는 공개비판을 들은 조경태 의원은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차려, "반대자가 있었음에도 만장일치라며 혁신안을 통과시킨 행위야말로 집단적 광기"라며 "나를 제명하라"고 반박했다.

유성엽 의원은 페이스북에 "혁신안은 실망의 연속이었다"면서 "(계파수장들의) 구체적 실명을 거명해 인적쇄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당권재민혁신위원장을 비롯한 혁신위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인적쇄신·부패척결 방안을 담은 마지막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신을 촉구했는데, 혁신위는 기준만 제시하고 결정은 당원과 국민에게 맡겨야 한다"면서 월권 논란을 제기했다.

일부 비주류 인사들은 혁신안에 문 대표의 부산출마 촉구가 포함됐지만, 사실상 비주류 수장들을 겨냥했다면서 불공정한 혁신안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대표는 자기 지역구인 부산으로 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만 희생하냐"라며 "하급심 유죄 예외조항을 둔 것도 안희정 충남지사를 공천배제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전날 조 의원에 대해 혁신위가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 것과 정청래 최고

위원이 윤리심판원에서 당직자격을 회복한 것을 비교하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발도 나왔다.

일각에선 이번 분란으로 원심력이 강화하면서, 자칫 집단탈당으로 이어질 경우 신당론에 날개를 달아주는 악영향이 있으리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신당 창당을 선언한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TBS라디오에서 "안 전 대표도 당내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대로 머무르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만 조 혁신위원은 SBS라디오에서 "연쇄탈당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지만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hysup@yna.co.kr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여러분의 "디스크"를 수술 없이 치료해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DRX-9000

최첨단 무중력 감압 디스크 치료기로, 디스크 내부를 무중력 상태로 만들어 감압환경을 조성, 밀려난 디스크를 원상태로 복구하는 무통증 치료로 정상적인 디스크를 해하지 않으며, 근육 및 신경 또한 손상시키지 않는 디스크 치료의 필수장비입니다.



원장 윤창 교수

책임 진료

닥터스통증병원은 28년 경력의 물리치료 전문의와 척추신경 전문의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물리치료 및 교통사고 재활치료 전문 병원으로 최신 장비와 의술로, 모든

환자분들의 환부가 손상되기전의 최고 기능을 회복하며, 신체적인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진료 장소(브룩라인, 월섬)



닥터스통증병원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GOODPT.com

브룩라인 지점(Brookline)

617-731-1001

44 Washington St, Suite 104
Brookline, MA 02445

월섬 지점(Waltham)

617-731-1004

221 Moody St.
Waltham, MA 02453

김무성 대표 사위 마약 사건

보스톤코리아 인사이트 : 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 사건이 좀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사건을 처음 보도한 것이 동아일보였다는 점에서 청와대 기획설이 떠돌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마약 사건과 관련 피라시들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건의 위중함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수사는 허점이 많다. 또 이 마약사건을 변호사를 맡았던 최고일 변호사는 변호사 수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주요 보수언론들은 수동적인 사실보도에 집중하며 사건을 키우지 않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야당 쪽에서 이런 사건이 터졌다면 어땠을까.

김무성 사위 사건 '제3자 DNA', 왜 국과수에 공유 안했나?

(서울=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 검찰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위인 이모(38)씨의 마약 사건 수사와 관련해, 제3자 유전자를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공유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이상익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초 이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필로폰 투약시 쓰이는 일회용 주사기 17개를 발견했다. 이 가운데 이씨의 유전자가 검출돼 법적 증거로 활용됐지만, 일부 주사기에서는 제3자의 유전자가 나왔다. 검찰은 이 제3자의 유전자를 별도의 대검찰청 감정관리시스템에 저장해 놓았을 뿐이다. 이 유전자가 2명 이상의 것이 섞인'

혼합형' 상태인 탓에, 단일한 인적 정보가 구체적으로 담겨야 하는 기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는 등록할 수 없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 하지만 국과수는 이미 혼합형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관리중이다. 국과수의 경우 검찰은 물론 경찰로부터도 광범위한 유전자 분석 의뢰를 받는 까닭에, 문제의 혼합형 유전자가 국과수에 등록됐다면 향후 수사의 실마리를 잡을 가능성이 커진다.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던 제3의 인물이 다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다면, 경찰은 국과수에 해당 인물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게 되고 앞선 사건의 공범임을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는 것.

이러한 절차를 모를 리 없는 검찰이지만 스스로 그 기회를 포기해 부실 수사를 자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는 종결되지 않았고, 아직 수사 중"이라며 "필요하면 별도 관리 중인 혼합형 유전자를 대조 수사에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코카인 등 마약을 모두 15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에 대해 이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하지 않아 지난 2월 형이 확정돼,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의혹도 받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있다. 한편 김무성 대표의 딸 현경(31)씨는 남편의 마약 투약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진실을 규명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해서 유전자 검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별도 기관에서 모발 검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joo501@cbs.co.kr

'마약혐의 있으면 처벌해달라'...김무성 대표 딸 조사자청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딸이 마약을 상습 투약해 재판을 받았던 남편 이모(38)씨와 자신이 같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세간의 의혹을 밝히겠다며 DNA 검사를 자청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의 차녀 현경(32)씨는 최근 서울동부지검에 "나를 조사해서 마약 혐의가 있다면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냈다. 현경씨는 진정서에서 자신을 조사해 마약 투약 혐의가 없을 경우 이같은

의혹을 무분별하게 확산시킨 이들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김 대표 측은 딸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을 밝히기 위해 다른 기관에서 현경씨에 대한 관련 검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위 이씨가 결혼 전 마약을 상습 투약해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진 이달 10일 이후 각종 보도와 증권가 정보지를 통해 각종 의혹이 확산하면서 현경씨도 마약을 투약했을 가

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함께 퍼졌다. 검찰은 남편 이씨를 지난해 12월 마약류를 15차례 투약·복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올해 2월 법원은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이씨 수사과정에서 압수한 주사기 10여개를 토대로 함께 마약을 투약한 공범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ses@yna.co.kr

선임계 없이 활동 고검장 출신 변호사... 김무성 사위 사건도 수임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신청 건 수임과 선임계를 내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한 경위서를 보낸 상태며 30일까지 답변을 받은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이훈철, 성도현 기자 = 고검장 출신의 변호사가 선임고서(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호사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한변협에 따르면 최모 변호사는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에서 민모씨 사건 등 7건을 수임하면서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아 법조윤리협회의에 적발돼 대한변협에 징계가 신청됐다. 현행 변호사법 제29조의2는 변호사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건을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윤리협회는 최 변호사 측이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한 사건 수임 목록과 처리 결과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확인해 지난 14일 변협에 징계를 신청했다. 변협은 법조윤리협이 징계신청한 내용에 대해 조사위원회 조사를 거친 뒤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징계위원회에 징계 청구를 하게 된다. 변협은 현재 최 변호사 측에서

검찰 '두사람 DNA 섞인 주사기는 수사기록 등록불가'

김무성대표 사위 자택서 발견한 주사기 한개 고의 누락 논란에 해명 "규정에 따라 보존 관리...필요 시 언제든지 유전자 대조"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인 이모(38)씨의 마약사건 수사와 관련, 지난해 11월 초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발견한 한 주사기의 유전자정보(DNA)를 고의로 빠뜨렸다는 한 언론보도와 관련해 서울동부지검이 진화에 나섰다. 서울동부지검은 유전자정보를 고의로 빠뜨렸다고 보도된 주사기에 대해 "규정에 따라 보존 관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이씨의 자택에서 17개의 주사기를 발견했으며 그중 하나의 주사기에서 이씨의 DNA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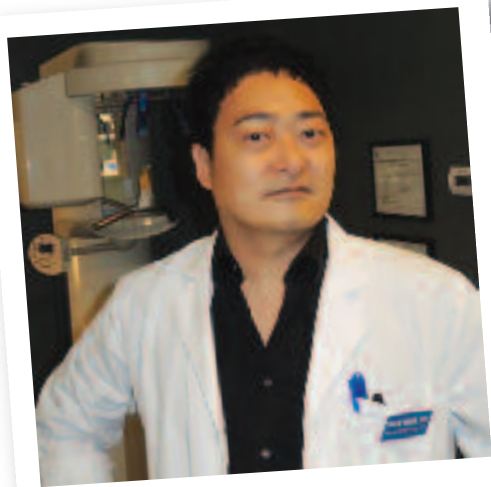
발견했고 또 다른 한 주사기에서 2명의 DNA가 섞여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2인의 혼합형 DNA는 기존의 수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이 불가해 별도의 대검찰청 감정관리시스템에 보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만큼 필요하면 언제든지 유전자 대조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지난 2월6일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내리고 605만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25일쯤까지 서울 강남구와 광진구,



강원도 홍천군 등에서 지인으로부터 코카인과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초 등을 받아 총 15차례에 걸쳐 직접 투약·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의 선고형이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미치지 못해 이씨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마약사범은 동종 전과가 얼마나 있고 수사과정에서 얼마나 협조하는지가 중요하다"며 "법과 원칙에 맞게 수사했다"고 밝혔다. ickim@news1.kr



프로스펙트 덴탈의 진료는 미래의 당신을 위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Eugene Khang DMD(강유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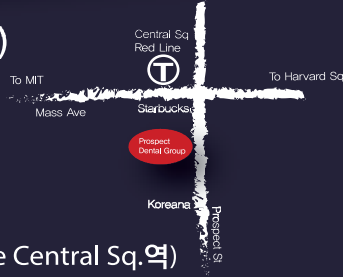
- 한국어 가능
- 응급환자 당일진료
- 주말 진료
- Walk-ins Welcome
- 각종 보험

원장: Eugene Khang DMD (강유진)

진료시간: 월-금: 9AM ~ 6:30PM
토: 9AM ~ 5PM

TEL: 617.576.5300

30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Redline Central Sq.역)
www.prospectdental.com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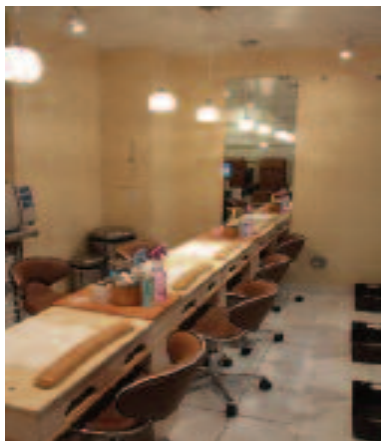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BELLA NAILS

GRAND OPENING

이제 캠브리지에서
한인 네일샵을 경험하십시오
(포터스퀘어 소라 화장품 내 위치)



칼라, 프렌치 젤, 네일 아트, 각질 제거, 두피 마사지 등 다양한 트리트먼트

SORA SHISEIDO 소라 화장품

20년 전통 보스톤 시세이도 1호점



SHISEIDO ULTIMUNE

노화방지, 수분공급, 주름방지,
리프팅, 탄력, 등
모든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
특별히 잡티를 없애주는 효과로
인기가 높은 제품



엘티윤 파워 인퓨징
컨센트레이트 모델
홍은희

Mon-Sat: 9:30AM-7:30PM
Sun: Closed

617.515.6010 | 1815 Mass Ave. Cambridge, MA 02140

단호한 김무성 "왜 자꾸 흔들나...전략공천 절대 안해"

김, 국민공천제 TF 참석해 "오픈프라이머리 흔들기 자제해야" 친박 겨냥 경고
회의 내내 격앙·단호...청 개입한 대규모 '총선 물갈이설' 의식한 듯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새누리당이 국민공천제라고 이름지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해 당내에서 비판론이 확산하자 김무성 대표가 정면 대응에 나섰다.

김 대표는 24일 오전 일찍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민공천제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했다.

이 TF는 황진하 사무총장 주재로 열리지만, 김 대표가 지난주에 이어 이날도 직접 참석해 TF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본인의 의견을 밝혔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와 관련해 "국민공천제 취지와 원칙은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릴 것"이라며 "하다 하다 안될 때 필요에 의해 디테일을 바꿔 '플랜B'로 가게 되더라도 기본적인 국민공천제 원칙은 지킨다. 그게 이미 결정된 당론"이라고 거듭 밝혔다.

김 대표는 일각에서 거론되는 전략공천과 관련해서는 "절대 전략공천은 안하겠다"며 "비민주적 공천을 막고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리는 게 정

치개혁"이라고 강력히 역설했다고 한다.

최근 청와대 참모들이 총선 출마 준비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총선 물갈이설'이 정치권에 나돌자, 김 대표가 "전략공천은 절대 없다"는 말로써 우회적으로 친박계와 청와대에 불편함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국민공천제 TF 소속이면서 친박계 서청원 최고위원의 측근인 박종희 제2사무부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오픈프라이머리가 불가능한 게 아니냐"는 취지로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대표는 "왜 자꾸 안된다고 탄 소리를 하느냐. 아직 시간이 남았다"며 "플랜B로 가게 되더라도 대안은 내가 아니라 의원들과 같이 논의하는 것"이라고 다소 격앙된 어조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 대표는 친박계 의원들의 거듭된 오픈프라이머리 불가론을 겨냥해 "그런 이야기를 좀 자제해야한다"고 불쾌감을 표했다고 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대표는 전날에도 언론에 "여야 협상이 진행 중인데 협상에 힘을 빼는 발언을 삼가해야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TF 의원들은 김 대표에게 조속히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회동을 하고 총선과 관련해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참석자들은 밝혔다.

김 대표는 이에 "야당이 갈팡질팡하면서 아직 오픈프라이머리를 받아놓

은 게 아니다"면서 정치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에게 정개혁위의 조속한 합의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 김 대표는 내내 단호한 태도로 국민공천제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 참석 의원은 "야당으로 인해 오픈프라이머리 동시 도입이 안될 경우 우리 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공천제 기조를 살려 방식을 다소 달리한 방

안을 마련하는 것과 전략공천을 부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TF는 국민공천제가 흔들리지 않고 추진되도록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참석자는 "현재 나오고 있는 문제제기는 구체적 방안을 도출할 때 반영이 가능하다"며 "의총에서 가부에 부쳐도 국민공천제가 철회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eriwhat@news1.kr

북부 보스톤 한인 연합감리교회

추계 부흥회

인생의 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당신을 초대합니다

배달관인교회 담임목사
김형도

9월 25일 (금) 저녁 7시 30분 ~ 11:4 아벨 - 예레
 9월 26일 (토) 새벽 6시 ~ 11:5 예녹 - 동영
 9월 26일 (토) 저녁 7시 ~ 11:7 노아 - 상속자
 9월 27일 (주일) 1부 8시 ~ 11:8-12 아브라함(1) 갈바를 모를 때
 9월 27일 (주일) 2부 11시 ~ 11: 17-19 아브라함(2) 시험통과
 (주일) 오후 3시 30분 정복의 히 11:23-27 모세 - 아무것도 안보일 때



서울설렁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다가오는 봄,
서울설렁탕의 파전,
족발, 보쌈, 수육과 함께
가족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렁탕
Seoul Seolryeongtang
서울설렁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SEUL
Seoul Seoul
서울 on Beacon Hill
155 Cambridge St, Boston
617.873.8880
SeoulFoodBoston.com

Salon Sabrina 헤어스타일리스트 영

염색과 파마로 손상된 머리결을
복구시켜 드립니다



전자 모락 트리트먼트

대상	목적	부담금액
남자컷	25볼부터	25,000원
여자컷	30볼부터	30,000원
파마	70볼부터	70,000원
디지털	130볼부터	130,000원
케라틴	220볼부터	220,000원




남자컷 25볼/여자컷 30볼/파마 70볼 부터
디지털 130볼 부터/케라틴 매직 220볼 부터 시작합니다.

경력 압구정 김영남 미용실, 롯데호텔 마리 미용실, 송내 부천 박준 오픈 스텝
뉴욕 Fox헤어 스튜디오, SALON LOFTS sunny 운영

617.947.6840

25 church St. Watertown MA

Hammond Residential

Real Estate

The Word Is Out...
No One Markets Like Hammond

집을 사고 팔때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어렵게 생각마시고
지금 연락주세요!

Kalin Bae (배경은)
617-981-1542
kbae@HammondRE.com

Uni Joo (주윤희)
508-641-8924
ujoo@HammondRE.com

40 Grove Street, Wellesley 781.235.5115 • 506 Boston Post Road, Weston 781.893.4466

www.HammondRE.com • www.HammondMagazines.com • www.HammondVideos.com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BEST OF KOREAN RESTAURANT 2015

보스톤 보스

보스톤코리아가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실시하고 있는 보스톤 최고 한식당 응모에 참가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절찬리에 진행중인 응모에는 400여명의 독자들이 참가해 주셨습니다. 중간 집계결과, 약 4-5개의 한식당이 1위를 두고 치열하게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정의 변별력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고심끝에 보스톤코리아는 3주간 응모기간을 연장키로 했습니다. 응모자 여러분의 넓은 양해를 구합니다. 이와 더불어 상품도 대폭 늘렸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응모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보스톤 한식당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푸짐한 상품

1등상 1명
한국 왕복 비행기표



2등상 3명
애플와치 | 쿠쿠밥솥
Tbo 1년 시청권



3등상 10명
최고로 선정된
음식점 상품권
각 1매(25불)

후원: KFood with
BRICKPOP
Get WHOLE. SOME
Saint
AUGUSTIN
ASIAN CUISINE

KFood with
수불
새라연

 보스톤 한인회
뉴햄프셔 한인회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국

보스톤 최고의 한식집을 선정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독자들이 선정한 최고의 한식 식당

투표 마감 연장

10월 9일 응모 마감
(9일자 우편소인까지 유효)

한식당 명단 (총 45업소)

- | | |
|-----------------|------------------|
| 가든하우스(로렌스) | 산수갑산(벌링톤) |
| 가주순두부(올스톤) | 서울설령탕(올스톤) |
| 가주순두부(케임브리지) | 서울 레스토랑(보스톤) |
| 가유가(올스톤) | 수라상주문음식(앤도버) |
| 뉴장수갈비(벌링톤) | 조조순두부(케임브리지) |
| 다모여(보스톤) | 아리수 레스토랑(레먼스터) |
| 다빈(렉싱턴) | 야수(브루클라인) |
| 다오라스시(브락톤) | 영차우루(벌링톤) |
| 리틀부산(메이나드) | 오빠스시(올스톤) |
| 메주(서머빌) | 우리(알링톤) |
| 명동일번지(올스톤) | 우전(벌링톤) |
| 미나토 스시 | 우정식당(에이어) |
| 미소노(브루클라인) | 웨스트보로한국식당 |
| 미스터 스시(알링톤) | 이가그릴(로렌스) |
| 미스터 스시(브루클라인) | 제이피시푸드카페(보스톤) |
| 본촌(올스톤) | 청기와 레스토랑(메드포드) |
| 본촌(케임브리지) | 코리아나 레스토랑(케임브리지) |
| 북경반점(올스톤) | 코리언그릴(퀸지) |
| 북경반점(서버빌) | 하나스시(케임브리지) |
| 비빔(올스톤) | 한국가든(올스톤) |
| 사무라이(보스톤) | 한마루(올스톤) |
| 사뽀로(뉴튼) | 젠320(브루클라인) |
| 사뽀로스시바베큐(웨스트보로) | |

혹 빠진 곳이 있으시면 저희 보스톤코리아(617-254-4654)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식당 명단 중 2개를 골라 공모 용지에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응모는 10월 9일(9일자 우편소인)까지 마감합니다. 응모자 중에서 1명을 선정해 한국왕복 비행기표를 드립니다. 또한 2등 당첨자 각1명에게는 애플와치 및 쿠쿠밥솥을 드리며 3등 당첨자에게는 최고로 선정된 음식점 상품권 1매(25불)를 10명에게 드립니다. 독자들의 투표로 선정된 한식당에는 보스톤코리아 독자 선정 최고의 한식당 증명서를 증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투표는 1인 1투표를 기준으로 하며 중복투표는 불가합니다.

베스트 한식당 선정 및 경품 신청서

선정 한식당 1:
선정 한식당 2:

응모자 정보 기입란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한식당 중 2개를 골라 신청 용지에 적어서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보스톤코리아: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중복 투표는 불가하며, 응모는 9월 18일(18일자 우편소인)까지 마감합니다.

민간인회  민주 평통 보스톤지역 협의회

 뉴잉글랜드 시민협회

한국 학교  재미 한국학교 뉴잉글랜드지역 협의회

 보스톤 재향 군인회

성양푸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Andrew's Double-Liu Boston Korean Church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 양푸안 다블뤼 한인성당은
새입교자를 위한 교리반이
개설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등록 하실 수 있습니다.

미사안내

주일미사:
10:00 am (영어)
11:30 am, 4:30 pm (한국어)

평일미사:
화요일 10:30 am (한국어)
목요일 7:30 pm (한국어)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85
office.kccb@gmail.com
www.stdaveluy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교회살을 노래하는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당목사 유 경 열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BOSTON GRACE PRESBYTERIAN CHURCH

7 CLEMATIS ROAD, LEXINGTON, MA 02421
(In the Trinity Covenant Church)

Grace Bible: 수요일 저녁 7:30 | 주일 예배: 오후 2:00 | 금요 기도회: 저녁 7:30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기쁨으로 드림 (딤후 2:15)

담당목사: 우시창
교회 (781) 715-0571 • 팩스 (781) 645-0407
http://bostongracechurch.org

가나안 부동산 손득한
Broker/Master of RE
www.canaanre.com

부동산 투자 / 아파트 렌트
주택 매매 / 비즈니스 매매

161 Harvard ave, Suite 2, Allston MA 02134
617.290.0623 | son2323@gmail.com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당목사: 권중상
Faith Theological Seminary, M Div.
New York Univ. M.E.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총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2시
전도인 공부	오후 4시
화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역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ittleton, MA 01460 Tel: (978) 696-3293, (978) 844-2404
www.lovefirstchurch.com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동부: 오후 2시 |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당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9

골프 레슨

US GTF 최성조 프로
UNITED STATES GOLF TEACHERS FEDERATION
— Leader in the Field of Golf Instruction —

Master Golf Professional | US 티칭 프로
Certified Course Examiner | 공인 코스 심사요원
sj.usgtf@gmail.com

857.600.6755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문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은유.. 인내.. 사랑.. 용납..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 금 오후 8:00
새벽예배 :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보스톤에는
보스톤코리아가
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보스톤코리아는
보스톤 언론으로서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항상 공정하고 바른 길을
걸도록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십시오.
앞으로도 보스톤 한인
역사를 공정하게 기록하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617.792.6876
bostonkorean@hotmail.com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파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토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보스턴 한미예술협회 주최

문태국

2014 파블로 카잘스
콩쿨 우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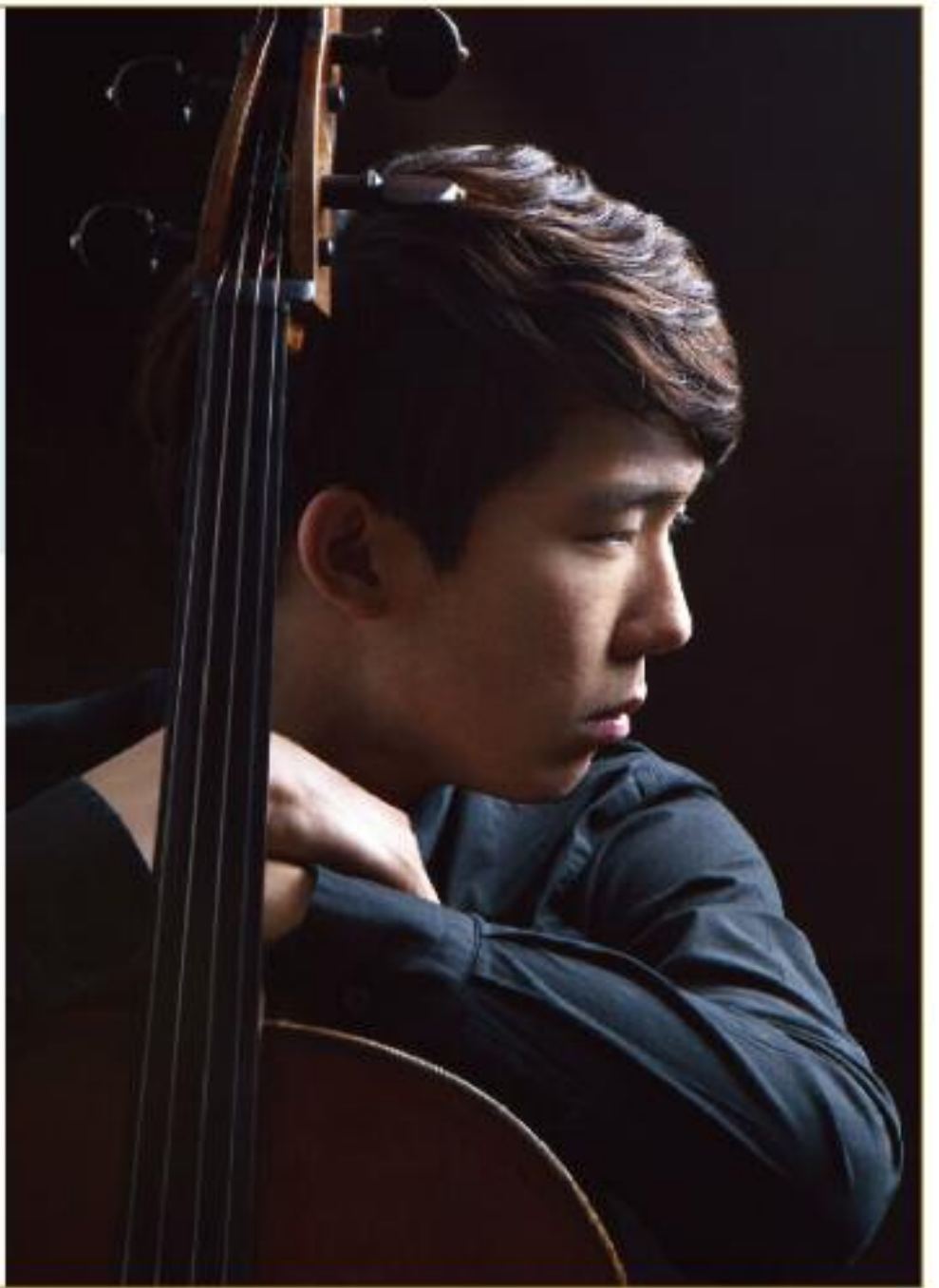
첼로 리사이틀

피아노 김상영

슈베르트, 드뷔시, 풀랑, 쇼팽

10월 16일 금요일 오후 8시
St. Paul's Episcopal Church
15 St. Paul Street, Brookline, 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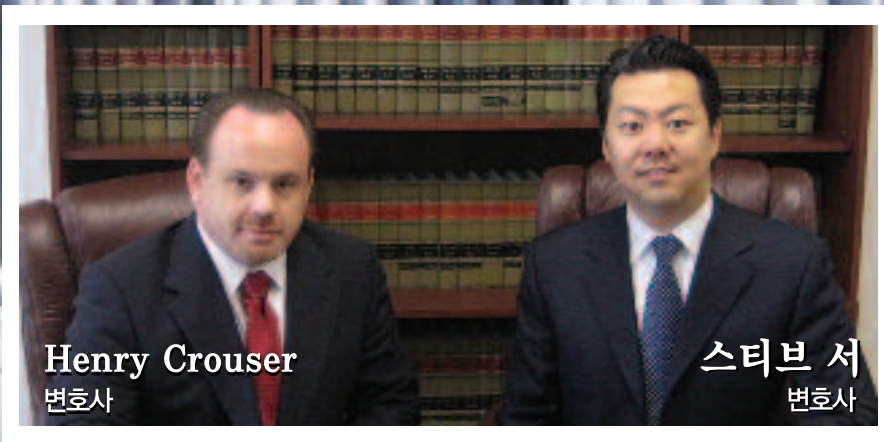
일반 \$25, 학생 \$10 | www.kcsBoston.org/781-223-4411



크라우저 앤서 로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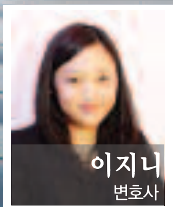
MIAMI – BOSTON – D.C.

이민법 / 국제법 전문 로펌 Specializing in Immigration / International Law



Henry Crouser
변호사

스티브 서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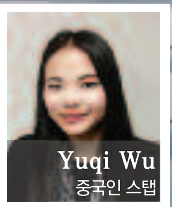
이지니
변호사



이소영
변호사



광보나
변호사



Yuqi Wu
중국인 스태프



박재영
사무장

전문 분야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원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기자 비자(O-1, P-1)
- 취업이민 (EB-2, EB-3, EB-4)
- 종교비자 (R-1)
- 투자이민 (EB-5)
- 투자비자 (E-2)
- 교수 및 연구직 (EB-1, NIW)
- 가족초청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재판

VISIT US AT :
www.stevesuh.com / www.suhlawayer.com

Crouser & Suh PLLC

251 Harvard Street Suite 6, Brookline, MA 02446

Tel: 617.566.7979 Fax: 617.566.7982

Email: info@stevesuh.com



전 미주 지역의 Network과 Teamwork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과 New Star 부동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주 40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억불의 매출실적 / 20여 개의 대우지사 / 한국 및 캐나다 자회사



백영주
617-921-6979



Kwang O Kim
617-792-8615



Joanne Song
617-797-3562



Sue Rong Tsai
617-792-8842



Yukai Sun
860-830-8599



Thomas Park
617-880-9790



이제봉
781-654-5281



애나 정
617-780-1675



최진민
617-877-0387



Ritika Chopra
617-697-1191



Michael Yun
617-459-5985



OT Kim
617-620-8242

단독주택 Single Family



\$629,000
Sharon, MA
4 Beds, 2.5 Baths, 2416 sf.
New HVAC system 2015
New Roof 2007, 좋은 학군
이현주 401-935-3397



\$629,900
Sharon, MA
4 Beds, 2.5 Bath, 2436 sf.
새집보다 좋은 집
편리한 교통, 좋은 학군
이현주 401-935-3397



\$399,000
Sharon, MA
4 Beds, 2 Baths, 1410sf.
플레이 룸, 오피스가 있음
많이 업그레이드 된 집
이현주 401-935-3397



\$739,000
Wellesley, MA
3 Beds, 2 Baths, 1656 sf.
Great Location!
조용한 주거환경, 좋은 학군
제니스 리 978-806-6023

단독주택 Single Family



\$599,000
Bedford, MA
3 Beds, 2 Baths, 2238 sf.
Quiet and nice place to live
Gina Choi 978-866-3248



\$325,000
Framingham, MA
3 Beds, 1.5 Baths, 1452 sf.
Excellent location
Gina Choi 978-866-3248



\$1,399,000
Lexington, MA
5 beds, 3.5baths, 4050 sf.
Maintained 2012
Top notch construction
OT Kim 617-620-8242



\$519,000
Tewksbury, MA
4 beds, 2.5 baths, 2958 sf.
Cul-de-sac 에 위치
편리한 교통
Kwang O. Kim 617-792-8615

단독주택 콘도 Condominium



\$569,000
Wilmington, MA
3 Beds, 2.5 Bath, 3100 sf.
편리한 교통, 관리가 잘된 집
Anna Jung 617-780-1675



\$949,900
Arlington, MA
5 Beds, 3.5 Bath, 3498 sf.
Quiet Cul-De-Sac
Anna Jung 617-780-1675



\$580,000
Boston, MA
1 Bed, 1 Bath, 709 sf.
Luxury condo
Jay Lee 781-654-5281



\$318,000
Hopkinton, MA
2 Beds, 2.5 Baths, 1651 sf.
좋은 가격의 깨끗한 콘도
Michael Yun 617-459-598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한국프렌차이즈 가맹주
모집
Call for detail
S.J Park 617-304-7001

Condo-Townhouse
\$273,900
Maynard, MA
2 Beds, 1.5baths, 1930sf.,
Anna Jung 617-780-1675

Condo Rental
\$2,700
Boston, MA
1 Bed, 1 bath, 709sf.,
Jay Lee 781-654-5281

Restaurant
\$275,000
Boston, MA
5년된 샌드위치 스토어
Jay Lee 781-654-5281

Restaurant
\$130,000
Cambridge, MA
High traffic main road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음
Sue Rong Tsai 617-792-8842

Condo Rental
\$2,900
Lexington, MA
3 Beds, 2 baths, 1400sf.,
Janice Lee 978-806-6023

Condo Rental
\$1,600
Acton, MA
2 Bed, 1 bath, 820sf.,
Gina Choi 978-866-3248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www.BostonNewStarRealty.com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969.4989 Fax. 617.969.4959
www.NewStarRealty.com

Agent 모집합니다. 781.259.사구팔구 617.969.사구팔구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40 Wall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www.BostonNewStarRealty.com
www.NewStarRealty.com

미국 최대의 한인 부동산 그룹 / 2008년 10월 / 2009년 10월 / 2010년 10월 / 2011년 10월 / 2012년 10월 / 2013년 10월 / 2014년 10월 / 2015년 10월



김형진
781-956-0409



박성종
617-304-7001



Hazel Seung
617-895-7676



Shell Yu
781-526-2416



제니스 리
978-806-6023



신보경
508-361-6064



Claudia Lee
617-817-사구팔구



이현주
401-935-3397



Gina Choi
978-866-3248



Sara You
617-899-3566

Restaurant  \$350,000 Cambridge, MA Center of Harvard Sq. Including Liquor license 3400 sf. Capacity of 120 people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275,000 Boston, MA 5년된 큰 샌드위치 스토어 Great potential to grow Jay Lee 781-654-5281	Full Plant Cleaner  \$180,000 Salem, MA Salem Downtown Turnkey Business Kwang O. Kim 617-792-8615	Restaurant  \$499,900 Brookline, MA Coolidge Corner 전철역 근처 Restaurant w/ Liquor 5000 sf. 180 인석 Anna Jung 617-780-1675
Business Consulting  레스토랑 셋업 컨설팅 SJ Park 617-304-7001	Commercial  커머셜 건물 투자 S.J Park 617-304-7001	비즈니스 빈자리  센트랄 sq., 하버드 sq. 올스톤, 뉴튼 센터 S.J Park 617-304-7001	병원건물  \$860,000 Worcester, MA 6552 sf., 38대 주차공간 Umass Memorial 병원 옆 Anna Jung 617-780-1675
Coin Laundry  \$55,000 Brookline, MA Drop-off and coin laundry Good location for business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199,900 Newton, MA Korean-Japanese Restaurant Sushi bar and liquor license Anna Jung 617-780-1675	Sushi Bar  \$90,000 Newton, MA Good Location 성장 가능성 많은 비즈니스 Anna Jung 617-780-1675	Full Plant Drycleaner  \$19,000 Norwood, MA 40 lbs Washing Machine 넓은 주차공간 Anna Jung 617-780-167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Restaurant \$290,000 Somerville, MA Famous Restaurant, As-is SJ Park 617-304-7001	Restaurant \$440,000 Boston, MA Well-Established, As-is SJ Park 617-304-7001	Restaurant \$2,600,000 Dedham, MA Legacy Place Center Sue Rong Tsai 617-792-8842
Restaurant \$490,000 Boston, MA 발전가능성이 많은 비즈니스 SJ Park 617-304-7001	Full Plant Cleaner \$260,000 Chelmsford, MA Chelmsford downtown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198,000 Cambridge, MA 하버드 스퀘어에 위치 Anna Jung 617-780-1675	APT Rental 보스톤 아파트 전문가! 가격, 지역, 방 갯수 등 원하시는 조건에 맞추어 찾아 드립니다. David Kim 781-956-0409



최고의 실력과 탄탄한 경력을 갖춘 에이전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곧 전화하세요 !!!

오빠스시 OPPASHUSHI
www.oppasushi.com

사시미:
상징한 영어와 혼마구로 참치, 방어, 흰푸나, 레드스네어, 생굴과 생우니, 한치의무침과 배운양까지

스시와 롤:
상징한 영어 혼마구로 참치, 스프리시 셀론, 히마케, 장어, 생우, 오징어 등등

**사시미 토크코스
김밥**

안녕하세요 교민여러분,
얼스톤에 위치한
저희 오빠스시에서
싱싱하고 맛있는 사시미와
스시, 롤과 김밥을
365일 캐더링
예약 판매합니다.
각종모임에 애용바랍니다.

617-202-3808 • 18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한인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이민법 전문 변호사



스티브 서

비자 / 영주권
투자이민/취업이민
Lawcity7@gmail.com

617-877-3435

www.Stevesuh.com

Vol. 11 No. 38 September 25 2015

한인들과 함께하는 좋은 신문 Bostonkorean@hotmail.com

발행처 :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한진택배 HANJIN EXPRESS
HANJIN EXPRESS
보스톤 대리점

Tel 617.782.2424
175 Harvard Ave St14A, Allston, MA

업소탐방 305

참존의매력을 느껴보세요!

제시카 뷰티(Jessica Beauty)

제시카 뷰티

1219 Quincy Ave #31, Quincy, MA
전화: 857-272-6699

연타비 7기 100% HD 블루TV로 Play!로 새로 도입합니다. 더 좋은 서비스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Welcome, **7HD** 한국 방송 3사 케이블 TV 무제한 시청

언한 한국 방송 언한 시기에
내마음대로 무한대로 시청하다

티보 플레이만의 특별한 장점

화질을 비교해 보세요
HD TV의 선명한 화질

YTN 과 아리랑 방송 24시간 실시간 방송 시작!
라이브 생방송도 즐기고 원하는 시간에 무한대 시청도

방송3사와 케이블 합법 계약
공급업이 티보를 시청하세요

무제한 시청 월 \$39.99
(2년 약정시)
시내 가입자의 경우 월\$29.99

617.955.9112
지금 연락하세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퀴지 감만(Kam Man) 마켓 안에 위치한 한국 화장품 참존(Charm Zone) 전문매장 '제시카 뷰티'의 김 제시카 사장은 어느 누구보다 참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김 사장은 4년전 우연히 감만 마켓에서 참존 직원에게 받은 샘플을 사용한 후 참존의 매력에 빠져 참존 매장을 차려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김 사장의 일에 대한 열정적인 모습과 참존에 대한 자부심은 김사장의 자신감의 원동력이다.

김 사장은 외면보다는 내면을 우선순위로 하는 논리를 똑같이 인생과 화장에 적용하고 있다. 김 사장이 참존과 인연을 맺게 해주었던 샘플은 바로 참존의 최고 인기상품이자 참존 피부 과학의 결정체인 참인셀(Charm In Cell)이다.

참인셀은 영어 번역으로 '세포(Cell) 안에(In) 참존(Charm Zone)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의미이다. 참인셀은 토탈 케어를 공급해주는 피부에 있어선 만병통치적인 제품이다.

참인셀은 피부겉 부분 보다 피부속 깊이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의 기능을 살려 마치 신생아 때의 피부와 광택을 소생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참

인셀은 오랜 시간 약학적으로 연구해온 결과 탄생된 제품이기때 김 사장은 참인셀을 '보약'이라고 부른다.

김 사장은 "참인셀은 천연 성분들이 사용되어 피부속부터 정화 되는 것을 바로 바로 느낄 수 있다"며 '피부속에서부터 다시 태어나는 느낌'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김 사장은 "참인셀을 사용하면서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기분이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아침에 일어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아름답다고 느끼고 싶은 여성들에게 참인셀이 길이다"고 전했다.

제시카 뷰티의 손님들은 주로 동남아, 태국, 베트남, 중국은 물론 백인까지 동서양 모든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참존은 아무나 사용할 수 없다"며 "준비된 사람들만 사용하게 된다"고 전했다.

김 사장은 정직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피부에 맞지 않다면 돌려주며 억지로 제품을 권하지 않는다. 김 사장은 손님에게 하나 하나 설명해 가면서 손님의 피부와 매일 변화하는 모습을 함께 배워가고 있다.

제시카 뷰티의 영업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저녁 8시 30분까지며 일요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이다.

jham@bostonkorea.com



지구촌방주교회
Global Ark Baptist Church

2015 출애굽기 시리즈
주일에배 1PM, 담임목사 유영일

bgabc.org
홈페이지에서 설교, 찬양 영상 영어 설교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493 Main St. Malden, MA 02148
TEL: 617.838.6434
global ark baptist church in malden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보스톤코리아 업소탐방

신청 방법:
전화번호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오리엔트 여행사
Orient Travel

617.536.8888
myorienttravel@gmail.com
theorienttravel@yahoo.com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한인들과 함께 하는 좋은 신문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현재 한인업소록의 각종 전화번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혹 누락된 번호가 있으면 617-254-4654나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즉각 반영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견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제청	800-829-1040
날씨문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배지역	617-345-7958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수도	617-989-7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경찰서	617-641-2830
사우스익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음/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허	617-351-4500
텔레어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정신청(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대한여성선교연합회	978-407-7554
국제대한여성선교연합회	603-899-8201
뉴잉글랜드공공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연구회	978-902-8305
NE교육자협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신약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변대전우회	617-833-1360
대매사추세츠태권도협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통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교과기술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원인협회	508-826-5270
이북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연합회	781-424-5269
FA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언어이동학회(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북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 신약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신약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랑	774-270-1948
서경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대학교동창회	
성공관대동창회	802-734-2521
영정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든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람교회	781-439-18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든교회	617-792-8780
그레이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람교회	781-439-1840
내슈아한미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장로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4000
리생명의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밀알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한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781-715-0571
보스톤 새로남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톤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톤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성령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톤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톤신실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레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여우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6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2362
에이이 베델교회	978-274-3359
엠펙스트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엠펙스트 시온교회	413-549-9200
올스톤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워싱턴프린터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617-818-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영교회	978-390-6613
지구촌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켄싱턴장로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회	401-499-8258

간판

조이스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톤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김민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핑사이드 침문	617-999-9616
이블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한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개인

골프레슨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티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류영욱)	617-777-2929
이중지리	781-591-2722
이종수파이낸스	617-799-6158

냉동/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도레미노래방	617-783-8900
진 노래방	617-782-9282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올스톤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분수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재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김 동물병원	978-658-5282

떡/잔치/반찬

형제떡집	978-975-3303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커파티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파티어	617-331-1011
단오 헤어샬롱	617-413-4560
뷰티풀 헤어샬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알구정동열굴방	617-438-0378
웨스트메인헤어	508-734-0446
티케이헤어디자인	508-768-7675
프루페셔널헤어디자인	978-272-7886
헤어 스크린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희희헤어(Bless Image)	617-818-5596
헤어앤드그레이스샬롱	508-879-7777

돌상 대여

해피돌상	617-583-2339
------	--------------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업국	617-955-9112
-----------	--------------

변호사

김성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중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지 변호사(미인법)	203-852-9800
윌드랜드/엑커맨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트뱅크(이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사무라이	617-236-7672

김자향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아헤일리케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사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정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구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윤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환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617-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뷰티	617-871-1482
퀸지스아치과	617-471-2184
퍼스트우치스덴탈그룹	781-894-1127
프롬펙트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애교정치과	781-894-1127
아이코덴탈	781-86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신문) ▶수표 보내주실 곳: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혜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세탁소에서 프레스 구합니다. 네틱지역. T. 508-655-5004

웨이터, 웨이추레스 구합니다. 케임브리지 초초스 T. 617-792-5497

레딩에 있는 폴리쉬드네일샵에서 함께 일할 자격증 소지자 구합니다. T. 978-898-7953, 603-401-1581

하버드스퀘어 드롭스토어 매니저, 테일러, 뒷일, 카운터 오후 파트타임. (학생환영) T. 617-233-0779

세탁소 구인

카운터, 프레스로 일하실 분. 브룩클라인, 자메이카 플레인 무경험자 환영, 경험자 우대
연락처. 617.216.2703

우스터지역 세탁소에서 일하실분. 카운터 및 배킹, 프레스 도와주실 분. T. 508-735-3136

캠스포드 지역 세탁소에서 프레스 2명 /테일러(영어 가능) 구함. T. 603-401-0113

린 세탁소에서 수선하실 분, 프레스와 헬퍼 구함. T. 617-840-1833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하우스 매매

웨스트우드(Westwood) 4베드룸, 3 배스, 1층 랜치. 조용하고 아주 좋은 위치 1.3에이커의 대지. 32Meadowbrook.com 가격 \$749,000
리맥스 홈팀 617-933-9778

N [그로서리 매 매]
그로서리 매매코져 합니다 Hot Food, 델리, 샌드위치 포함 월매상 \$60,000 이상 월 - 금 까지 OPEN 단독건물입니다 리타이어로 급매코져 합니다. T. 501-753-1691

N [매 매]
마사지가게를 매매코져 합니다. 테네시주 75번 선상 56가. 트럭스탑옆에 있음. T. 404-820-4525, 423-568-2150

N [급 매]
콜롬버스 조지아 지역 옷수선, 컴퓨터자수 드라이크리러 픽업 10만불 - 5만 9천불로 조정 T. 706-330-1978

N [구 인]
조지아 애틀란타에 있는 신세계 Cafe&Bar에서 여자 바텐더를 구함. 가장 좋은 조건에서 일할수 있음. (커미션지급) 한인상권 중심지, 단골손님 많음. T. 917-535-5409

N [노래방구인]
버지니아지역 가족같이 일하실분 숙소제공(깨끗한 숙소) T. 703-937-7798

JANE'S SALAD & BUFFET

**SERVING
SUSHI, SALAD & ASIAN FOOD**


781-698-5227, 617-204-1053

274 FRANKLIN ST., BOSTON, MA 02110



4089 부동산매매는 —————
뉴스나부동산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Get Educated. Do More. CLASSES STARTING SOON! 888.873.5082



CSI is the perfect choice when it comes to studying in the United States. CSI is ranked by SEVP as one of the top five F-1 and M-1 approved schools with the largest popula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Whether you are trying to apply for a student visa or transfer from another school, CSI can help.

CSI가 다른 학원들과 다른 특징 ?

- 저렴한 학비
- 인턴십을 통한 CTP획득 기회
- 영어 프로그램 공식 여름 방학
- 국제 학생입학 : 해외 학생들의 비자변경, 학교 편입을 도움

ESL Programs - \$3600 per year
English Programs - \$4200 per year
Skill Building Programs - \$4700 per year
*Books and supplies not included in tuition

COMPUTER SYSTEMS INSTITUTE
esi.csinow.edu

CAMPUS LOCATIONS
Chicago • Skokie • Lombard • Gurnee • Elgin
Charlestown/Boston • Worcester

Computer Systems Institute is approved by the Division of Private Business and Vocational Schools of the Illinois Board of Higher Education and is authorized under federal law to enroll nonimmigrant alien students. Student visa and work authorization are issued to those who qualify.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graduation rates, the median debt of students who completed the programs, and other important information, visit our website at: http://www.csinow.edu/about-us/consumer-information. Program offering varies by campus. Tuition rates effective as of 5/1/14.



'검은 사제들' 위험 속으로 향하는 두 남자

(서울=뉴스1스타) 명희숙 기자 = 영화 '검은 사제들'(감독 장재현)이 티저 포스터를 공개했다.

18일 배급사 CJ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검은 사제들'은 오는 11월5일 개봉을 확정짓고, 주연 배우들의 티저 포스터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티저 포스터는 사제로 변신한 김윤석, 강동원의 새로운 모습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로만칼라의 사제복을 입고 선 두 사람. 모두의 반대와 의심 속에서 고통 받는 소녀를 구하기 위해 나서는 '김신부' 역의 김윤석은 기도서를 들고 단호하지만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는 모습만으

니다"는 카피를 통해 미스터리한 사건에 맞서 이들이 펼쳐나갈 이야기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고조시킨다. 또 이번 포스터는 그동안 아귀, 엄중호, 마카오 박 등 관객들의 뇌리에 잊을 수 없는 강렬한 캐릭터를 완성해 온 김윤석의 새로운 선 굵은 연기, 매 작품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통해 스펙트럼을 넓혀온 강동원의 전에 보지 못한 특별한 변신을 예고해 눈길을 끈다.

이렇듯 가장 위험한 곳으로 향하는 두 사제로 변신한 김윤석, 강동원의 강렬한 연기 시너지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이번 티저 포스터 공개로 영화 '검은 사제들'에 대한 관심

'디데이' 영화보다 쫄깃한 블록버스터

(서울=뉴스1스타) 명희숙 기자 = '디데이'가 베일을 벗었다. 전초전에 불과했지만 서울 대지진의 서막이 올랐고, 촘촘한 스토리 라인과 화려한 CG가 기대감을 자아냈다.

18일 저녁 8시30분 첫 방송된 JTBC 새 금토드라마 '디데이'(극본 황은경/연출 장용우) 1회에서는 재난의 징조가 곳곳에서 포착되는 서울의 모습이 그려졌다.

미래병원을 중심으로 향후 응급상황에서 활약하게 될 DMAT와 구조대들의 하루가 조명됐다. 응급환자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의사 이해성(김영광 분)은 의료분쟁으로 인해 법정에서 앓음에도 다시 응급환자를 맞이하는 모습을 통해 이후 재난 상황에서 보여줄 캐릭터를 짐작하게 했다.

정팔미(정소민 분)는 부산에서 환자 이송을 위해 서울 미래병원으로 향했다. 그는 한 우진(하석진 분)과 안면이 있었고, 그를 병원서 만나려 했으나 보지 못한채 발길을 돌렸다. 하지만 우연히 사고를 목격하고 응급전문 간호사 박지나(윤주희 분)에게 요청을 받아 다시 미래병원으로 향했고, 환자의 기흉 처치를 하지 못해 이해성으로부터 비난을 듣기도 했다.

반면 박지나는 간호사의 신분으로 기흉을 처치해 사표를 내야 했고, 이해성과 술을 마시며 처지를 위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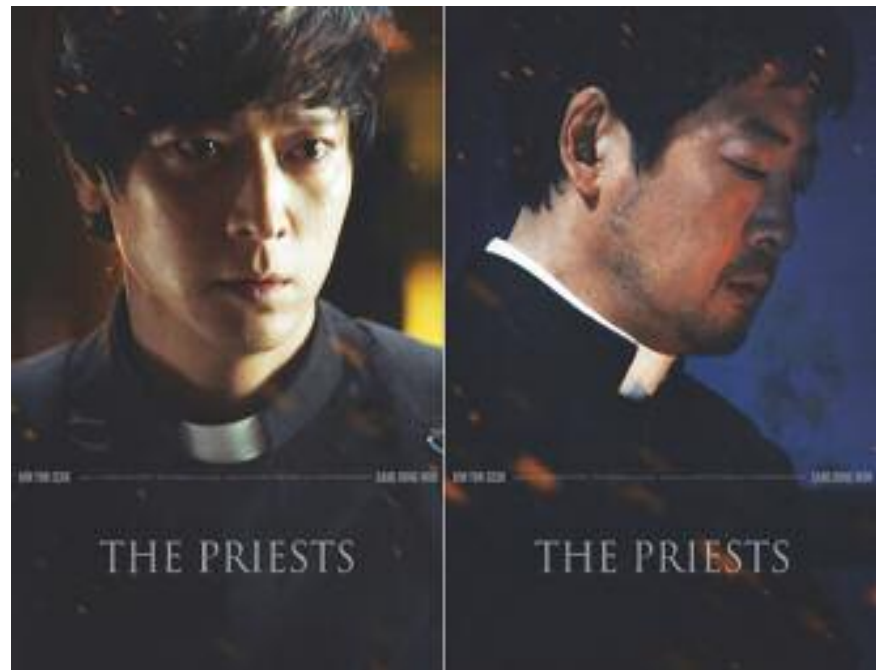
그 시각 서울 도심에 재난의 징조가 포착됐다. 개미 등 곤충들이 이상행동을 보였으며 갑작스럽게 식당 천장이 무너졌다. 이로 인해 연쇄 사고가

벌어졌고, 서울 도심은 화재와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시민들은 혼란에 빠졌고, 재난의 서막이 올랐다.

150억 대작의 '디데이'는 긴박한 지진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묘사와 디테일한 CG처리로 긴장감을 높였다. 또 김영광, 정소민, 하석진, 차인표, 이경영, 김혜은 등 얹히고 얹힌 인물들간의 관계가 1편을 통해 세밀하게 표현됐고, 지진 상황 이후 캐릭터들의 관계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베일을 벗은 '디데이'는 기대 이상으로 잘 만들어진 재난 메디컬의 열개를 완성했고, 첫 편부터 시청자들의 시선을 끌 어당기며 다음 이야기에 대한 기대감을 자아냈다.

reddgreen35@news1.kr



로도 압도적인 무게감을 보여준다. 그리고 '김신부'의 부사제가 돼 그를 돕는 미션을 받지만 그와 사건에 대한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는 '최부제' 역의 강동원은 불안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향로를 들고 선 모습이 강렬한 궁금증을 자극한다.

피어 오르는 향로 연기 속, 소녀를 구하기 위해 나선 두 사제의 모습을 담은 이번 포스터는 "가장 위험한 곳으로 갈 준비가 되었습

과 열기가 한층 뜨거워질 것이다.

김윤석, 강동원의 만남 그리고 새로운 소재에 과감히 도전한 신인 장재현 감독의 연출로 기대를 모으는 '검은 사제들'은 기존 한국 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소재와 장르적 시도를 통해 신선하고 독창적 재미를 갖춘 새로운 스타일의 영화로 관객들을 찾을 것이다.

reddgreen35@news1.kr

안성기부터 손현주까지, 막강 캐스팅 '사냥'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사냥'이 촬영의 시작을 알렸다.

21일 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영화 '사냥'(감독 이우철)은 캐스팅을 마치고 지난 13일 경기도에서 첫 촬영에 돌입했다.

'사냥'은 마을에서 우연히 발견된 금맥을 독차지하려는 업사 무리와 이들을 저지하려는 사냥꾼 기성의 긴박한 추격전을 그린 영화로 사냥꾼을 소재로 한 신선한 설정과 한 시도 눈을 뗄 수 없는 몰입감, 긴박 감 넘치는 산속 추격전은 물론 배우들의 폭발적인 연기 변신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믿고 보는 연기파 배우 안성기, 조진



웅, 한예리, 권율 그리고 손현주 등이 출연한다.

안성기는 "드디어 오늘에야 촬영에 들어가게 됐다. 아주 기분이 좋고 앞으로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동안 준비도 많이 했고, 기대가 크다. 이번

촬영은 액션 씬이 많고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서로 즐거운 마음으로 임했다면 좋겠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전하며 영화에 대한 기대를 한층 높였다.

aluem_chang@news1.kr

'무한도전' '비긴 어게인' 더빙 도전, 주인공 오디션도 치열

(서울=뉴스1스타) 온라인뉴스팀 = '무한도전' 멤버들이 추석특선영화 '비긴 어게인' 더빙에 도전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멤버들 중 누가 주인공 역할을 맡았는지 관심이 뜨겁다.

MBC '무한도전' 여섯 멤버들은 오는 29일 밤 11시10분 MBC 추석특선영화로 방송되는 '비긴 어게인'의 더빙을 맡았다.

영화 '윈스'로 잘 알려진 존 카니 감독이 2014년 만든 영화 '비긴 어게인'은 키이라 나이틀리와 마크 러팔로, 애덤 리바인이 열연해 OST까지도 크게 인기를 끌며 지난해 하

반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음악 영화 중 하나다.

애니메이션 더빙을 제외한 실제 외화 더빙이 모두 처음인 멤버들은, '비긴 어게인'의 주인공 배역을 따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캐스팅 오디션에 참가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앞서 외화 더빙이라는 색다른 도전에 나선 멤버들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담긴 '무한도전'은 오는 26일 오후 6시 20분 방송된다.

star@news1.kr



한주간



시청률 순위

2015년 9월 14일 ~ 9월 20일

Nielsen Media TV 지상파 주간시청률

1	KBS1	일일연속극(가족을지켜라)	25.6%
2	KBS2	주말연속극(부탁해요엄마)	24.7%
3	SBS	드라마스페셜(용팔이)	21.2%
4	MBC	주말특별기획(내딸금사월)	18.2%
5	KBS1	KBS9시뉴스	16.8%
6	MBC	주말드라마(엄마)	15.6%
7	MBC	무한도전	14.9%
8	KBS2	해피선데이	13.9%
9	MBC	일밤(복면가왕, 진짜사나이2)	13.7%
10	SBS	아침연속극(어머님은내며느리)	13.6%

Tbo Play 주간시청률

1	MBC	일일연속극(위대한 조강지처)
2	SBS	드라마스페셜(용팔이)
3	SBS	일일드라마(돌아온 황금복)
4	KBS2	TV소설(별이되어빛나리)
5	MBC	아침드라마(이브의 사랑)
6	SBS	SBS월화드라마(미세스캡)
7	KBS1	일일연속극(가족을지켜라)
8	KBS2	주말연속극(부탁해요엄마)
9	MBC	일일특별기획(딱너같은딸)
10	KBS2	일일드라마(다잘될거야)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01	취향저격	iKON
02	레옹	박명수, 아이유
03	그렇게 됐어	플라이 투 더 스카이
04	겁 (Feat. 태양)	송민호
05	갑소사	황태지
06	Dumb Dumb	Red Velvet
07	Lion Heart	소녀시대
08	스폰서 (\$ponsor)	뜨거파시
09	오늘부터 우리는 (Me Gustas Tu)	여자친구
10	오빠차	인크레더블

숫자 퍼즐 (Sudoku)

7	2	4		9		5		
		6		2		3		
		3	5				7	
5							9	
3				7				6
	4							3
	3				9	1		
		9		1		7		
		8		6		9	3	5

9월 27일 - 10월 3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반기운 소식을 듣고</p> <p>●운수: 기다리던 반기운 소식을 듣고 큰 힘이 되어줄만한 귀인이 있겠습니다. 배우자나 연인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설계할 때입니다. ●금전: 여러 면에서 상황이 호전되어갑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애정: 자신감을 가지고 다가가 보세요. 주위에서만 맴돌다가는 좋은 상대를 놓칠 수 있습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29, 2일 길일, 27, 30일 주의.</p>	<p>소띠 미루지 말고 추진해야</p> <p>●운수: 계획하는 일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추진하세요. 하고자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면 좋은 결과가 따를 것입니다. ●금전: 현상유지에 만족하도록 하세요. 크게 손해 보는 시기는 아니지만 큰 이익을 기대하기도 힘든 시기가 하겠습니다. ●애정: 상대 역시 호감을 가지고 있으니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서로의 감정전달이 잘 될 것입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30, 3일 길일, 28, 1일 주의.</p>	<p>범띠 몇 배의 노력을 기울여야</p> <p>●운수: 진정한 강자라면 약자를 끌어안아주어야 합니다. 특히 직원이나 아랫사람에게 관대한 태도로 대해야 하겠습니다. ●금전: 남보다 몇 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별다른 변화는 없지만 노력한 만큼의 재물이 들어올 것입니다. ●애정: 마음이 있으나 적당한 계기가 마련되지 않아서 망설이고 있군요. 시간을 가지고 서서히 진행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27, 31일 길일, 29, 2일 주의.</p>
<p>토끼띠 잠시 관망하도록</p> <p>●운수: 흑백을 분간하지 못해서 혼돈이 생기는 때입니다. 잠시 관망하도록 하세요. ●금전: 실속이 없을 것입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없다고 하듯이 계획은 크나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애정: 두 사람의 오랜 사랑이 점차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그리 쉽게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28, 2일 길일, 30, 3일 주의.</p>	<p>용띠 주어진 기회들을 잘 활용해야</p> <p>●운수: 가까운 사람에게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자신감을 얻으니 효과적으로 일처리를 하게 됩니다. ●금전: 주어진 기회들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남을 포용하는 때스러운 마음을 가질 때에 자신에게 이로움이 돌아옵니다. ●애정: 멀리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거나 찾아오는 사람이 있겠습니다. 내 마음이 평온을 찾아가면서 주위도 편안해집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29, 3일 길일, 1, 2일 주의.</p>	<p>뱀띠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되는</p> <p>●운수: 주위 사람들이 협조자가 되어주니 일의 성취가 쉬워집니다.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를 것입니다. ●금전: 발견하게 도움을 주는 운이 찾아옵니다. 좋은 문서도 손에 쥐게 되고 금전적으로 점점 나아질 것입니다. ●애정: 상대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색다른 매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28, 30일 길일, 29, 2일 주의.</p>
<p>말띠 항상 문제는 사소한 곳에서</p> <p>●운수: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확인하고 또 확인하도록 하세요. 항상 문제는 사소한 곳에서 비롯되는 법입니다. ●금전: 침착하게 일처리를 해야 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에 과욕을 부리지 마세요. ●애정: 자신이 유리하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상대를 휘어잡으려고 한다면 자기 생각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28, 1일 길일, 27, 3일 주의.</p>	<p>양띠 내일의 재산은 건강</p> <p>●운수: 일이 자꾸 지연되고 짜증나더라도 이미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유 있는 마음이 해결의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금전: 내일의 재산은 건강입니다. 재물을 얻고 건강을 잃는다면 부질없는 것이니 건강을 우선순위에 두도록 하세요. ●애정: 주위 사람과 편안한 관계를 지속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평소와 다름없고 온화했던 사람도 냉정해지기 쉽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7, 2일 길일, 1, 3일 주의.</p>	<p>원숭이띠 희망을 갖도록</p> <p>●운수: 희망을 갖도록 하세요. 잠시 어려움에 부딪쳐서 절망할 수 있지만 곧 회복하는 운세입니다. ●금전: 돈 관리에 각별한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특히 큰 거래는 심사숙고해서 진행시켜야 할 것입니다. ●애정: 상대의 마음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냉각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구태여 확인하려 애쓰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30, 3일 길일, 29, 2일 주의.</p>
<p>닭띠 정확하게 해두어야</p> <p>●운수: 법적인 문제나 문서와 관련된 일처리 등을 정확하게 해두어야 합니다. 성급하게 처리하면 오류를 범할 수 있으니 검토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금전: 본업에 소홀해질 수 있는 때입니다. 수입도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애정: 정을 배분하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정주고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9, 1일 길일, 27, 3일 주의.</p>	<p>개띠 기회를 잘 이용하면</p> <p>●운수: 두려워하지 말고 경험을 살리며 결국 자신에게 유리하게 풀릴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한번 밀리면 계속 밀리니 자신감으로 대처하도록 하세요. ●금전: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운세입니다. 지금 기회를 잘 이용하면 재물과 명예가 함께 들어올 것입니다. ●애정: 가까운 주위에 당신에게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대가 있습니다. 잘 살펴보세요. 94, 82, 70, 58, 46, 34년생은 27, 1일 길일, 28, 3일 주의.</p>	<p>돼지띠 서서히 선을 그어야</p> <p>●운수: 신중해야 할 상황과 급하게 서둘러야 할 상황이 번갈아가며 일어나는군요. 수면 부족이 제일 큰 적인 때입니다. ●금전: 책임질 수 없고 실행력이 없는 말뿐인 약속은 절대 하지 않도록 하세요. 금전 문제에 있어서 신용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애정: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과는 오래갈 수 있는 사이가 되지 않으니 서서히 선을 그으세요. 95, 83, 71, 59, 47, 35년생은 28, 3일 길일, 29, 2일 주의.</p>

'응답하라 1988' 메인포스터 공개, 촌티 작렬

(서울=뉴스1스타) 온라인뉴스팀 = '응답하라 1988'의 메인포스터가 공개됐다.

tvN '응답하라 1988' 측은 23일 공식 트위터에 " '응답하라 1988' 메인 포스터 공개! 쌍문동 다섯 가족이 사는 골목으로 초대합니다"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은 '응답하라 1988'의 메인포스터로 촌스러운 인물들의 패션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포스터에는 성동일, 이일화를 비롯해 해리, 박보검, 고경표 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누리꾼들은 "응답하라 1988 기대된다", "응답하라 1988 패션 왜 이렇게 촌스럽지", "응답하라 1988 촌티 작렬이네", "응답하라 1988 출연자들 정말 많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응답하라 1988'은 '응답하라' 시리즈 3번째 작품으로 올 하반기 방송 예정이다.

star@news1.kr



수지 이민호 결별설 사실무근

(서울=뉴스1스타) 온라인뉴스팀 = 수지, 이민호 양측이 결별설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민호 소속사 스타하우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22일 불거진 수지와 결별설에 대해 "이민호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수지와 여전히 잘 만나고 있다. 결별설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미쓰에이 수지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관계자 역시 "두 사람은 잘 만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말했다.

수지와 이민호의 열애는 지난 3월

해외에서 만나는 모습이 파파라치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알려졌다. 당시 양측은 호감을 갖고 한 달째 열애 중이라고 인정했다.

네티즌들은 "수지, 이민호가 결별설 사실무근이라잖아", "결별설 사실무근인데 왜 이런 설이 나왔을까", "수지, 이민호 커플 좋아하는데 결별설 사실무근이라 좋다", "결별설 사실무근 맞구나" 등 반응을 보였다.

star@news1.kr

김주하 앵커, 강용석에 돌직구 "나도 그렇게 보이냐?"

(서울=뉴스1스타) 온라인뉴스팀 = 김주하 MBN앵커가 강용석 변호사와 인터뷰 중 여자 아나운서 관련 발언을 언급했다.

지난 22일 방송된 MBN '뉴스8'에 출연한 강용석에 김주하는 "예전부터 궁금했던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아나운서가 되려면 모든걸 다 줄

준비가 돼야 한다고 하셨지 않냐?"라며 "그런데 나도 그렇게 보이냐?"고 물었다.

강용석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김주하 앵커는 여대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10여년간 이름이 오르지 않았냐"고 답해 눈길을 모았다.

한편 강용석은 지난 2010년 7월 국회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star@news1.kr



천지보살

운명사주궁합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XOOM energy SLP Inc. Xoom Partner

20~30%

전기요금이 National Grid와 Eversource보다 싸질 수 있습니다

이제 메사추세츠 주정부의 에너지 규제 강화로 인해 전기와 천연가스, 재생 에너지를 XOOM Energy를 통해서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XOOM Energy는 미국에서 가장 큰 에너지 Retailer로서 현재 미국 18개주에 있는 70유틸리티 구역안에서 비즈니스와 개인주택에 전기와 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SLP Xoom Partner 이선호 대표

더 자세한 내용은 www.xoomenergy.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781.266.7245

한국어 상담 : 이선호 지사장 / energy@acn-xoom.com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NCARB • CDT • LEED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New name for &TV

TBO PLAY RATINGS

티보 시청률

TBO Play는 한국 방송 및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북미지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쓰와이프' 엄정화, 코믹 연기 히트칠까

(서울=뉴스1스포츠) 유수경 기자 = 배우 엄정화가 영화 '미쓰와이프'(감독 강효진)를 통해 기막힌 변신을 한다. 싱글 변호사에서 하루 아침에 애 둘 딸린 아줌마로 인생 반전을 맞게 되는 인물. 유쾌한 포스터 만으로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미쓰 와이프'는 잘 나가는 싱글 변호사 연우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 하루아침에 남편과 애 둘 딸린 아줌마로 한 달간 대신 살게 되면서 겪게 되는 유쾌한 인생반전 코미디이다.

갑작스런 환경의 변화에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연우의 모습은 캐릭터의 상황을 고스란히 담아낸다. 청천벽력 같은 현실로 패닉에 빠진 연우의 남편 역은 송승헌이 맡았다. 큰딸 하늘은 서신애, 막내 아들 하루는 정지훈이 연기한다.

송승헌은 오로지 아내밖에 모르

는 백점 만점의 자상한 남편 성향으로 분했다. 어느 날 갑자기 근처에 접근조차 못 하게 하고, 잘생긴 외모조차 싫다는 아내의 변화로 인해 그 누구보다 당황하는 캐릭터다.

하루아침에 아줌마가 된 연우 앞에 시시각각 나타나 압박하고 조연하는 '인생 코치' 이소장은 김상호가 맡아 웃음을 선사한다.

엄정화는 앞서 큰 인기를 모았던 '덴싱퀸'에서 꿈을 간직하고 사는 주부 연기에 도전하며 호평 받았다. 이후 드라마 '마녀의 연애'에서는 기세 등등한 골드미스로 등장해 연하남 박서준과 찰떡 호흡을 보여줬다.

이번 작품에서는 싱글과 유부녀를 동시에 연기하며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들에 새로운 양념을 첨가, 더욱 흥미로운 캐릭터를 탄생시킬 전망이다.

uu84@news1.kr



티보플레이 9월 3째주 시청률 BEST 10

- | | | |
|----|-----|----------------|
| 1 | MBC | 위대한 조강지처 |
| 2 | SBS | 용팔이 |
| 3 | SBS | 돌아온 황금복 |
| 4 | KBS | TV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
| 5 | SBS | 미세스 캡 |
| 6 | MBC | 이브의 사랑 |
| 7 | MBC | 화정 |
| 8 | KBS | 가족을 지켜라 |
| 9 | MBC | 딱 너 같은 딸 |
| 10 | SBS | 어머님은 내며느리 |

티보플레이 9월 3째주 신규 방송

- | | | |
|---|--------|----------|
| 1 | CJ E&M | 살아보니 어때? |
| 2 | CJ E&M | 비밀 독서단 |

티보플레이 9월 3째주 최신 영화

- | | | |
|---|-------|----------|
| 1 | 미쓰와이프 | 송승헌/엄정화 |
| 2 | 치외법권 | 임창정/최다니엘 |

'치외법권' 임창정 · 최다니엘, '똥아이 브로맨스'는 처음이지?

(서울=뉴스1스포츠) 유수경 기자 = '치외법권'은 분노조절 안 되는 프로파일러와 여자에 미친 강력계 형사 콤비가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며 법 위에 군림하는 범죄 조직 보스를 잡기 위해 무법수사팀으로 뛰어들면서 벌어지는 통쾌한 코믹 액션 영화다.

FBI 출신 프로파일러이지만 이성보다 주먹이 먼저 앞서는 정진(임창정 분)과, 엘리트 코스를 거쳐 형사가 되었으나 범인 검거보다는 여자 꼬시는 데 더 관심이 많은 유민(최다니엘 분)이 특별 수사를 위해 그 어떤 명령과 외압도 받지 않는 그야말로 치외법권의 팀으로 뭉치게 되는 것.

두 사람은 이제껏 본 적 없는 '똥아이 브

로맨스'를 선보일 예정이라 기대를 모은다. 여기에 오랜만에 스크린으로 복귀하는 반가운 얼굴 임은경과 충무로에서 가장 바쁜 두 배우인 장광과 이경영이 탄탄한 연기력으로 뒷받침한다.

공개된 티저 포스터는 임창정과 최다니엘이 체포한 범인들을 가운데 두고 마주 보고 있는 비장한 분위기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여기에 'X같은 세상, 통쾌하게 날려 버린다!', '법보다 주먹이 통하는 치외법권'이라는 카피를 통해 영화 속에서 두 형사 콤비가 사건을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보여줄 거침없는 액션과 시원한 웃음이 예상된다.

uu84@news1.kr



TBO PLAY

보스톤코리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이동 고객 특별 할인

타 방송사에서 티보 플레이로 갈아 타시는 분에 한해 월 \$30로 특별 우대해 드립니다

무제한 시청 월:

\$39.99





Premier Realty Group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리스팅

1. Full Plant 클리너 : 렉싱턴에 위치. 부동산 포함 **\$1.39M**
2. 보스톤 인근 일식식당 : 좋은 위치. Beer and Wine 라이선스 포함. **\$300,000**
3. 드롭오프 스토어 : Sharon에 위치. **\$40,000**
4. 드롭오프 스토어 : Norwell에 위치. **\$20,000**
5. 악세사리 카트 : 큰 몰안에 위치함. 보스톤 북부. 안정적인 수입. **\$55,000**
6. Single family in Danvers : 4Bed 2 and 1/2 Bath, 2,620 s.f. 2 car garage.
좋은 위치. Asking **\$550,000**
7. 렌트 : 701 Hammond St, Unit 2, Brookline 4 Bed 2 Bath, 1,800 s.f. 큰 공간, 2대 주차공간,
좋은 위치, 최상의 학군. Rt 9 인접, 근처 Chestnut Hill 쇼핑몰과 불과 몇분거리에 위치함.
\$2,950
8. 렌트 : 1776 Commonwealth ave. Unit 2, Brighton. 4 Bed 2 Bath 2,379 s.f 히팅,
Hot Water 1대 주차공간 포함. **\$3,950**

나원태: 617.642.3156
제이슨전: 617.642.5670



신영의 **세상 스케치**

515회

그 누구보다 '나 자신'에게 진실하기를...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을 가끔 한다.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神,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어떤 특별한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삶을 살아오면서 겪는 경험에서의 일일 것이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건강이나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등)들이 닥쳐 캄캄하고 암담한 터널을 지날 때도 있을 것이며, 때로는 자식도 내 마음대로 말을 들어주지 않아 고민하는 때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불안한 사회와 세계 속에서 나를 든든히 지키며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신독(愼獨)'이 아닐까 싶다.

살면서 쉽지 않지만 혼자 있을 때에도 여럿이 있을 때처럼 나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안으로 성실하면 밖으로 드러난다' 옛말처럼 늘 같은 마음의 중심과 무게로 나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일 게다. 혼자 있을 때에도 혼자가 아님을 깨닫는 참 神을 믿는 신앙인이길 마음을 모아본다. 그것은 그만큼 나 자신을 추스르고 다스리며 산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무엇이 갑자기 변할 수야 없겠지만, 매일 매일의 자신

을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이 필요한 것이다. 나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늘 내 탓이 아닌 남의 탓이 되기 쉬운 까닭이다.

'남이 알지 못하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인욕(人欲)과 물욕(物欲)에 빠지지 않고 삼간다'라는 뜻을 지닌 '신독(愼獨)'은 나 자신에게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귀한 묵상으로 안내한다. 여럿이 있을 때는 남을 의식하기에 자기 자신을 자중하기도 하고 다스리기 쉽지만, 혼자 있을 때의 자신의 숨은 '욕심과 욕정'들은 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죄의 씨앗이 되는 것이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물질(돈)은 필요하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것이다. 물론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어디에 두느냐가 더욱 중요한 일이지만, 혹여, '물질의 노예'가 될까 염려스러운 것이다.

요즘 아이들을 키우면 더욱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요즘 부모들의 입장일 것이다. 그것은 물질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며 삶의 편리함과 함께 그에 따른 손해(피해)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특별히 청소년 아이들을 둔 부모들은 더욱이 아이들이 공부하는 시간 외에 무엇을 하는지 살피지 않으면

불안해 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너무도 급속도로 달려가는 현대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모든 것이 편리한 만큼 무엇인가 잃어버리는 것 같은 상실감에 사로잡히기 쉽기 때문이다. 요즘의 아이들을 키우며 부모들은 불안한 마음에 더욱이 마음과 정신과 육체가 바빠진 것이다.

삶에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지만, 남을 의식해야 하는 그 어수선한 마음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 그래야 자신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들여다볼 수 있고 자신과 제일 가까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이것저것 재어보고 이런저런 남의 눈치를 보면서 언제 제대로인 나를 살 수 있을까 말이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 어느 한 무리에 속한 단체라는 곳에는 알게모르게 보이지 않는 나를 속박하는 부분이 있기도 하다. 다른 사람의 명품 치장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자유로운 사람인데 알면서도 마음과 생각과 행동은 각각 일 때가 많다.

요즘 가끔 우스게 소리로 '부러우면 지는 거야!'란 얘기로 웃음을 나누기도 하지만, 정말 자신의 중심이 없는 사람이 가끔 있다.

가끔 어느 모임을 가더라도 때와 장소에 맞게 잘 차려입어 눈에 띄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그 사람 자신에게 맞게 차려입은 모습이 참으로 멋스러워 보이면 부럽기도 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옷차림이 내가 입는다해도 해서 그 사람의 멋스러움이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멋이란, 내게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 '멋'이며 나의 장단점을 가장 잘 알고 그에 맞게 연출하는 것이 바로 '멋스러움'이 아닐까 싶다.

이렇듯 밖으로 연출된 모습도 이렇듯 각양각색의 모습일진대, 마음 안에 자리한 마음의 색깔과 모양과 소리는 얼마나 갖가지로 쌓였을까 말이다. 이제는 지천명을 올라 오십 중반을 걸어가는 입장에서 마음속의 것들을 하나씩 털어내고 싶어지는 것이다. 남의 것을 흉내 내는 그런 '멋'이 아닌 내 안의 것을 갖고 닦아 저절로 차오르는 '참 멋'을 연출하고 싶어지는 것이다. 아니 연출이 아닌 자연스러움으로 그저 흘러넘치는 삶이길 바라는 것이다. 삶의 작은 일상에서부터 시작해 하루를 맞고 보내고 또 한 계절을 맞고 보내며 그렇게 그 누구보다 '나 자신'에게 진실하기를...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한담객설閑談客說: **명함名銜**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심상(心象)이 관상(觀象)이라 했다. 마음씀씀이는 얼굴에 나타난다는 말일 게다. 오죽하면 얼굴에 책임지라 했을까. 그렇다고 성형수술을 부추기는 건 아니다. 나도 사는 동안 여러 사람을 만났고, 어설픈 나마 얼굴을 읽는 눈이 생겼지 싶다. 그렇다고 관상보는 점쟁이는 아니다. 그런데, 내가 보는 눈이 항상 틀리는 건 문제다.

선친의 명함은 폼났다. 그리고 간단했다. 한자(漢字)가 세로로 쓰여져 있었는데, '교장(校長, 김누구누구)' 함자만 적혀 있었다. 당연히 이-메일 주소도 없다. 전화번호와 주소는 있었지만, 그건 기억이 가물거린다. 선친이 명함을 건네는 걸 목격한 적이 있다. 중학교 때인가, 담임선생님을 만나는 자리였을 게다. 선친이 명함을 건네며 하시는 말씀이 멋있었다. '부

끄럽습니다.' 대단한 인사말이 아니던가. 부끄러운건 아닐테지만, 그렇다고 자랑도 아니라는 말씀일 게다. 나도 한동안 한국의 높은 양반들을 만날적에 이 말을 써 먹은적이 몇번인가 있다. 맹송맹송하게 명함만 건네기 뭇해서 말을 붙였다. '밥 한번 먹읍시다' 라고 말하기도 저어했기 때문이다.

살다보면 명함을 교환해야 할 때가 있다. 아직 아날로그 시대에 사는 건 아닐텐데, 그래도 필요하다. 그렇다고 처음 인사 나누는데, 전화번호만 마냥 적어달라고 하기도 뭇하다. 그러니 명함이 필요한게다. 처음 직장을 얻고, 명함을 받았다. 아직 졸업이었으니 쓸 일도 많지 않았다. 몽텅이로 남아있길래, 어딘가에 처박아 두었다. 받은 명함까지 처박아 둔 건 아니다. 한동안 곱게 정리해두기는 했다. 지금 일터에

서도 명함은 있다. 허명(虛名)인줄 안다만, 먹고 살기위해 들고 다녀야 할때도 있다는 거다.

때때로 만나는 사람들 이름이 가물거릴적이었다. 어디서 만났더라? 그렇다고 붙들어 세우고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던가요? 물어 보기도 쑥스럽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묻기에도 뭇한 것 처럼 말이다. 가장 황당한 건 아는 분을 화장실에서 마주 칠때다. 묻는 인사말이 막연하다. '시원 하시던가요?' '개운 하시겠어요?' 시 한편이다.

오다가다 /마주치면 늘 반가운 얼굴인데 어찌니? 부끄럽게도 /부끄럽게도 너의 이름도 몰라 그래도 자꾸만 /뒤돌아보고 어느새 가슴에 /들어와 앉은 꽃. (김재수* 풀꽃)

명함엔 이름이 적혀 있다.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도 같이 있기는 하다. 주소지와 회사이름은 뒷전이다. 한국에선 여전히 그게 유효한 모양이다. 명함을 건네는 법도 따로 있기는 하다. 아랫사람이 먼저 주는 거라던가. 공손히 오른손으로 건네고, 왼손으로 받는 다던가. 받았으면, 읽는 시늉이라도 해야 한다. 그리고 속으로 이름을 외워 보는 거다. 그렇게 배웠다. 참, 대통령도 명함이 있을 것인가? 그건 모르겠다.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회장님들도 명함이 있기는 있을 게다.

전직 국무총리가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 해서 징역형을 받았단다. 영의정의 자리일텐데, 돈의 일부는 여동생 전세금으로 썼다고도 했다. 게다가 일이 터지니 돈을 돌려주기도 했는데, 그간 쌓았던 그의 명성이 검게 변해 버렸다. 그이도 명함을 들고 다녔을까? 이전 어디에 명함도 못 내밀게 생겼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으니' (빌립보 2:9)

디플릿게이트의 저주?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쾌속의 2연승을 달리고 있는 반면 오프시즌 동안 디플릿게이트와 관련하여 패트리어츠의 반대편에 섰던 팀들은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디플릿게이트의 저주라고 불릴 정도로 여러 팀들이 불운을 겪고 있다.

디플릿게이트의 중심에 서 있던 패트리어츠의 쿼터백 탐 브래디는 우려를 씻어내고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고 있다. 시즌 개막 직전까지 이어진 재판과 디플릿게이트 논란, 그리고 4경기 출장 정지 처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황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브래디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리그 최고의 쿼터백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반대로 패트리어츠나 브래디를 비난했던 팀들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디플릿게이트는 볼티모어 레이븐스에서 시작되었다. 디비전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패트리어츠는 변칙적인 트릭 플레이를 이용하여 레이븐스에게 신승을 거두었다. 패트리어츠의 플레이를 문제 삼은 레이븐스의 존 하버 감독에게 브래디는 책을 보고 풋볼의 규칙을 더 공부하라고 응수했다.

이후 레이븐스의 장비 담당 직원은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의 장비 담당 직원에게 패트리어츠의 풋볼을 주의 깊게 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결국 이 이메일이 NFL의 조사를 촉발시키고 이후 몇 개월 동안 디플릿게이트 스캔들이 지속되었다.

현재의 레이븐스를 살펴보자. 지난 시즌에 AFC 최고의 팀으로 꼽혔던 레이븐스는 올해 0승 2패로 시즌을 시작하고 있다. 더 안 좋은 뉴스는 레이븐스의 정신적인 리더인 테럴 썩스가 아킬레스가 파열되는 부상으로 시즌을 마감했다는 것이다. 레이븐스는 팀이 속해 있는 AFC 동부지구에서 유일한 무승 팀이다.

패트리어츠 팬들은 레이븐스보다 콜츠를 더 싫어할 것이다. 콜츠는 플레이오프 경기 중 인터셉트한 패트리어츠의 풋볼을 NFL에 넘기고 조사를 의뢰했다.

콜츠는 지난 2경기에서 8번이나 턴오버를 범했다. 비교적 쉬운 팀들을 상대로 연패를 당하고 있으며, 한때 리그 최고의 쿼터백 중 한 명으로 꼽혔던 앤드류 러크는 2진급으로 비교되는 쿼터백보다도 못한 기량을 보이며 수모를 겪고 있다.

휴스턴 텍산스의 구단주 밥 맥내어는 공개적으로 패트리어츠와 브래디를 비난했다. 텍산스 역시 리그 최고의 수



디플릿게이트를 촉발시킨 레이븐스에서는 팀의 주전 라인베커가 아킬레스가 파열되는 부상으로 시즌을 마감했다. 디플릿게이트의 저주일까?

비수 제이제이 와트가 있음에도 0승 2패를 기록 중이다.

델러스 카우보이스 역시 비슷한 경우다. 재판을 통해 로저 구넬 NFL 총재가 자신의 권력을 마구 휘두르고, NFL의 조사가 부실했다는 내용이 공개되었지만 카우보이스의 구단주 제리 존스는 구넬 총재를 옹호했다. 지금 카

우보이스는 가장 중요한 두 명의 선수, 주전 쿼터백과 와이드 리시버가 큰 부상으로 2달간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게 되었다.

구넬 총재를 지지했던 뉴욕 자이언츠의 존 마라 구단주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자이언츠는 10점차 이상 앞섰던 경기에서 모두 역전패를 당해 0승 2

패로 시즌을 시작하고 있다. 각 팀마다 2경기를 치렀을 뿐 아직 시즌 초반이다. 올해 시즌이 끝날 때까지 디플릿게이트의 저주가 계속될지 지켜보는 것도 풋볼을 보는 하나의 재미가 될 것이다.

jsi@bostonkorea.com

2015 년 제5회 뉴잉글랜드 대학연합 친선골프대회

제5회 뉴잉글랜드 대학연합 친선골프대회를 오는 10월3일 (토요일) 오전 11:30에 Stow에 위치한 Stow Acres Country Club, South Course에서 개최합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이 대회는 뉴잉글랜드 지역에 거주하는 각 대학 동문 및 재학생들의 친선도모를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강대학교 동문회가 주최한 작년 대회에는 총 11개 대학동문 44명이 참석하여 친목을 나누었습니다. 올해는 연세대학교 동문회(회장 김준구)가 주관하며, 시상 및 상품은 골프 초보자들에게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푸짐하게 준비하였습니다. 고국 대학은 물론 미국대학 동문 및 재학생들의 참여도 환영합니다.

일시 : 2015년 10월 3일, 토요일 오전 11:30 (Tee Off 12:30)
장소 : Stow Acres Country Club, South Course
 58 Randal Rd, Stow, MA 01775, Tel: 978.568.1100
참가비 : \$100 (카트, 간식 및 저녁식사 포함)
참가신청 : 각 대학 동문회장 또는 김준구: email/stevekimeagle@gmail.com Tel: 617.448.7156





독자기고
김철

북미대륙 인디언의 역사 6. 체로키의 눈물의 길 (3)

체로키족의 수난 (계속)

스페인의 침략자 데소토가 미국남부지역을 탐험했을 때부터 스모키산(Smoky Mountain) 어딘가에 많은 금이 숨겨져 있다는 전설이 있었는데 그 말은 사실이였다. 1832년 한 소년이 워드크릭(Ward Creek)에서 금조각을 하나 주워 백인 중간상에게 넘긴 사건은 앞으로 체로키족이 당하게 될 길고 힘든 시련의 단초가 되었다. 그 후로 온갖 불한당들이 금을 찾기 위하여 인디언의 집과 땅을 해집고 다니며 무수히 악행을 저질렀다. 중국에는 체로키족을 아예 스모키산에서 완전히 제거하기를 백인들은 원했다.

동부 체로키족의 추장 주날루스카(Junaluska)는 잭슨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였다. 1814년 크리크 전쟁 중 Horseshoe 전투에서 잭슨이 크리크 족에게 죽임을 당할 찰나에 주날루스카 추장이 그의 토마호크 도끼를 휘둘러 극적으로 구출하였다. 주날루스카는 체로키 네이션의 특사자격으로 잭슨을 찾아가서 위기에 처한 체로키를 구해 달라고 읍소했다. 그러나 지난날 생명의 은인에게 이미 결정된 사실이니 자기로서는 여기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쓸쓸한 대답만 들려주었을 따름이었다. 주날루스카는 체로키족이 겪는 참상을 직접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올려보면서 절규하였다. “오, 신이시여, 내가 오늘과 같은 비극이 일어날 것을 호스슈전장에서 미리 알았더라면 미국의

역사는 달리 써졌을 텐데...” 라고.

오늘 이 시점에서 젊은이들은 그 때 있었던 일을 잘 모른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백인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저항할 수 없는 체로키족으로부터 총검으로 강탈한 것이란 사실을 어린 학생들은 모른다.

강제이주로부터 25년 뒤 남북전쟁에서 남군의 전투복을 입은 체로키병사들을 만났다. 강제이주 당시 어린 소년이었던 그들은 단번에 나를 알아보고는 ‘우리들에게 잘해주신 군인’ 이라고 반갑게 맞아주었다. 우리는 체로키말로 한참을 이야기했는데 1863년 당시 로스가 아직까지 추장직을 맡고 있다는 사실도 전해 들었다. 그가 지금까지도 생존해 있는지 궁금하다. 로스야말로 오로지 체로키족의 보호에만 온 몸과 영혼을 바친 참 지도자였다고 생각한다.

스콧 장군이 4천명의 정규군과 3천명의 지원병을 끌고 체로키의 땅으로 들이닥쳤을 때에도 몇몇 체로키족은 용케도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어갔다. 나는 그들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고 싶었다. 한 해 두 해 미루다 보니 지금은 기력이 약해져서 그렇게 먼 데까지 갈 수 없게 돼버렸다. 나는 결코 내 총과 칼로 인디언을 해친 적이 없다고 진실로 말할 수 있다. 가련한 체로키 인디언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함으로써 ‘체로키에게 잘해준 병사’ 가 되려고 노력했다. 불한당이 저질렀는지 제복 입은 군인이 행

군 나팔소리 속에서 저질렀든 살인은 살인일 뿐이다. 따라서 누군가는 대답해야 한다. 1839년에 흘린 인디언의 피에 대하여 누군가는 설명해야 한다. 추방의 길에서 죽어간 4천명의 무덤에 대하여도 누군가는 설명해야 한다. 나는 그때의 악몽을 잊어버리고 싶다. 그러나 내 눈에 지금도 어른거리는 얼어붙은 땅위로 645대의 마차에 태워져 죽음의 길에 오르는 체로키족의 모습을 지울 수가 없다.

후세의 역사가들이 이 슬픈 이야기를 잘 전해 주기 바란다. 위대한 심판자가 우리가 저지른 행동을 엄격히 평가하여 그 대가를 치르게 해 주기를 바란다. 내 자손들이여, 이것이 내가 약속했던 생일 이야기의 끝이다. 1890년 12월 11일.



〈눈물의 길(Trail of Tears)〉

문명화된 5개 부족

Cherokee, Chickasaw, Choctaw, Creek(Muscogee), 그리고 Seminole을 흔히 ‘5개의 문명화된 인디언 부족(Five Civilized Tribes)’ 로 부른다. 영국계 이민자들의 잣대로 볼 때 유럽의 문명을 받아들여 백인들의 생

활방식을 따르는 인디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말하자면 이들은 시대 조류의 변화를 잘 파악하여 유럽식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생존을 계속해 나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현실에 충실했던 인디언식 개혁주의자인 셈이다. 반대파 크리크 족과는 전쟁을 치루기도 하였지만 대체로 이들 5개 부족은 유럽 이민자들로부터 인간적인 처우를 받았으며 백인과 결혼하는 예도 많았다. 일부 인디언들은 대규모 농장을 운영하면서 흑인 노예까지 부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1830년대에 들어와서는 백인들의 끝모르는 탐욕에 희생되어 모두 고향 땅에서 쫓겨나 홍인종의 땅이라는 의미를 갖는 오클라호마로 강제이주를 당하고 만다. 오늘날의 잣대로 보면 이와 같은 강제이주도 일종의 인종청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개 부족중 체로키족이 백인의 생활방식에 가장 가까이 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한 걸출한 인재의 역할이 컸다. 세콰이아(Sequoyah)라는 선각자는 체로키 말을 기록할 수 있는 체로키문자를 고안하였다. 체로키 네이션은 1825년에 이 문자체계를 체로키의 공식문자로 지정하였다. 체로키 네이션은 1828년부터 우스터(Worcester) 선교사와 힘을 합쳐 체로키 네이션의 수도였던 에코타(Echota)에서 ‘Cherokee Phoenix’ 라는 신문을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이 신문은 체로키 문자와 영어를 함께 사용하였다. (다음 호에 계속)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99 태권도와 김운용(9)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김운용은 2001년 IOC위원장직에 출마하였다. 결과는 낙선했다. 그의 이 낙선은 그의 생애에서 가장 쓰라린 상처를 준 사건중의 하나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IOC를 중심으로 한 국제스포츠계는 진정으로 그를 IOC수장으로 받아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고찰해 보았을 때 당시 유럽의 귀족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IOC위원장직 패배와 때를 같이 하여 국내의 ‘뒤틀림’ 에서도, 특히 태권도계에서 김운용의 퇴진을 외치는 목소리가 크게 나오기 시작했다. 그가 우리나라에서 대한체육회장, 한국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장, 대한태권도협회장, 국기원장,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등과 국제적으로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GAISF(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회장, IOC위원 등을 역임하거나 현직에 있던 그 당시, 스포츠계에서 그의 영향력은 막강했지만, 그가 크기 위해 가장 든든한 받판이 되었던 태권도계에서 ‘반김운용’ 운동이 번지고 있었다. 30여년간 이어온 그의 독주로 누적된 태권도내부의 비정상적인 운영과 집행은 일선 태권도 지도자들의 ‘복종과 인내심’ 의 한계를 가져왔다.

표면적으로 조용하던 태권도계의 ‘반김운용’ 목소리는 드디어 2001년 국가대표선발

전을 전후하여 수면위로 부상하였다. 그는 그 해 2월에 실시한 인사에서 태권도계의 중론에 반하는 인물을 기용하였다. 태권도계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문제의 인물’ 로 평이 난 두명을 대한태권도협회의 요직에 앉힌 결과 ‘김운용 퇴진운동’ 은 가열되었다. 문제의 인물들은 특정학교 출신을 편애하며 경희대와 용인대는 국가대표선수선발에서 제외(불이익을 받게)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였다. 그와 함께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선발한 심판진의 구성은 그 소문을 입증이라도 하듯 ‘편파적인 면면’ 들이었다. 우리나라 태권도 국가대표선발전은 세계대회보다도 더 어렵다. 국가대표가 곧 세계챔피언이고 올림픽이 있는 해라면 곧 올림픽이어나 다름없다. 뜬소문과 함께 우려했던 불이익은 2001년4월16일 대회 첫날부터 불공정 판정이 나오면서 현실화되었다. 급기야 용인대 학생 250여명이 국기원을 점거하면서 태권도계에서는 미증유의 사태(태권도계에서는 이것을 4.16사태라고 부른다. - 이 사태 당시 김운용은 7월에 있을 IOC위원장직 선거를 앞두고 있었다)가 발생하였다. 국가대표선발전이 끝났지만 시위는 계속되었고 학생들의 집단농성은 김운용의 IOC위원장 선거에 악재로 작용하게 될 수도 있어서 대한태권도협회는 조기수습(결국은

졸속수습)에 들어갔다. ‘문제의 인물’ 을 면직시키고 향후 5년간 재임용을 못한다고 서면 약속을 하였지만, IOC위원장 선에서 패배한 김운용은 그를 다시 세계태권도연맹의 요직에 기용했다. 이른바 ‘회전문인사’ 의 단행은 태권도 지도자들과 대학생들의 강력한 반발을 유발하면서, 급기야 2001년10월21일 국기원에서 집회를 열고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이와 동시에 김운용과 그 ‘문제의 인물’ 중의 한 명인 세계태권도연맹의 신임 사무차장 임윤택과의 검은유착, 거기에 김운용의 아들 김정훈이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회사가 특혜를 받고 있다는 정황은 ‘김운용과 태권도를 망치는 몇몇’ 의 퇴진구호로 바뀌었다. 김정훈이 소유한 E-TKD사는 동년 초에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국기원 등 김운용이 이끌고 있던 3개 단체의 홈페이지 사업권을 따냈다. 그리고 당시 태권도계에 파다하게 나돌던 소문인 김정훈의 국기원 이사 임명설 등은 ‘범태권도 바로세우기 운동연합’ 회원들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발상들이었다. 또한 세계태권도연맹 사무차장 임윤택은 현명한 해결책을 강구하기보다는 시위하는 학생들에 맞서 100여명의 ‘젊은이’ 들을 동원하면서 사태를 악화시켰다.



KPOP 90's LEGENDS SUPER CONCERT

DJ DOC, COOL, JINUSEAN, R.ef, JO SUNGMO, KIM WONJUN, CLON, CHULI & MIAE

www.kpop90.com

THE THEATER
AT
MADISON SQUARE GARD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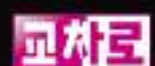


8PM SAT OCTOBER 31, 2015
4 Pennsylvania Plaza, New York, NY 10001

★ Tickets available at : [ticketmaster](http://ticketmaster.com)® Ticketmaster.com / 교차로 718-460-0114



New Revolution
Entertainment Inc.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人

충(充)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充滿)하지 아니하나
Can anyone hide in secret places so that I cannot see him?” declared the Lord “Do not I fill heaven and earth?” -예레미야 23:24

한국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 추징(追徵)한 세금이 2011년 6조 1000억원에서 2014년엔 8조 3000억원으로 엄청나게 늘었다.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1년, 12년에 비교 박근혜 정부 추징세액이 1조 5000억 ~ 2조원이 나 불어난 것이다.

지학경제를 양성화해 임기 중 세금 18조원을 더 걷겠다고 박근혜 정부가 집권 후 해마다 8조~10조원씩 세수(稅收)차질이 발생하자 세무조사를 통해 이를 메꾼다는 목표를 보강했는데 현실론 증명 된 것.

문제는 목표가 ‘탈세(脫稅)적발’ 이 아니라 ‘세수확보’ 인 듯 하다는 점이다. 국세청의 과세해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요청한 건수가 2012년 6,424건에서 2014년 8,474건으로 급격히 늘었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 준다.

국내 기업이 대부분 수출부진과 내수침체로 어려운 상황에서 세수확보를 목표로 한 무리한 세무조사에 시달리면 경기회복이 더 늦어질 수 있고 연쇄적인 결과가 경제전체를 악순화에 빠질 우려도 배제 할 수 없을 텐데..

충(充)자는 뒤에 설명이 따르지만 세 부분이 빠대다. 첫째 ‘하늘나라 대궐(大闕)’ 둘째 ‘나(戒)’ 셋째가 ‘인자(人子) 예수님’ 해서 “하늘에 계신 삼위일체” 와 그중 “아드님 예수그리스도 인자(人子)” 사이에 ‘나’ 끼여 충자다.

자세히 보면 세상만사가 다 충자에 묶여 옥신각신 한다.

새정치민주연합혁신위원회가 23일 문재인 대표에게 부산 출마를 요구했다. 문대표는 불출마 선언을 한 상태에서 충자에 묶인 셈.

혁신위원회는 또 안철수, 김한길, 이해찬, 정세균, 문희상 등 전직 대표들에게는 열세지

역에 출마하라 했다.

뇌물, 알선수재, 정치자금법위반, 성범죄 등으로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아예 공천심사 대상에서 제외했을 뿐 아니라 기소만 돼도 정밀검사를 통해 불이익을 주기로 당규(黨規)를 바꿔 버렸다.

새정치연합 신위가 이처럼 개혁에 앞장서는 것은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총선에서 참패할 수 있다는 절박감” 때문이란단다.

새정치연합은 4월 재보선 참패 후 공천권을 중심으로 계파간 싸움에 휩쓸려왔다. 신당(新堂) 창당선언, 탈당 등이 연일 벌어져 이 같은 충격요법이 아니면 81석으로 끌어 들었던 8년전 상황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지금 새정치연합이 전직대표들을 당선이 힘든 지역에 보낸다고 국민과 유권자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까?

야당이 당면한 문제의 본질은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것.

유권자들의 눈에 야당은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전략에 열을 올린다. 공공개혁도 가로막고 물고 늘어진다.

사사건건 시비하는 야당은 무책임해 보일 수밖에.

재원대책도 없이 복지확대만을 주장한다든지, 한미 FTA나 제주해군기지처럼 자신들이 시작한 일을 야당이 뒤흔었다고 반대한다든지, 대소사를 막론하고 국회를 버리고 장외(場外)로 뛰쳐나가는가 하면 막말과 비아냥으로 투표자들에게 불신(不信) 쌓아왔다.

혁신안을 국민 앞에 내놓은 이날 야당 윤리심판원은 동료최고위원에게 막말을 퍼부었던 정청래 의원에 대한 징계는 앞당겨 끝내기로 하여 정의원은 최고위원 직에 복귀하게 됐다. 반면 혁신위는 부산출신 조경태 의원에 “해

당 행위자” 라며 “강력한 조치” 를 취해달라는 것은 “공천하지 말라” 는 뜻.

조경태 의원은 무재인 대표와 친노(親盧) 세력을 줄곧 비판해 온 사람.

조경태 의원이 해당행위라면 민주당이라 할 수 없다는 공론이 지배적이다.

국민이 혐오하는 막말은 봐주고 당내 쓴 소리는 배척하는 것은 혁신이 아니라 그 정반대인 구태다.

희망이 없는 야당은 과격한 수단에 빠지기 쉽고 그로 인한 부작용과 혼란은 모두 고스란히 국민 부담이 된다.

사우디아라비아 이슬람교 성주순례 행사에서 최소한 453명이상이 압사하는 큰 참사가 발생했다. 불과 2주전에도 메카의 대성전(大聖殿) 증축공사 위해 세워둔 대형 크레인이 강풍에 무너져 100명이 숨졌었는데..... 부상자도 719명에 이르러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 날 듯.

순례객들이 메카 대성전으로 향하기 직전 이른바 ‘마귀 돌기둥’ 이란 곳에 7개의 자갈을 던지는 의식을 치르는 과정에 수만 명이 밝혀지는 참사가 발생.

이들에게도 충이 전국 행을 유도했으면 충충: 實也 실야- 잘 충이 효자를 뜯으면

1) 上: 義闕의궤, 즉의(義)로운 대궐(大闕)이란 뜻. 義롭다는 뜻은 “양(羊)과 나(戒).” 羊은 글자 그대로 ‘八(구원을 뜻하는 팔)과 三(하나님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세분)을(上下相通: 위아래로 서로 통할 신)하늘에서 땅으로 연결했다는 그림이 나아 (芽手손수, 戈: 전쟁과 손으로 전투하듯 놓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온 羊을 꼭 잡고 있는 그림이 義를 그린다 해서 이 큰(大) 대궐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一)과 인자(人子)예수님의 집이다.

해서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을 떠나 이 대궐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합치는 것을 설명하신 구절이 “나(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였더면 나의 아버지(하나님)게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if you loved Me, you would be glad that I am going to the Father, for the Father is greater than I.” -요한복음 14:28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一)과 예수님(人子)가 대궐(大闕)의 주인인 것을 증명하셨다.

2) 人: 自衛 사사사 나사 戕也

3) 人: 人也 사람인 또는 人 = 人어진 사람 2) 人과 3) 人을 합하면 信也 신야 = 믿을 운. 信은 성경의 핵심을 지적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목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For God so love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Whoever Believes in Him is not condemned but whoever does not believe stands condemned already because he has not believed in the name of God’s one and only Son.” -요한복음 3: 16, 18:8

하늘나라의 대궐(大闕)에 들어가는 자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을!

“믿는다(信)” 는 것은 ‘인자(人子) 예수님 말씀 곧 성경(聖經) 영어로는 “The Holy Bible” 를 읽고 깨닫기 만해도 “하늘 대궐에 들어가는 ID(신분증명서)가 주어지는데...” “인자(人子)의 말씀(言) = 信” 이니까.



보스톤코리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이동 고객 특별 할인

타 방송사에서 티보 플레이로 갈아 타시는 분에 한해 월 \$30로 특별 우대해 드립니다

무제한 시청 월:

\$39.99



공중파, 케이블, 최신 영화, 뮤직비디오 까지 대한민국 모든 방송 콘텐츠를 모두 즐기는 The Best On-Demand, TBO

집에서 TV처럼 편하게 IPTV TBO Play,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TBO 내 손 안의 미디어, TBO Touch (출시예정)까지 다양하게 즐기세요.

The Best Ondemand, TBO



우리는 복음의 증거입니다

WE ARE DEMONSTRATORS OF THE GOSPEL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알게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딤후 1:16)

2015. **11/26**(THR)~**11/28**(SAT) THANKSGIVING HOLIDAYS **2박 3일**
@ DOUBLETREE BY HILTON HOTEL BOSTON NORTH SHORE IN DANVERS, MA

SPEAKERS

- + 권지현 목사 (다음세대교회 담임, GTM 대표)
- + 김형국 목사 (나들목교회 대표, 하나님나라복음DNA네트워크 대표)
- + 이주연 목사 (산마루교회 담임, 산마루서신 발행인)
- + 김건희 대표 (예수믿는청년, 극단 배우는사람 대표)
- + 김수우 교수 (HARVARD UNIVERSITY 치의학, DENTISTS FOR HUMANITY 대표)
- + 김진수 장로 (GITX MUSHROOM INC 대표, BUSINESS AS MISSION, 캐나다 원주민 선교사)
- + 서명구 교수 (UNIVERSITY OF MARYLAND 경제학, THE CENTER OF BUSINESS AS MISSION 공동대표)
- + 이정규 형제 (MBC 공채개그맨 어쿠스틱밴드 DELIVER 보컬)
- + 한충희 장로 (주 UNITED NATIONS 차석 대사)
- + 함혜옥 교수 (BOSTON UNIVERSITY 사회사업학, ASIAN-AMERICAN WOMEN'S HEALTH INITIATIVE PROJECT 대표)

RENEW는 대학, 청년, 청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합집회입니다.

- 집회 기간 중 0-2세 유아와 어머니를 위한 NURSERY ROOM 마련되며, 3세 이상 자녀를 위한 KIDS RENEW와 YOUTH RENEW도 함께 진행됩니다.

등록비 성인 1차등록(~10/11) \$199, 2차 등록(~11/8) \$229, 3차 등록 \$269(-원장등록) <4인1실 기준, 호텔이용 및 식사비 포함>
0-2세 무료, 3-4세 \$60, 5-12세(KIDS RENEW) \$120, 13세 이상(YOUTH RENEW) \$199

등록문의 : renewregister@gmail.com 일반문의 : renewinusa@gmail.com

RENEW 2015에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ONLINE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RENEW 2015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는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www.renewusa.org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세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300) 주식시장의 진실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것을 보고 들으면 무엇인가를 행동으로 옮겨야만 할 것 같습니다. 달려오는 기차선로 위에서 있는 듯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락하는 시장에서 팔고 나오면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을 이성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시장에서 느끼는 두려운 마음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러한 두려운 마음 때문에 인류는 여러 위험을 피해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투자하는데 이러한 마음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하는 투자로 이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의 진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의 과거 움직임을 함께 알아봅시다.

장기투자:

주식시장은 오르고 내림을 반복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꾸준히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79년부터 2014년까지 \$10,000을 투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기간에 S&P 500에 투자했다면 \$500,570으로 불어났습니다. 채권(Barclays US Aggregate)에 투자했다면 \$155,554로 증가했습니다. 투자 위험성이 거의 없는 정부 채권(3 M Treasury Bill)에 투자했다면 \$52,537로 상승했습니다.

마켓 타임(Market Timing):

투자자는 주식시장 최고점에서 팔기를 원하고 시장이 바닥일 때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투자 방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잘 알고 있지만 알게 모르게 이러한 방법을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2014년 연말을 기준으로 20년 전에 S&P 500에 \$10,000을 투자했다면 투자 금액이 \$65,475로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주식시장이 가장 많이 상승한 10일 동안 내 돈이 투자되어 있지 않았다면 \$32,676으로 적어지며 상승한 20일 동안 투자하지 않았다면 \$20,361로 적어집니다. 같은 기간 20

년 동안 내 돈이 주식시장에 30일 동안 투자되어 있지 않았다면 결과는 \$13,451입니다.

장기간에 주식시장이 언제 상승하고 하락하는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식 투자의 실패는 안 되는 방법을 반복해서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시간(Time)은 투자자 편:

남편이 내 편인지 남의 편인지 헷갈린다는 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분명 투자자 편입니다. 주식시장은 여러 이유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지만, 투자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투자자에게 분명 유리합니다.

1926년부터 2014년까지 주식시장을 참고해 봅시다. 이 기간에 주식시장을 1년 단위로 보면 주식시장이 올라간(positive) 적인 73% 내려간(negative) 적은 27%였습니다. 5년 평균(5년 동안 투자)으로 보면 올라간 적이 86%이며 10년 투자는 94%입니다. 주식시장 과거 88년 동안 어느 시점 15

년 평균을 보면 100%가 올라갔습니다. 이 말은 주식시장 어느 시점에나 15년 동안 투자했다면 투자한 원금보다 적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투자자 감정(emotion):

상승하는 시장에서 기분이 흥분되며 더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진실은 팔거나 현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락하는 시장에서 두려움이 가득하고 손 털고 나오기 싫습니다. 진실은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많은 투자자는 “비쌀 때 투자하고 쌀 때 파는” 실패 투자를 반복합니다.

마음의 준비:

2차 대전 이후 주식시장이 10% 하락(correction)한 적이 평균 2년마다 일어났습니다. 2년마다 하락하는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성공하는 투자와 실패하는 투자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눈에 볼 수 있는 도표가 www.bfkorean.com에 있습니다.



성기주 변호사 칼럼 이민 Updates (2015년 9월 넷째주)

1. 무비자 (ESTA) 의 새로운 웹사이트
 9월 10일 부터 무비자 입국에 관련된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됩니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 눈에 띄는 점은 ESTA 신청 중에도 언제든지 frequently asked questions로 접근이 가능하게 한 점과 친모바일 웹사이트로 전환해서 앞으로 ESTA 허가 신청을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게 된 점입니다.

또한, 한국어를 포함 총 23개 언어로 언제나 전환이 가능하게 됐고 한가족이 함께 신청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됐습니다.

ESTA 는 무비자로 입국하시는 분들이 사전에 미국 입국을 허가 받는 작업으로 적어도 입국 72시간 전에 신청을 하셔야 하는 제도입니다. 작년 1천9백만명이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했고 현재 총 38개국 국적자들이 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2. 몇가지 이민 카테고리의 만료
 현행법상, EB-5 로 불리는 투자이민과

비성직자에 대한 종교 비자 (R-1) 등이 이번 9월30일로 법적 효력을 잃게 됩니다.

EB-5 (투자영주권)

지난 1990년 외자유치를 목적으로 처음 시작된 EB-5 는 1992년 Regional Center 라는 pilot program (한시적인 조치) 이 생기면서 한국과 중국에서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Regional Center 가 이번 9월30일로 법적인 유효기간이 만료 됩니다. 물론, 특별한 이슈가 생기지 않는한, EB-5 에 대한 연장은 확실해 보이지만 개정 또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최저 투자금이 현행 오십만불에서 팔십만불로 (약 8억원) (Regional Center 가 저개발 지역이나 실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곳에 위치했을 경우) 또는 현행 백만불에서 백이십만불로 상향 조정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R-1 비성직자
 성직자와 마찬가지로 성직자가 아니더

라도 종교단체에 꼭 필요한 직책 (법에서는 critical religious worker라고 정의함)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종교 비자가 가능했습니다. 성직자 비자와 마찬가지로 비성직자 종교 비자도 한사람이 총 5년 동안 유지할 수 있으면 한번 신청에 2년 6개월의 유효기간이 주어집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비성직자 종교비자도 이번 9월 30일 만료가 됩니다. 이 카테고리도 연장이 확실해 보이지만 종교직책에 대한 정의가 현행보다 더 좁아지리라 예상입니다.

3. 영주권신청서와 EAD 카드 신청서 Transfer

최근 미국 동부지역 (보스톤 포함) 의 많은 이민관련 케이스를 주관하는 이민국 버몬트 서비스 센터는 또다시 가족이민신청서 (Form I-130) 와 EAD (노동허가서 Form I-765) 신청서들을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로 이전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직도 다 처리 못한 지난 4월 신청된 H-

1B 신청서들의 여파로 보입니다. 지난 4월 총 27만여개의 H-1B 신청서가 접수됐습니다. 물론, 말이 27만개지 실제로 이 많은 신청서를 처리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최근 버몬트 센터의 무분별한 request for evidence (추가 자료 요청) 발송과 이해할 수 없는 신청서 거부 사례가 많은 것은 문제라 생각됩니다. 이번 케이스 이전으로 하루 빨리 버몬트 센터의 workload 가 평년 수준으로 되돌아 오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이민 또는 비자 신청을 (버몬트 센터로 신청되는) 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을 조금 뒤로 미루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솔직히 지금은 버몬트 센터와 무엇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시원한 여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가족들에게
앤티비를 선물하세요!

하루 \$1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 하세요?

아직도 비디오를 빌리세요?

합법적인 앤티비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윤희경
보스톤봉사회

공화당 대통령이 당선되면

레이건 대통령의 퇴역 전용기(Air Force One)를 배경으로 대선 공화당 예선 2차 토론회가 열렸다. 15명 후보 각자 공화당 대부분인 레이건처럼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을 것이다. 이들의 직업은 기업가 2, 의사 1, 주지사 7, 미 상원의원 5로 분류된다. 자신의 인품과 성격, 그리고 정책을 띄우는 자리였다. 공화당 보수도 강은이 있어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 그 정책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는 공통분모를 기술하고자 한다.

후보자 모두는 집무 첫날 이란 핵합의를 파기할 것이라고 공약하였다. 핵합의는 미, 영, 불, 러, 중 그리고 독일 서방 6개국 이란과 2년간의 협상 끝에 이끌어 낸 것이다. 이란은 앞으로 10-15년간 핵개발을 포기하고, 이에 대한 사찰과 검증을 서방에게 허락하고, 대신 서방은 이란에 대한 경제봉쇄를 푸는 것이다. 일방적 파기와 동시에 신임 대통령은 더 강력한 대이란 경제제재를 추진하고, 이란 석유 수입국인 한국, 일본, 인도, 중국 등에 거래 중단의 압력을 가할 것이다. 한편 이란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가하며, 새로운 협상을 시도할 것이다. 시리아와 이라크의 혼란을 오바마의 이라크 전면 철수에 있

다고 하고 있어, 이 지역에 미군 지상군 투입을 통한 무력시위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합의서에 서명한 여타 서방국가와 이란은 또 다른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일방적 파기는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 상실과 고립, 미국 주도의 경제봉쇄 실패 초래를 예견한다.

집무실 휴지통에 던져질 그 다음 문서는 오바마케어법이다. 공화당 다수인 미하원은 이미 50 차례 이상 오바마케어 폐기를 결의하여, 반대를 줄기차게 표현하여 왔다. 폐기는 손바닥 뒤집듯 쉬울 것이다. 결과로 오바마케어 보험에 가입된 1천5백만명이 건강보험을 잃게 된다. 공화당은 애초부터 오바마케어를 반대하며, 그 이유로, 법이 위헌이고, 보험료 양등을 초래하고, 의료기술이 저질화되고, 직장이 보험의무화로 고용수를 줄여, 즉 직장길러가 되어 국가재정이 악화된다는 등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이유는 더는 옳지 않거나, 아직 현실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공화당 대안은 각자에게 보험구매에 쓰이는 일정액의 전표를 발급하고, 각자 적절한 보험을 구매하는 제도(Voucher)가 유력하나, 이 또한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예

측할 수 없다.

후보 누구나 다 공약하는 또 하나의 정책은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of America(약자: PPF, 뜻: 부모됨의 준비를 갖춘)에 대한 \$5억에 상당한 정부예산을 단절하는 것이다. 낙태를 용납할 수 없다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 후보 중에는 헌법 위에 High Power(예수그리스도)가 있다고 하기도 한다. PPF는 전국에 800여 개 진료소를 운영하며, 주로 여성건강문제, 성병, 피임, 임신부 건강관리 등으로 3백만 명을 진료하며, 3십만명의 낙태수술을 한다. 정부는 낙태수술에는 정부예산이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태아에 대한 대립된 의견은 매우 첨예화되어 있어, 이달 말이 기한인 내년도 정부예산 통과까지 PPF의 지원금 여부에 걸려 있을 정도다.

불법체류자 처리와 이민법개혁 방향은 후보에 따라 다르다. 공통점은 불법이민 유입을 막기 위하여 멕시코와 접한 국경지대에 2,000마일에 달하는 차단벽을 완공하는 것이다. 1천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를 모두 색출, 강제출국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불법체류자

에게 시민권까지는 허용은 안 되나, 합법적 체류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때 떠오른 불법체류자가 출산한 아이의 시민권 자동획득 금지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합법이민의 제한도 간혹 거론되므로 추이를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유럽에 몰려드는 백만의 난민이 톱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론되지 않아 뜻밖이었다. 또한, 선거의 최대 이슈는 항상 서민 경제였으나, 최저임금 이외엔 난 몰라였다. 공화당은 민주당의 정책; 환경오염규제, 세제, 오바마케어 등등이 다 직장킬러라고 주장하고 있었으나 현 실업률은 5.1% 이기 때문일 것이다. 최저임금인상을 반대하는 상원의원인 한 후보는 공화당의 경제철학(supply side)을 쉽게 설명하고 있어, 소개한다. “최저임금은 정부가 고시할 것이 아니라, 다른 기업주가 고용인을 채용하기 위하여 임금을 올리거나, 혹은 현 고용주가 그 고용인이 떠나지 못하도록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하여 오르는 것이 바른 방법” 라고 주장하였다. 현 연방 최저임금 \$7.25 은 2009년 이래 6년간 변하지 않았다. (MA는 \$9.00)

오늘, 다시 읽는 미국사

보스톤코리아 컬럼니스트 소피아 us.herstory@gmail.com

칼럼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WisePrep 소피아선생님 (617-600-4777, us.herstory@gmail.com)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반이민법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쟁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과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의 이민정책 관련 발언이 위험 수위를 넘어선 듯하다. 도널드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를 모두 추방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어 멕시코 등 “남미 출신 이민자 = 불법 이민자 = 범죄자” 로 낙인찍고, 쟁 부시는 “앵커 베이비 = 아시아인” 이라는 편견을 드러내보인 것.

공화당이 만들어지기 직전인 1840년대 후반에서 1850년대 중반까지, 산업화가 진행중이던 북부 도시에 대거 유입되던 가난한 아일랜드계 이민자의 유입에 반대하는 토착주의(nativism)의 목소리가 있었다. 처음에는 비밀결사처럼 활동하면서 누군가 이 단체에 대한 질문을 하면 “I Know Nothing” 이라 답한다하여 “Know-Nothing Party” 로 불리던 이들이 1849년 실제로 “반이민주의” 를 거의 유일한 슬로건으로 내세운 미국당(The American Party)을 구성했다. 몇 년 후 공화당으로 유입되긴 했지만, (남부의 경우 이민자의 유입자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반이민 정서라고 부를 만한 것이 뿌리내리지 않았다고 보는게 좋겠다.)

그래도 당시 이들의 저임금 노동은 미국의 빠른 산업화에 숨은 공신이었다. (반-아일랜드 정서의 뒤에는 낮은 임금으로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는다는 이미지도 적지 않았다) 일부는 남북 전쟁에 참전하기도 했다. 어쨌거나 온갖 멸시와 구박을 받으면서 미국에

정착했던 아일랜드계 이민자들은 스스로를 정치세력화하는 데 상당히 성공했다. 남북 전쟁(1861-1865)이 끝나고 도래한 도금시대(Gilded Age), 미국의 정치는 유력한 정치보스를 중심으로 정당 정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명 폴리테크컬 머신에 의해 좌우되었는데, 아일랜드계 이민자들은 뉴욕 등 대도시 폴리테크컬 머신의 핵심으로 성장한 것이다. (아이러니하게 들리겠지만 1882년 중국인 이민 금지법은 한때 반이민정서의 피해자였던 아일랜드계 이민자들이 주도했던 반이민정책이었다.)

19세기 후반 남동부 유럽으로부터 대거 유입되었던, 일명 1880년 이후에 생겨난 “새로운 이민의 물결 New Immigrants” 출신 이민자들도 1920년 무렵 다시 고개를 든 토착주의의 타겟이었다. 1870년 당시 38,500,000명 정도였던 미국 인구는 새로운 이민 물결 덕분에 1900년 76,000,000명으로 증가했다. 대규모 이민의 물결은 불과 30년만에 미국 인구를 거의 두배 가까이 증가시킨 셈이다. 그리고 이들은 대량 생산으로 특징지어지는 미국의 2차 산업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대량 생산에 필수적이었던 대규모 노동력과, 소비시장의 급성장을 견인했다. 그리고 1910년대까지 남동부 유럽 출신 이민자그룹은 꾸준히 증가했다.

이들의 이민행렬에 빨간불이 켜진 것은 1차대전 직후의 일이다. 1차대전 종전 직후의 1919년은 여러 곳에서 대규모 파업이 발생하

는 등 불안정한 해였는데, 1917년의 볼셰비키 혁명을 목도했던 터, 혹시 미국도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 지 모른다는 적색공포가 자라났다. 적색공포는 249명의 러시아 이민자들을 별다른 근거 없이 본국으로 추방시키기에 이르렀다. 모든 미국적이지 못한 것, 정확히 말해서 WASP (White Anglo-Saxon Protestant)의 가치가 아닌 모든 것이 배척당하기 시작하는 불관용의 시대의 서막이었다.

1920년 치러진 선거에서 하딩은 딱 한마디만 강렬하게 주장했다. “정상으로 돌아가자(returning to the normalcy)” 그리고 당선되었다. 하딩의 당선은 1920년, 24년, 28년 선거에서 연거푸 공화당이 정권을 잡게되는 시작점이기도 했지만, 더 중요하게는 약 20년간 진행되었던 혁신주의가 막을 내리는 사건이기도 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공화당, 재임: 1901-1909)에서 윌슨(민주당, 재임: 1913-1921)에 이르기까지 산업 자본에게 부가 편중되는 도금시대의 부작용을 줄이고 산업화 및 대량 이민으로 발생한 도시 문제 등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연방소득세의 부과(수정헌법 16조), 반독점법의 강화(가령 Clayton Antitrust Act), 관세 인하(Underwood Tariff, 1913) 등이 그 성과였을 것이다.

정상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하딩의 재임기, 낙수효과 이론(Trickle-down)을 주장하는 앤드류 멜론 재무장관은 기업과 부자들

을 위한 감세 정책을 펼치는 한편 미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인상했다. Underwood Tariff하에서 27%가량이었던 관세는 1922년, 23년의Fordney-McCumber Tariff의 단행으로 최고 36.3%까지 오르게 된다. 반독점법으로 규제받는 기업은 없었다.

그 하딩의 재임기에 통과한 법 중 중요한 한가지가 1921년의 이민법이다. National Origins Act 혹은 Emergent Quota Act라고 불리는 이 법은 1910년의 인구 센서스를 기준으로 기존 이민자대비 3%이내로 이민을 억제하는 법이었다. 3년후인 1924년 이민법은 3%의 쿼터를 2%로 낮추고 기준이 되는 센서스를 1890년의 그것으로 바꾸는데, 사실상 이민법들의 타겟이 19세기 후반부터 급증한 남동부 유럽 이민자의 억제였던 탓이다. 그리고 실제로 1920년대의 이민법 덕에 이 지역으로부터의 이민은 상당히 축소되었다.

하딩의 당선으로부터 십년이 채 되지 못했던 1929년 가을 뉴욕의 주식시장이 갑자기 붕괴했다. 미국은 대공황으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주식시장 붕괴가 대공황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대공황이 주식시장의 붕괴로 드러났다고 해야 옳다. 그로부터 미국을 십년간까지 괴롭힌 공황의 장기적인 요인은 다양하다. 가령 1920년대의 친재벌 정책으로 서민들은 소비의 여력을 상실했던 데다가, 급감한 이민으로 인해 “과잉생산” 이 발생했던 것. 요즘 공화당 후보들의 반이민 논쟁을 보다가 1920년대가 생각났더랬다.

POSPay

worldpay

작전타임 한번 불러보시죠?

사업도 성공하기 위해선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타이밍이 지금입니다.



본촌: Allston



돼지꿈: NJ



Mr. Sushi: Arlington



VIP Nails: RI



Queens Nails



Great Nails: GA



My Cleaners: CT



Classic Cleaners: Boston



Professional Cleaners: GA

<고객 절약 사례>

- 본촌: 20% 절약
- 돼지꿈: 16% 절약
- Mr. Sushi: 19% 절약
- VIP Nails: 22% 절약
- Queens Nails: 24% 절약
- Great Nails: 37% 절약
- My Cleaners: 41% 절약
- Classic Cleaners: 13% 절약
- Professional Cleaners: 23% 절약

www.pospay24.com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 알선:25% 현금다운, 크레딧 700+
상가건물,콘도,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런드로맷(Laundromat) 많은
주유소,식당,편의점,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 북쪽 식당, 아침/점심 연매상 \$290,000+ 15년 경영, 소유자 은퇴

보스톤 풀 플랜트+드랍, 연매상 \$750,000 35년 경영, 소유자 은퇴

뉴햄프셔 남쪽 고급동네들, 풀 플랜트, 연매상 \$550,000
드랍소터(연매상 \$345,000 / \$180,000) 각각 매매가능, 좋은위치

보스톤 서쪽(RT.2) 드롭가게 연매상 \$200,000

프로비던스(로드아일랜드) 동양식당 연매상 \$330,000 브라운대학 근처

보스톤 북쪽 드롭가게 연매상 \$208,000 고급동네

동양그로서리 연매상 \$700,000 - \$900,000 여러장소

버몬트 남쪽 동양식당 연매상 \$390,000 Beer&Wind 면허증, 34년간 지속 영업
매매자 소유 건물 - 좋은 리스

보스톤 북쪽 일식식당, 연매상 \$700,000 Beer&Wine 19년 만에 소유자 은퇴

보스톤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보스톤 서쪽(I-495)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500,000 고급동네

드롭 보스톤서쪽(RT.2) 연매상 \$70,000 매매가격 \$29,000

네일살롱 캠브리지 연매상 \$190,000 매매가격 59,000

일식식당 풀 리커 면허증, 연매상 \$700,000 고급동네

드롭 스토어 보스톤 서쪽, 연매상 \$310,000 연매상 \$270,000 각각 매매 가능

동양식당 변화한 푸드코드, 연매상 \$360,000

보스톤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50,000+ 새 기계들, 부유한 동네

뉴햄프셔 세탁소+런드로맷 연매상 \$120,000 18년만에 은퇴

섬머빌 지역 런드로맷 연매상 \$115,000 좋은 렌트

네일살롱 매매, 여러장소 고급동네들 연매상 \$70,000 - \$910,000

보스톤 서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80,000 이상 소유자 은퇴

런드로맷, 여러 장소, 다양한 규모, 연매상 \$60,000 - \$180,000

커피 카페, 캠브리지 하버드 법대 근처, 매매가격 \$99,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세탁소 뉴튼지역, 연매상 \$180,000+ 매출 계속 증가, 내부 리모델 완료



보스톤 교육원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섬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및 성적관리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준비, 섬머및 교외 활동

아카데믹 프로그램

SAT I(old, new)
SAT Subjects/AP 수업
최고 전문강사들의 수업
실전문제 중심수업
주말수업(상시참여 가능)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가능

전과목 개인과외 가능

오랜기간에 걸쳐 학생과 학부모님들로부터
인정받은 최고의 강사들이 수업 합니다.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각종 경시대회 준비
AMC, National Spanish/French/
Latin Exam

2015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 기간: 11.21(토)~29(일)
- 1. SAT I Class
12월,1월시험대비 집중 프로그램
-실전문제풀이 중심의 수업
-수업과 문제풀이의 종일 프로그램
9:00-5:00
-각 과목별 난이도에 따른 시간배분
- 2. SAT II subject class
Math IIC, Physics, Chemistry
- 3. AP및 경시대회준비 개인수업

학기중 주말 프로그램

- SAT I Class:
1.기간: 9.05~1.16(2016)
-4주 단위 등록
-상시 등록가능
-기출문제 풀이중심의 집중코스
- 2. 시간표
9:00~12:00 실전문제풀이
12:00~1:00 점심식사
1:00~4:00 수업
- SAT II Class:
-Math II C
-Physics
-Chemistry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28 Wheeler Rd. #301, Burlington, MA 01803
Tel.339.234.5255~7 / Fax.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services@bostonedu.org